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행

KTX

FEBRUARY 2022

완주

완연한 계절의 맛, 완주 ● KTX-이음 타고 떠난 충주 여행 ● 한지에 핀 꽃, 낙화장 김영조

ARC'TERYX
arcteryx.co.kr

테마 여행_완주

새해 새 마음을 다지기 위해 전북 완주 대둔산을 찾았다. 간밤 함박눈이 내려앉은 기암괴석 앞에서 한동안 걸음을 멈춰 선다. 바위 위에 자라난 저 소나무처럼 하루하루 천천히, 조금씩 굳건해지고 싶다.

이 계절 이 여행_김천

백두대간 황악산 자락, 1600년 고찰 직지사 옆에 사명대사공원을 조성했다. 평화를 위해 전쟁터에 뛰어들고 협상에도 임한 사명대사의 뜻을 기리는 평화의 탑을 바라보며 따끈한 커피를 마시는 시간, 평화로운 힐링이다.

기차 타고_충주

충북 충주를 여행하는 날, 남한강 안개 속에서 나뭇가지마다 상고대가 피어올랐다. 선명한 물줄기 소리를 따라 안개 싸인 새하얀 풍경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걷는 길도 선명해지길 바라면서.

작가의 방_김영조

김영조 낙화장이 달궈진 인두로 한지를 지진다. 수묵이 층을 이루어 가는 어느 순간, 산과 나무가 솟고 여백은 강물이 되어 흐른다. 충북 보은전통공예체험학교 작업실 한편에서 김영조의 낙화(烙畫)는 자연이 된다.

www.kci.go.kr 한국저작권위원회

CONTENTS

060
테마 여행 완주
물 맑고 산 좋은 전북 완주에서 겨울의 지극한 정취를 누렸다.

084
이 계절 이 여행 김천
한 해를 시작하는 즈음, 경북 김천에서 겨울이 가도 녹지 않을 말을 찾았다.

098
기차 타고 충주
생태 공동체, 재생한 구도심 마을에서 충북 충주의 삶을 들여다봤다.

Timeless icon
The Golf 8

아이콘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독보적인 디자인 헤리티지
8번의 변화와 혁신으로 완벽히 새로워진 첨단 테크놀로지
The Golf 8, 또 한번 시대의 아이콘이 되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IQ. Light & IQ. Drive

직관적인 디지털 인터페이스
이노비전 콕핏

감각적 무드를 완성하는
30컬러 앰비언트 라이트

[전시장]
강남 대치 02-564-9800 강남 신사(City store) 02-516-0033 강북 미아 02-320-9630 동대문 02-2241-8888 마포 신촌 02-320-9600 목동 02-3660-9999 용산 한강대로 02-595-0070
서초 02-588-3434 송파 02-6958-0800 한남(City store) 02-747-4300 부천 032-671-4700 분당 031-760-1800 수원 031-284-3030 구리 031-563-2292 안양 031-396-0801 일산 031-904-4400
판교 031-696-0100 인천 032-471-6100 원주 033-737-6500 춘천 033-244-6400 천안 041-573-9993 청주 043-223-9944 대전 042-862-9944 전주 063-213-9500 순천 061-727-2345
광주 062-351-9500 남대구 053-559-1600 대구 053-767-1900 남천 051-611-5500 동래 051-926-5500 해운대 051-995-5500 창원 055-245-7788 포항 054-249-5000 제주 064-744-9200

[차종 및 표준 연비]
Golf 2.0 TDI Premium MY22 (7단 DSG, 배기량 1,968cc, 공차중량 1,489kg, 복합 CO_2 배출량 104g/km 복합연비 17.8km/ℓ (도심연비 15.7km/ℓ, 고속도로 연비 21.3km/ℓ), 1등급)
Golf 2.0 TDI Prestige MY22 (7단 DSG, 배기량 1,968cc, 공차중량 1,489kg, 복합 CO_2 배출량 104g/km 복합연비 17.8km/ℓ (도심연비 15.7km/ℓ, 고속도로 연비 21.3km/ℓ), 1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 판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volkswagen.co.k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034
콕콕 스탬프 여행
스탬프 투어와 함께 엄마까투리의 고향, 경북 안동으로 간다.

036
우연한 발견
모여서 놀고, 길흉을 점치고, 정월의 풍속이 이렇게 다양하다.

040
신상 푸드
방울방울 귀여운 채소 래디시는 예쁜 겉모습만큼 맛도 좋다.

042
맛집 탐방
서울 홍대 일대에서 트렌디하고도 맛깔난 전통 주점을 방문했다.

052
미니 인터뷰
〈정브르의 곤충일기〉를 펴낸 '생물인' 유튜버 정브르를 만났다.

110
촬영지 여행
매일 이야기가 샘솟는 항구도시 전남 목포의 촬영지들을 소개한다.

118
작가의 방
한지를 태워 그리는 전통 회화 낙화. 김영조는 한평생 낙화 외길을 걸었다.

128
문화 돋보기
아름답고 귀한 편지의 물결 속에서 열다섯 권의 따스한 편지책을 골랐다.

134
위스키 인사이트
미국 버번위스키의 상징, 와일드 터키는 그 역사처럼 깊은 맛을 선사한다.

COVER STORY

전북 완주 대둔산 구름다리를 건너며 푸른 산마루와 이마받이한다. 해발 878미터 대둔산은 소나무와 기암괴석의 자태가 아름다워 호남의 금강이라 부른다. 글 **강은주** 사진 **신규철**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KORAIL INFORMATION

154 한국철도 소식
160 시간표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72 열차 이용 안내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차, 그 이상의 아름다움
The new Arteon
라디에이터 그릴 라이팅으로 더욱 강렬해진 디자인과
첨단 기술의 조화로 아름다움의 차원을 넓히다.
예술이 되어버린 기술의 진화. The new Arteon을 경험해 보세요.

정교한 맞춤 주행 설정
어댑티브 새시 컨트롤 DCC

운전자를 배려한 디지털 컴포트
디지털 콕핏 프로

여유로운 프리미엄 실내 공간
넓은 2열 레그룸&트렁크

[전시장]
강남 대치 02-564-9800 강남 신사(City store) 02-516-0033 강북 미아 02-320-9630 동대문 02-2241-8888 마포 신촌 02-320-9600 목동 02-3660-9999 용산 한강대로 02-595-0070
서초 02-588-3434 송파 02-6958-0800 한남(City store) 02-747-4300 부천 032-671-4700 분당 031-760-1800 수원 031-284-3030 구리 031-563-2292 안양 031-396-0801 일산 031-904-4400
판교 031-696-0100 인천 032-471-6100 원주 033-737-6500 춘천 033-244-6400 천안 041-573-9993 청주 043-223-9944 대전 042-862-9944 전주 063-213-9500 순천 061-727-2345
광주 062-351-9500 남대구 053-559-1600 대구 053-767-1900 남천 051-611-5500 동래 051-926-5500 해운대 051-995-5500 창원 055-245-7788 포항 054-249-5000 제주 064-744-9200

[차종 및 표준 연비]
Arteon 2.0 TDI Prestige (7단 DSG, 배기량 1,968cc, 공차중량 1,680kg, 복합 CO_2 배출량 121g/km 복합연비 15.5km/ℓ (도심연비 13.7km/ℓ, 고속도로 연비 18.5km/ℓ), 2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 판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volkswagen.co.kr

KTX 바로 지금, 여행

FEBRUARY 2022

2022년 2월호 제19권 제2호 통권(제212호) 2022년 2월 1일 발행

발행인
나희승(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서울문화사 02-3785-0900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21-19

편집인 조인원

편집장 김현정 kimhj@seoulmedia.co.kr
부편집장 김규보 kkb@seoulmedia.co.kr
기자 강은주 unddu@seoulmedia.co.kr
인턴 기자 남혜림 nhr@seoulmedia.co.kr
온라인 기자 양한나 yangyang@seoulmedia.co.kr

교열 오미경 **번역** 박경리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eoulmedia.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eoulmedia.co.kr
온라인·광고 디자이너 김다은 dadakorea@seoulmedia.co.kr
객원 디자이너 엄정윤

사진
라이트팩토리(LIGHT FACTORY)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실장 이규열 조지영 이철 박정우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eoulmedia.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eoulmedia.co.kr
사원 김수연 ktxad@seoulmedia.co.kr

배포
소장 이재우

경영지원실
본부장 정영기

제작팀
팀장 이수행 **부장** 오길섭 **과장** 정수호

전략기획실
본부장 심정섭

기획팀
팀장 임용욱 **차장** 박선주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3278-5528 **광고** 02-3278-5556

TALLI

JDC 면세점/ JTO 증문 면세점 입점 | https://tallibags.co.kr | 문의 : 02-545-6887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잡지라는 편지를 씁니다

"나야, ○○이. 시집 한 권 보내. 마음에 들면 좋겠어. 생활은 재미있니? 놀라지 마. 지금 강의 시간인데 너무 지루해서 편지 쓰는 거야. (…) 나는 재미있게 생활 잘하고 있어. 친구들도 아주 좋고 선배님도 모두 잘해 주시고. 저번 주 토요일 ○○대 일문과랑 체육대회 했거든? 재미있었어. 부침개도 부쳐 먹고 뛰기도 열심히 뛰고. 아쉬운 건 사진을 한 장도 못 찍었다는 거야. 잘 지내. 또 편지할게. p.s. 답장 부칠 때 학교로 해 줄래? 학교에서 네 편지 받아 보고 싶거든. 히~"

자란 곳을 떠나 다른 도시 대학에 입학한 1학년 때, 제가 자란 도시의 대학에 진학해서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된 친구가 보내 준 편지예요. 손으로 정성스레 쓴 이 편지를 20년 넘게 지난 지금도 갖고 다녀요. 사랑하는 친구는 이민을 가서 만나기가 힘든데 편지를 읽을 땐 옆에 있는 느낌이에요. 친구가 그리워서 아리는 심정이 99.9퍼센트지만 편지 덕분에 친구랑 눈 마주치고 수다 떠는 기분을 0.1퍼센트라도 누려요. 0.1퍼센트 가느다란 느낌이나마 '옆에 있는 듯한'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편지가 제 평생 가장 많이, 가장 아껴 읽은 글 중 하나겠네요.

편지 좋지요. 저도 편지 좀 주고받아 봤습니다. 한번은 중·고등학생 시절 6년간 모아 놓은 편지를 헤아렸더니 700통 가까이 되더라고요. 바야흐로 '대(大)편지의 시대'였네요. 대상을 점찍어 내 일상과 생각, 그를 향한 마음을 쓰는 글은 비밀스럽고 다정하지요. 오직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이라서 하는 얘기니까요.

매우 사적인 매체인 편지는 때로 책으로 묶여 나옵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이 누구냐에 따라, 어디서 왜 썼느냐에 따라 어떤 편지는 역사가 되지요.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는 닳도록 온통 밑줄입니다. 한창 청춘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선생께서 바깥에 보낸 편지지요. "큰 슬픔이 인내되고 극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동일한 크기의 커다란 기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작은 기쁨이 이룩해내는 엄청난 역할이 놀랍다." 인생이 겨울 같은 날, 선생의 문장들을 촛불처럼 켜 놓고 씹어 삼키곤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슬아·남궁인 작가님이 주고받은 편지가 출간되어 신나게 읽었습니다. 내가 못 하는 경험을 하고, 못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못 하는 생각을 하고, 못 쓰는 문장을 쓰시는 분들의 편지가 재미있어 우리 잡지에서 편지를 꼭 다루어야지 별렀어요. 그게 이번에 '문화 돋보기'로 탄생했습니다. 강은주 기자가 편지책 열다섯 권을 고르고 골라 독자님께 권하는 편지 글을 써 주었어요.

각종 편리한 의사소통 수단 때문에 편지가 뒤로 밀린 시대라지만, 우리는 여전히 건넬 이야기가 있고 상대에게 가닿길 바라지요. 이 모두를 넓은 의미에서 편지라 본다면 저희 잡지는 편지를 묶은 책입니다. 완주, 김천, 충주, 파주, 낙화장 김영조 선생님을 만나서 머리와 가슴에 차오르는 말을 정성스레 기록한 2월의 편지가 독자님 마음에 들면 좋겠습니다.

〈KTX매거진〉 편집장 **김현정**

완주군 WANJUGUN

완주의 겨울

열두 번의 만남, 따뜻함을 그대 곁에 둘게요.

2021-2022
방문의 해

송지호 作 〈아원고택〉

라비다 인리치 솔루션 크림

피부 장벽 보호와 보습, 주름 개선을 한 번에 한다. 특허받은 삼백초잎과 뿌리 추출물이 피부를 탄력 있게 가꿔 주며, 화이트 트러플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 풍부한 영양감을 선사한다. 세라마이드 성분과 다양한 보습 인자가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고, 체온에 의해 부드럽게 녹는 멜팅 텍스처로 한 결 한 결 스며든다. **코리아나화장품** 080-022-5013

Worldwide Olympic Partner
Panasonic
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87年
선진안마기술집약체

완벽한 하루를 만드는 안마의자
파나소닉 리얼프로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기념 이벤트

이벤트 기간 : 2022.02.07~2022.02.28

New 12월 출시
EP-MA05
REAL PRO

격이 다른 기술력으로 당신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 드립니다 - Healthcare Leading Company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응원의 마음을 담아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MAK1
100만원 DC

MAJ7
50만원 DC

MAF1
40만원 DC

MA32
30만원 DC

EOS M50 Mark II

약 2410만 화소 듀얼 픽셀 CMOS AF를 탑재해 빠르고 부드러운 라이브 뷰로 촬영한다.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으로 카메라를 스마트폰이나 PC와 연결하지 않고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다. 초당 최대 10매까지 촬영하는 연사 기능도 기특하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두 가지. 무게가 약 380그램이라 가볍고 콤팩트하다. **캐논코리아주식회사** 1533-3355

전남도립미술관
JEONNAM MUSEUM OF ART

Human
7 Questions

< 리움미술관 순회전 >
2022. 2. 17. - 5. 29.

Human
Questions

Leeum Museum of Art
travelling exhibition
〈 Human 7 Questions 〉

< 운운하다
Un-un : Rambling Mind >
2022. 4. 12. – 6. 12.

강운
강운

〈Kang Un〉
강운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지역미술관 협력사업'일환으로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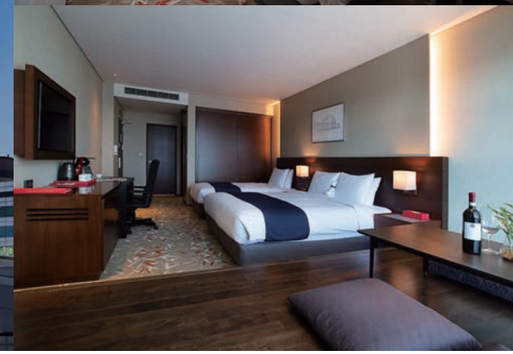
Top Picks

이달의 아이템

검은콩, 맥주효모 등 모발
건강에 좋은 핵심 원료 사용

하이생 모락

거울이 두렵지 않은 모습을 되찾자. 탈모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검은콩과 맥주효모, 어성초,
L-시스틴 같은 원료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한 포에 담았다. 3밀리미터 크기의 작은 환으로 만들어 삼키기 편하고,
한 번에 개봉할 수 있는 이지컷(easy-cut) 방식으로 개별 포장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하기 좋다. **하이생** 1661-1188



Asti
HOTEL BUSAN

실용성, 접근성에 고급스러움까지 갖춘

아스티호텔의 "부산역 바로 옆" 패키지

부산역 바로 옆 늦캉스 or 부산역 바로 옆 얼리캉스

아스티 호텔 부산역에서 얼리 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이 가능 한 '부산역 바로 옆' 패키지를 판매 중이다. 해당 패키지는 KTX 부산역을 이용해 부산을 여행하는 고객들의 여행 스타일에 따라 각기 다른 혜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먼저 '부산역 바로 옆 얼리캉스' 패키지는 오전 11시부터 체크인이 가능하며, '부산역 바로 옆 늦캉스' 패키지는 오후 2시까지 레이트 체크아웃이 가능한 상품이다. 고객은 자신의 일정에 맞게 패키지를 선택하면 된다. 해당 패키지의 가격은 스탠다드 시티뷰 객실(더블/트윈)기준 8만8000원(부가세포함)부터 이다. 그 외 다양하고 재미난 이벤트 및 패키지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며, 아스티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북항 전망과 함께 즐기는

아스티 파스타

부산 바다 전망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알파스토&스푸만테 레스토랑에서 아스티 호텔만의 시그니처 메뉴인 파스타 2종을 즐길 수 있다. 고소한 그라나다 치즈를 듬뿍넣은 Fettuccine Alfredo & Chicken Cordon Blue 와 비프스테이크와 올리브, 토마토, 케이퍼, 스파이스가 들어가 Penne Steak Puttanesca등이 제공되며, 다양한 정통 멕시칸 요리 또한 즐길 수있다.

아스티호텔 부산역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14번길 7-8 예약 및 문의 | 051-409-8888 www.astihotel.co.kr

코베아 창립 40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

고스트 플러스 아이보리

캠핑을 스타일리시하게 즐기고 싶은 캠핑족이라면 주목하자. 4월, 코베아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스페셜 에디션 '고스트 플러스 아이보리'를 출시한다. 터널형 제품이라 내부가 넓어 공간을 활용하기 좋다. 고급스러운 나일론 립스톱 원단을 사용해 내구성이 뛰어나다. 그라운드 시트와 루프, 40주년 엠블럼 플래그도 제공한다. **코베아** 1588-5515

임인년 새해, 새로운 시작

과거와 미래를 잇고 다시 나아갑니다.

당신의 삶이 문화가 되고,
당신의 생각이 예술이 되는 곳

세계로 나아가는 아시아 문화의 창

ASIA CULTURE CENTE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SIA CULTURE CENTER

내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SNS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 주세요.

follow

@harriet_seoul

아름다웠던 그 시절 그 역들은 이제 정말 추억으로 남나 보다. 아쉬워라.

#경주역_안녕
#KTX매거진
#KTX411
#아쉬움

@solongo0628

유용한 〈KTX매거진〉! 광주 맛집 정보를 얻었다. 맛난 거 먹으러 고!

#광주
#광주맛집
#맛집탐방
#KTX매거진

@jason_ch_ryu

삶과 여행을 편안하게 다룬 이 잡지, 천천히 살펴보는 게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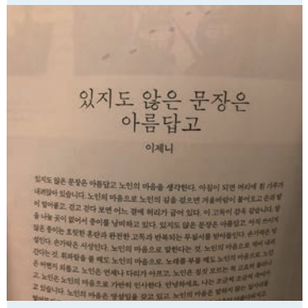
#KTX매거진파이팅
#KTX매거진
#종이매체
#책_좋아

@ktxmagazine

<KTX매거진> 인스타그램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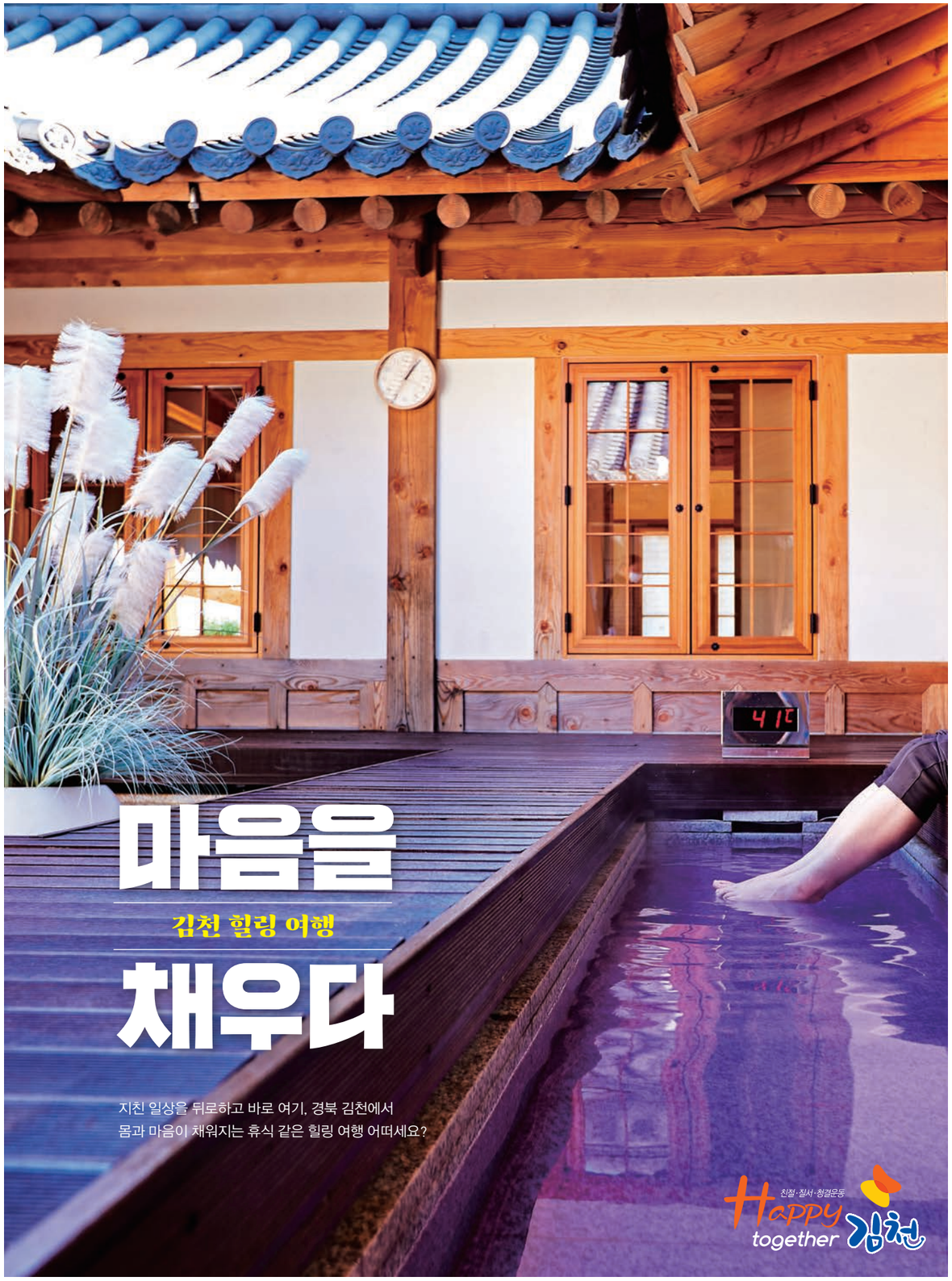
'기차 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농부아빠의 사랑이 담긴
화장품 브랜드 페르미어파파의
키즈 라인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s._.yunha



〈KTX매거진〉의 감동적인 글에 눈물 훔치며 집으로 갑니다 ㅠㅠ

#KTX매거진
#이제니시인
#서울역에서
#눈물_주륵



사막 위에 세운 건물이 전력과
수력을 자급자족한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엑스포장 내
테라관 이야기다.

The Sustainability Pavilion

Terra

ⓒ 두바이엑스포

테라

인간은 유사 이래 무언가를 짓고 살아왔다. 앞으로도 계속 지을 것이다. 코로나19로 개최를 1년 미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엑스포는 인류가 쌓은 지혜와 기술의 정점을 선보이되 목적을 분명히 했다.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성의 철학이 그것이다. 테라(Terra, 대지·지구를 의미)라는 별칭을 지닌 지속 가능성 파빌리온은 전력과 수력을 자급한다. 거대한 태양열 덮개와 주변의 '에너지 트리'에 설치한 패널 4912개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하는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 독특한 외관의 건축물이 미래 도시에 온 듯 호기심을 자아낸다. 엑스포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건축의 본보기로 유지, 활용할 예정이다. ⓚ

→ www.expo2020dubai.com

내 장바구니 속 그림

그림은 더 이상 '그림의 떡'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거래와 투자 대상으로 우리 옆에 바짝 다가왔다.

시장, 거래, 투자 그리고 수익률. 주식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최근 미술계 동향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단어다. 지난해 말 영국 〈콜린스〉 사전이 발표한 '올해의 단어'는 NFT다.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함을 부여하는 NFT는 이름처럼 '대체 불가능(Non-Fungible)'한 속성을 기반으로 음반, 영상, 게임에 이르는 온갖 창작물에 도입됐다. 특히 복제와 위조에 취약한 디지털 아트는 NFT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떠올랐다. NFT가 존재감을 확실히 알린 계기는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eeple)의 작품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이 지난해 3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6900만 달러(약 819억 원)에 거래된 사건이었다.

여러모로 2021년은 기록적인 해다. 한국 미술 시장 전체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커졌으니 매우 가파른 성장세다. 경기가 얼어붙었던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각종 아트 페어와 전시, 경매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운용하면서 유례없는 관심을 끌었다. '억' 소리 나는 그림만 팔린 것도 아니다. 종잣돈 기백만 원으로 아트 테크를 시작한 이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그림을 나눠 소유하는 공동 구매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가치가 1조 원대에 육박한다고 알려진 2만 3000여 점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의 존재감, BTS RM 등 아트 인플루언서들이 보여 준 컬렉터로서의 쿨한 면모는 MZ세대의 미술품 거래에 기름을 부었다. 천상의 화이트 큐브에 박제된 줄로만 알았던 고고한 미술 작품들은 비로소 새 시대, 새 기술과 만나 이 땅에 내려앉고 있다.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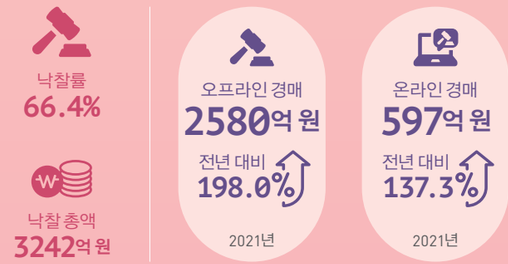
자료 제공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케이아트마켓, 미술시장조사, 서울옥션블루 소투

한국 미술 시장 규모

국내 10개 경매 회사와 톱 5 아트 페어 매출 규모로 추산할 때, 2021년 한국 미술 시장 규모는 약 9157억 원이다. 2018년에 비해 두 배가 훌쩍 넘는 규모다.

미술품 경매 시장 규모

국내 10개 경매사에서 개최한 경매 255회를 통해 출품한 3만 3971점의 작품 중 2만 2541점이 낙찰됐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해 184.5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작가별 거래 현황

경매 낙찰 작가별 총액 톱 3는 이우환, 구사마 야요이, 김환기 순으로 각각 394억 원, 366억 원, 216억 원 규모다. 전체 최고가는 구사마 야요이, 한국 작가 최고가는 김환기의 작품이 경신했다.

미술품 공동 구매 시장 규모

서울옥션블루의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 소투(SOTWO)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미술품 공동 구매 시장 규모는 500억 원을 상회한다. 작품 평균 보유 기간은 48일, 평균 수익률은 약 17퍼센트다.

전설, 밥 말리

**평등, 자유, 인권. 밥 말리는 이 아름다운 단어를 노래로 만들었다.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가운데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게 했다.**

음악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밥 말리는 혁명을 했다. 불평등한 세상에서 평등을 외치고, 싸움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자고 노래했다.

1945년 2월 6일,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자메이카에서 밥 말리가 태어난다. 50대 백인 아버지에 어머니는 10대의 흑인이었다. 1494년 콜럼버스가 이 땅을 밟은 이후 유럽인이 들여온 전염병과 그들의 학대로 원주민 대부분이 사망하자, 유럽인은 사탕수수 농장 일꾼을 충당하려 아프리카인을 '실어 나른다'. 1655년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지배권이 넘어가고도 백인 한 명이 흑인 백 명을 착취하는 비극이 이어졌다. 그런 부조리함 속에 10대 소녀가 40세 연상 플랜테이션 농장 감독관 남성의 결혼 약속을 믿고 밥 말리를 낳은 것이다.

그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무책임한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다시피 했고, 어린 어머니가 아무리 애써도 배고프고 눈물겨운 나날이 지속되었다. 열두 살 무렵 어머니를 따라 이주한 곳이 수도 킹스턴 빈민가 트렌치타운이다. 닭장 같은 판잣집이 빽빽하고 아이들은 빈곤과 영양실조, 전염병에 시달리며, 살 도리가 없거나 다른 길을 몰라 범죄자로 크는 동네에서 밥 말리는 학교를 그만두고 열다섯에 보조 용접공 자리에 취직한다.

음악과 축구가 있어 다행이었다. 그는 짬이 날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공을 찼다. 첫 스튜디오 녹음을 경험한 1962년에 자메이카가 독립하고 이듬해 동네 친구들과 밴드 웨일러스를 결성해 음반을 낸다. 당시에 자메이카에서는 댄스음악인 스카가 유행했는데, 밥 말리는 이를 다듬고 메시지를 싣는다. 자메이카 사람이 이 장르에 붙인 이름이 바로 레게다. 1973년 메이저 음반사인 아일랜드 레코드와 계약하면서 밥 말리와 레게는 세계에 진출한다. 오랫동안 식민 지배에 시달린 약소국의 음악은 말 그대로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낙천적 멜로디에 한의 정서와 저항 정신을 담은 가사. 영미권 팝만이 국경을 넘어 인기를 끌던 시대에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평등, 자유, 인권, 이 아름다운 단어가 노래가 되었다.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는 가운데 사람들은 평등한 세상, 억압받는 자가 자유를 누리는 세상을 꿈꾸었다. 1970년대 반전시위, 반물질주의 시위 현장에서도 그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밥 말리는 위대해졌고 동시에 위험해졌다. 누군가는 그를 두고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존재라고 여겼을 법하다. 급기야 조국인 자메이카에서는 습격을 당한다. 정치 세력이 대립하며 폭동과 총격이 끊이지 않아 비상사태가 선포된 1976년, 밥 말리는 조국에 돌아와 〈스마일 자메이카〉 공연을 준비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으나 공연 이틀 전 암살 기도가 일어나 자신과 가족, 매니저가 총에 맞는다. 그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붕대를 맨 채 공연을 강행한 다음에야 영국으로 피신한다.

이런 위협도 밥 말리를 멈추지 못했다. 유명한 1978년 4월 22일 〈원 러브 피스 콘서트〉를 위해 다시 자메이카에 귀국해서는 극한 대립 중인 양대 정당 대표를 무대에 올려 손을 맞잡게 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음악이 정치를 압도하는, 예술이 현실을 이끌어가는 순간이었다. 흑인과 약자의 지주로 자리 잡은 그를, 아프리카의 짐바브웨가 독립하고 기념식에 초청했을 때 밥 말리는 그 가난한 나라에 공연 비용 25만 달러를 자비로 부담해서 방문했다. 어김없이 누군가가 공연장에 최루탄을 터뜨렸으나, 끝까지 무대를 지킨 밥 말리와 더불어 관객 역시 눈물을 훔치고 기침하면서도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음악은 가장 위대한 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구하니까요. 음악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음악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 밥 말리는 축구를 하다 다친 발가락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암으로 1981년 서른여섯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 그의 국장에는 양대 정당 대표와 자메이카 사람 수만 명이 함께했다. 음악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밥 말리는 꿈을 꾸었고, 혁명을 했다. k

Bob Marley

까투리 만나러 안동으로

사랑스러운 엄마까투리와 함께 경북 안동의 대표 여행지를 모바일 스탬프 투어로 즐긴다.

01 첫 발짝 • 안동스탬프투어 앱 설치하기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안동 뚜벅이 여행에 재미를 더한다. 우선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를 열어 '안동스탬프투어'를 검색하고, 앱을 내려받아 실행한다. 초기 화면에는 안동하회마을부터 만휴정에 이르는 안동 관광 명소 스무 곳 목록이 뜬다. 동시에 '이육사문학관 0.39km' '월영교 0.22km'와 같이 현재 내 위치가 해당 장소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여행 동선을 짜는 데 요긴하다.

02 두 발짝 • • 여행지 방문하고 엄마까투리 만나기

이제 앱을 열고 길을 나선다. 목적지와 50미터 내로 가까워지면 목록 위에 스탬프 마크가 자동으로 생긴다. '눌러서 스탬프를 받으세요'라는 메시지를 터치하면 스탬프가 쾅 찍힌다. 스탬프를 5개 모을 때마다 엄마까투리 키 링 1개가 주어지므로, 스무 곳을 모두 방문해 스탬프 20개를 수집한 이용자는 엄마까투리 키 링 4개를 획득하는 셈이다. 경품 수령 장소는 안동하회마을·도산서원·봉정사·월영교의 각 안내소로, 안내원에게 '경품 수령 코드'를 제시해 엄마까투리를 손에 넣는다. 단, 최대 수령 개수는 4개다.

03 세 발짝 • • • 더 많이, 더 넓게 보기

안동하회마을과 월영교, 두 곳은 더 많은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안동스탬프투어 메인 화면의 관광 명소 목록에서 안동하회마을와 월영교 사진을 눌러 하단에 하회탈(안동하회마을)과 엄마까투리(월영교) 얼굴이 그려진 '미션' 아이콘을 확인한다. 이 아이콘을 터치해 안동하회마을의 충효당, 양진당, 삼신당 신목, 하회별신굿 탈놀이 전수관의 인생 사진 촬영 지점과 여행 코스를 확인하고, 월영교 주변 임청각·호반나들이길·안동시립민속박물관·유교랜드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안동에서 태어났어요, 엄마까투리

〈엄마까투리〉는 동화 작가 권정생의 〈엄마까투리〉를 원작으로 한 TV 애니메이션으로, 평화로운 숲에서 엄마 까투리와 꺼병이 4남매가 동물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이야기를 그린다. 안동시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 제작한 단편 애니메이션을 TV 시리즈로 확장하면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꺼병이 4남매 중 막내 꽁지는 안동시 홍보대사다.

자료 제공 안동시청, 안동축제관광재단 **문의** 054-840-3432

엄마까투리를 만나기 위한 추천 여행지 5

01 병산서원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아홉 곳 중 하나다. 서애 류성룡 선생을 배향한 서원으로 1868년 사액을 받았고, 서원 철폐령 이후에도 살아남았다. 올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서원 입구에 이르는 둘레길을 개장할 예정이다. 낙동강 물줄기와 화산 푸른 능선을 옆에 끼고 산책하기 좋겠다.

© 신규철

02 월영교

총길이 387미터, 너비 3.6미터의 위용을 자랑하는 목책 인도교다. 안동의 야경 명소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다리는 월영공원과 안동민속촌을 연결한다.

03 안동하회마을

안동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이자 한국 정신문화의 본고장. 낙동강 물길이 마을을 휘돌아 흐른다고 해서 '하회(河回)'라는 이름이 붙었다. 서애 류성룡 선생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은 풍산 류씨가 대대로 살아온 동성 부락이다. 최근에는 차량 관제 시스템 도입으로 전동차와 출입 차량을 관리하고 있어 걷기 여행을 즐기기 쾌적해졌다.

04 만휴정

길안면 묵계리의 임봉산 자락이 품은 누각이다. 조선 시대 문신 김계행이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었다고 전한다. 이 작은 건물이 알려지게 된 것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덕분이다. 입구에 놓인 외나무다리를 배경으로 명대사 "합시다, 러브"가 터져 나왔고, 그 이후로 이곳을 찾는 이가 부쩍 많아졌다.

05 전통 리조트 구름에

이름처럼 구름결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전통 리조트다. 안동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한 고택 일곱 채를 옮겨 한옥 리조트형 숙소로 만들었다. 북 카페도 함께 운영한다. 그림책과 팝업 북을 읽을 수 있는 '구름에 온(On)'은 아이 위주의 공간이고, '구름에 오프(Off)'는 아트 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책을 만나는 북 카페다.

올 한 해 호랑이처럼 힘차고 신명 나게!

함께 모여 놀면서 풍년을 기원하고 한 해 운세를 점친다. 정월은 예부터 수많은 세시풍속을 행한 때였다.

정월대보름 밤 9시 전후, 들판에 사람이 속속 모인다. 말뚝이, 양반, 영노(사자를 닮은 괴수) 등 탈 쓴 이가 등장해 여섯 마당을 선보이고 관객은 극에 몰입해 웃고 한숨 쉬고 눈물짓다 다시 폭소를 터뜨린다. 마지막에는 탈꾼과 관객이 한바탕 춤을 추며 어우러진다. 환한 달빛 아래 숨이 턱에 차오른 사람들 표정이 밝다. 비로소 진짜 한 해가 시작되는 느낌. 이토록 활기차게 올 한 해를 보내야겠다는 의지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여문다. 경남 사천 축동면 가산리에서 행한 탈놀이 가산오광대 이야기다. 이 시기에 동래야류, 수영야류, 북청사자놀음처럼 전국에 유사하고도 고유한 놀음이 행해졌다.

예부터 정월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1년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치렀다. 농사지을 땐 각자도생이 아닌 협동이 필수인 데다 대부분 사람이 태어난 동네에서 평생을 살던 시절이라 이렇듯 공동체 행사가 필수였다. 이날을 위해 마을 회의를 열어 집집이 추렴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풍물패가 집을 돌면서 복을 빌고, 제사 지낸 고기는 균등하게 나누어 먹었다. 길게는 한 달을 준비한 행사는 모두가 하나라는 의식과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봄, 여름, 가을보다 상대적으로 한가한 겨울이 정월이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쥐불놀이, 부럼 깨물기, 오곡밥과 귀밝이술 먹기 말고도 수많은 세시풍속이 있었다. 마을 사람이 합동해 놀거나, 이웃 마을과 줄다리기 같은 시합으로 승부를 가리기도 했다. 전북 지역에는 기세배라는 놀이가 유행했다. 각 마을은 농신기(農神旗)를 보유했는데, 주로 서열 낮은 마을이 높은 마을을 찾아가 깃발로 세배를 올리고 화합의 굿판을 벌였다. 서열이 비슷한 마을끼리는 누가 세배를 하느냐로 신경전을 펼쳤으나 결말은 서로 예의를 갖춘 인사와 연대의 한마당이었다.

한 해의 출발점이니만큼 풍년, 풍어 기원 의례와 더불어 운수를 가늠하는 일도 중요했다. 나무 그림자, 보리 뿌리, 등잔불, 얼음, 파래, 밥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만한 소재로 점을 쳤다. 나무그림자점은 대보름달이 떴을 때 사람 키의 나무를 마당에 세우고 그림자 길이로 풍흉을 예측했다. 대개 길면 풍년, 짧으면 흉년이라 여겼다. 보리뿌리점은 뿌리가 많으면 풍년, 적으면 흉년이다. 메점으로는 개인의 길흉을 살폈다. 메점은 제삿밥을 의미하는 '메'와 '점'을 합한 단어로, 쌀을 사발에 담아 솥에 찌고 나서 밥 가운데가 봉오리 형태를 띠면 길하고 움푹하면 흉하다고 판단했다. 식구불켜기는 정월 열나흘에 가족 수대로 등잔불을 켠 다음 불이 깨끗하게 잘 타는지를 보고 신수를 짐작하는 점이다.

나쁜 운이 나왔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혜로운 만회 장치 덕분이다. 깨끗한 종이에 밥을 싸서 물에 던져 흘려보내는 어부슴을 하거나, 버선을 거꾸로 끼운 막대기를 지붕에 꽂아서 버선이 바람에 날아가는 것으로 액운도 함께 사라진다고 믿었다. 대보름날, 개천에 징검다리 돌을 놓는 등 착한 행위를 해 액운을 면하는 적선이라는 풍속도 있었다. 운이 하늘에서 내리는지는 몰라도, 흉을 달래고 운명을 개척하는 가능성 역시 그 사람의 몫이라는 뜻이다.

누구에게나 내일은 미지의 영역이다. 날마다 마음을 새로이 해 오늘을 충실히 보내고 내일을 대비할 뿐이다. 하나 더 기억할 사실. 두레 구성원으로서 농사를 짓진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함께 살아간다. 내 삶과 타인의 삶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세상, 올해도 예의를 지키며 호랑이처럼 힘차고 신명 나게!

4.0점

자연맛남 랑떡 카스테라 떡샌드 치즈맛

김현정 카스텔라는 퍽퍽, 떡은 쫄깃하니 둘이 따로 놀겠네? 하는 예상을 뛰어넘는 경지를 보여 준다. 경지에 전념한 나머지 치즈 넣는 걸 잊으신 듯…. ★★★★ / **김규보** 일이 예상대로 흘러갈 때 우리는 희열을 느낀다. 나는 이 떡샌드가 맛있으리라고 예상했고, 예상대로 맛있었다. 희열이 입속에서 샘솟아 식도를 타고 내려오더니 심장에 닿아 뜨거운 피가 되어 온몸으로 흘렀다. ★★★★★ / **강은주** 쫄깃함과 부드러움의 비율이 51 대 49 정도로 씹는 맛이 재미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향이 꽤 좋지만, 치즈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 / **남혜림** 카스텔라 떡은 본 적 있어도 떡샌드는 처음이에요. 폭신한 카스텔라와 쫀득한 떡의 궁합이 괜찮았죠. 아쉬운 점은 색만 노랗고 맛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즈야, 너는 어디로 갔니? ★★★☆

3.4점

까까 찰떡롤케익 그린티

김현정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니까, 게다가 촬영한 혜림 기자가 맛있다고 영업하길래 안심하고 한 입 물었다가 팩! 소리가 나왔다. 옛말도, 혜림 씨 말도 못 믿겠네요. 흥! 쓴데 달고, 단데 쓴 기묘한 맛. ☆ / **김규보** 입안에서 녹는다는 표현이 진부한가?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 보겠다. 입에 들어가자마자 민들레 홀씨인 양 곱게 흩어지는 롤케이크가 부드러운 여운이 되어 사라진 순간, 나는 홀씨처럼 아리따운 여운이 다시 롤케이크로 피어나길 간절히 기도했다. ★★★★ / **강은주** 찰떡의 존재감이 두드러지지 않는데, 그게 오히려 이 제품의 미덕이다. 그 덕에 녹차 향과 크림의 풍미가 오롯하게 느껴진다. ★★★★ / **남혜림** 보기 좋은 찰떡롤케이크가 먹기도 좋습니다. 집에 소품으로 전시하고 싶어요ㅎㅎ '녹차 덕후'로서 인정합니다. ★★★★

말랑쫀득 떡의 변신

명절을 맞아 네 명의 에디터가 떡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먹어 봤다.

4.6점

제주다움 우도 땅콩 초코찰떡파이

김현정 땅콩 모양이 귀엽고 땅콩 조각도 큼직큼직 성의 있게 박아 놓아서 호감. 그런데 우도산 땅콩은 5퍼센트…. 100퍼센트 우도산을 기다립니다. 농민, 제조자 모두 힘내세요! ★★★★☆ / **김규보** '겉바속촉' 시대는 갔다. 겉은 달콤하고 속은 쫀득한 '겉달속쫀' 시대가 도래했다. 지난해 가족과 제주 우도를 여행하며 땅콩 아이스크림만 먹었다. 이 제품도 있는 줄 알았다면 우도에 정착했을 것이다. ★★★★★ / **강은주** '크런치' 버전의 '찰떡파이'랄까. 맛이든 질감이든 거슬리는 구석 하나 없이 너무나도 조화롭고, 그만큼 익숙한 맛이다. ★★★★ / **남혜림** 자, 그럼 초코찰떡파이 사상 식을 열겠습니다. 식감 부문 수상은 땅콩, 쫀득함 부문은 찰떡, 달달함은 초코, 마지막으로 단짠단짠 부문은 땅콩크림이 가져갑니다~ 계속 까서 먹고 싶다. 츄릅. ★★★★★

3.4점

CU 베리베리딸기 찰떡꼬치

김현정 딸기가 투입되면 뭐든 맛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 떡 속 크림 어쩔 거예요(맛있어요ㅠㅠ). 굳이 꼬치로 만들어야 했는가가 의문입니다. 나무가 아깝잖아요. 꼬치 아니어도 먹을 테니 빼 주세요. ★★★★☆ / **김규보** 딸기야, 넌 참 훌륭한 과일이야. 그리고 떡아, 넌 참 예쁜 곡식 가루 덩어리란다. 그런 너희가 카스텔라 가루랑 크림치즈랑 만났네? 너무 기쁘고 가슴 깊이 감사하단다. 맛있어 주어서 사랑해. ★★★★ / **강은주** 이름처럼 '베리베리딸기'한 맛. 처음엔 인공적인 향이 꽤 강하게 느껴지는가 싶은데, 이내 딸기 과육과 씨가 제대로 씹혀서 안도감(?)을 준다. ★★☆ / **남혜림** 시식한 제품 중 가자앙 찌이인득 했던 떡. 저는 찐득거리는 식감이 싫어요…. 흑흑. 어릴 때 먹던 딸기 맛 약이 떠올랐습니다. 질척이는 딸기 맛 약을 먹는 기분? ★☆

*5점 만점

래디시

방울방울 귀여운 뿌리채소다. 예쁜 겉모습만큼 맛도 좋다.

언뜻 방울토마토가 연상되는 탐스러운 빨간색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 손에 들어오는 앙증맞은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방울무'라고 부르는 래디시는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 주로 샐러드에 사용한다. 수분이 많아 아삭아삭하며 일반 무보다 아린 맛이 덜하다. 무와 배추 같은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항균 작용을 돕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이 풍부해 심장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 비타민 C와 마그네슘, 안토시아닌 성분을 함유해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

6,000만원대로 누리는 2억원가치의 독보적 혜택 프리미엄 멤버십 출시!!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도약하는 **대명리조트의 새이름**

2022년 소노호텔앤리조트 신규회원모집

새 브랜드로 글로벌 체인 사업에 나선 **소노호텔앤리조트(구. 대명리조트)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이그제큐티브클럽(Executive Club)' 멤버십을 출시**했다. 이그제큐티브 클럽은 럭셔리 호텔 서비스와 실속있는 리조트 서비스를 결합한 프리미엄 회원권으로 식음, 골프, 승마, 요트 혜택 등을 담아 고객에게 스페셜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기존의 회원권과는 완전히 차별화하여 신규 특별 혜택뿐만 아니라 입회 기간 내내 상시 혜택을 제공받는 것이 특징이다. 정회원은 연간 2인 10회 조식 뷔페와 노블리안 라운지 음료 30회가 무료이며, 호텔 내 휘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발렛 파킹 서비스 등이 상시 제공된다. 또한 정규 18홀의 소노펠리체 CC(비발디파크 WEST, EAST, 델피노), 오션월드, 스키, 승마클럽, 요트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이용 가능하다.

소노호텔앤리조트는 국내 최대 규모인 전국 16곳 체인망과 11,000여개가 넘는 객실을 보유하여 업계 1위를 자부한다. 폭넓은 여행지 선정은 물론 레저&스포츠 시설을 신규 회원권 하나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개인 및 법인 명의로 분양이 가능하며, 회원제 상품의 경우 20년 만기시 전액을 반환 해준다.

소노호텔앤리조트 측은 "타 업체와 다른 전문 교육을 이수 레저컨설턴트가 상담부터 계약 및 예약까지 1:1 회원 전담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의 가치는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 사업'으로 지난 **10월 22일 소노펠리체 델피노가 그랜드 오픈**했으며, 브레이커힐스 남해 등이 개발 중이다. 특히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회원권 시장에 없는 **독보적인 혜택을 담은 멤버십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카탈로그를 배송해드립니다.
KTX 열차 내에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세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H.P 010-4140-6540**

문의전화 (주말 및 24시간 상담가능) **02)2222.5917**

editor. 남혜림 photographer. 신규철

전통과 만난 주안상

서울 홍대 일대에서 한 상 거하게 즐길 수 있는 전통 주점을 찾았다.

1 윤달

편안한 마음으로 찾는 아담한 주점

소고기 사태수육 전골 2만 8000원
고추장 돼지꼬리 구이 2만 2000원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62-3
010-2548-6725

옛사람들은 윤달엔 하늘과 땅의 신이 세상을 감시하는 일을 쉬기에 실수를 해도 신이 모른 척해 준다고 믿었다.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임종옥 대표가 손님이 편하게 전통주를 즐기는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게를 '윤달'이라 이름 지었다. 직접 탁주를 빚어서 마실 정도로 임 대표는 전통주에 진심이다. 메뉴 또한 전국 곳곳의 특색 있는 전통주를 마셔 보고 구상했다. 소고기 사태수육 전골은 '왜 쇠고기 수육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개발한 메뉴다. 각종 채소와 쇠고기를 삶은 물과 멸치·디포리 우린 물을 배합해 4시간 끓인다. 삶은 고기를 먹기 좋게 썰어 배추·부추·미나리 등과 함께 그릇에 담은 후 육수를 붓고 홍고추와 쑥갓을 얹어 완성한 요리는 임 대표가 잘 빚은 술의 표본으로 추천한 김포예주와 환상의 짝꿍이다. 고추장 돼지꼬리 구이 역시 손수 연구한 메뉴다. 족발의 탱글탱글함과 닭발의 쫄깃함을 두루 갖춘 돼지 꼬리가 주재료다. 돼지 꼬리를 족발처럼 2시간 삶은 뒤 뼈마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직화 그릴에 굽는다. 고추장 소스를 발라 칼집을 내면 윤달만의 독특한 안주가 탄생한다. 메뉴와 전통주의 궁합이 임 대표가 들인 정성만큼 훌륭하다.

INFORMATION

윤달을 방문하는 모두에게 웰컴주를 올린다. 서너 가지 주류 중 주문한 안주와 어울리는 술을 제공한다.

깔끔한 한식 다이닝 바

모던하고 깔끔한 내부가 마치 전시장 같다. 손님에게 서비스할 때 술과 음식을 큐레이팅하는 느낌을 주고싶다는 전통주 소믈리에 이호진 대표와 11년 요리 경력의 김병수 셰프가 한식 다이닝 바를 차렸다. 가게 이름은 한국 술을 파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 술의 옛말인 수을을 따서 지었다. 뻔한 요리는 피하되 자주 먹는 재료로 만든 캐주얼한 요리로 한 상을 채운다. 삼계탕을 재해석한 삼계닭은 삼계탕에 들어가는 각종 한방 재료로 육수를 낸다. 토종닭 다리 살로 치킨 룰라드를 만들어 오븐에 구워 닭죽 위에 얹는다. 적당한 당도에 은은한 신맛이 감도는 약주 해월을 더하면 삼계닭과 밸런스가 좋다. '돈마호크' 부위를 사용해 조리한 돼지갈비의 경우 마늘종이 들어간 퓌레와 갈치속젓 크러스트를 곁들인다. 삼겹살을 마늘종 장아찌와 먹거나 갈치속젓에 고기를 찍어 먹는 원리와 비슷하다. 연엽주와 잘 어울리는 음식이다. 꽈리고추와 계피, 땅콩이 쇠고기 갈빗살과 만난 갈비살 너비아니도 인기가 높다. 여기에 세종에 위치한 양조장 삼원도가에서 만든 호랑호랑19%를 페어링한다. 술의 달달한 향과 감칠맛이 너비아니의 계피 향과 어우러져 여운을 남긴다. 음식을 담는 도자기까지 직접 의뢰할 만큼 세심한 두 대표에게서 전통주와 한식, 손님을 생각하는 진심이 전해진다.

INFORMATION

수을관의 두 대표는 사람들이 전통주 하면 탁주만 떠올리는 것이 안타까워 다양한 약주도 준비해 소개한다.

2 수을관

삼계닭 2만 3000원 돼지갈비 2만 7000원
갈비살 너비아니 1만 7000원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38길 19
02-6949-0081

3 얼쑤

- 한우 육회 2만 5000원
  동해 오징어 김치전 2만 4000원
  남해 새꼬막 무침 2만 5000원
-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136-3
- 070-4136-8897

전국 다양한 탁주를 보유한 맛집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정직한 조리법이 모두의 미각을 사로잡는다는 신념으로 음식을 만드는 조성주 셰프. 지역 식재료를 이용한 전통 한식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해 재료를 구입한다. 한우 육회는 도축한 지 2~3일 된 홍두깨살을 받아 숙성해 사용한다. 신선하고 차진 육질이 느껴지는 육회에 계절마다 다른 수제 장아찌, 김을 상에 올린다. 간이 잘 밴 육회와 수제 장아찌를 김에 싸 먹고 경복궁 쌀로 빚은 나루 막걸리를 곁들이면 '크~' 소리가 절로 난다. 새꼬막 무침은 경남 남해에서 꼬막을 받아 껍데기를 깐 뒤 자숙한다. 간장

과 직접 담근 매실청, 참기름, 다진 마늘 등으로 맛을 입히고 양념 소스와 밥을 섞어 꼬막무침과 함께 낸다.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맛을 낸 동해 오징어 김치전은 김치, 쪽파, 양파, 오징어만 넣어 반죽한다. 다양한 막걸리를 마시고 싶다면 네 가지 막걸리를 각각 250밀리리터 용량으로 제공하는 막걸리 샘플러를 주문하자. 조 셰프가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서울 신사동 '백곰막걸리'에서도 전국 각지의 탁주와 제철 재료로 만든 안주를 맛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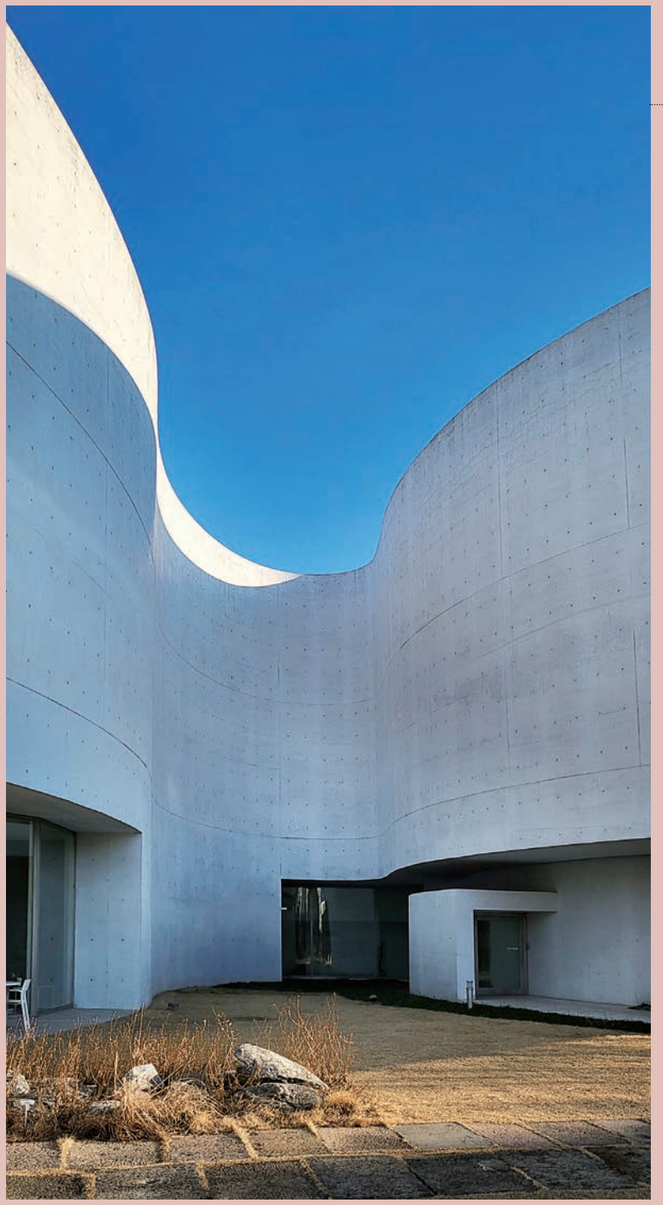
INFORMATION

전통주의 매력에 빠져 그것과 어울리는 요리를 연구해 온 조성주 셰프가 다양한 술을 맛보고 추천한다.

+ Tip

아기자기한 패키지, 향기롭고 독특한 맛을 지닌 전통주에 흥미가 생긴 사람은 서울 홍대 일대를 방문하자. 소소하게 한잔하고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연트럴파크'라 부르는 경의선 숲길 공원과 경의선 책거리를 걷는 여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수도권전철 홍대입구역에서 15분쯤 걸으면 상수동 카페 거리가 나와 달달한 음료를 마시며 술을 깨기 좋다.

editor. 남혜림



마법처럼 보낸 하루

경기도 파주에서 해리 포터와 잎싹을 만나고, 회동길을 담은 스케치에 색도 입혔다.

책을 펼칠 때 코끝으로 스며드는 종이 냄새가 그리워 출판 도시 파주로 떠났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출발해 파주에 도착하자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고 있다. 건물들 사이에 떨어진 햇살을 주워 담듯 걸으며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운다. "지금부터 나는 마법사다"라고. 소설과 영화로 세계적 인기를 끈 〈해리 포터〉 팝업 스토어 '하우스 오브 미나리마'의 붉은 문을 여는 순간, 신비로운 음악과 함께 마법의 세계가 펼쳐진다. 안쪽에선 호그와트 학교 문양과 각 기숙사의 상징을 수놓은 휘장이 근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벽지도 블랙 가문 가계도, 도둑 지도 같은 것으로 꾸며 실감 난다. 편지지, 엽서, 렌티큘러 카드 등 영화 속 디자인을 똑 닮은 물건들을 구경한 후 스토어를 나선다. 규모는 작아도 '해리 포터 덕후'로서 여기는 인정. 영화와 전시, 공연을 한곳에서 즐기는 명필름아트센터가 두 번째 목적지다. 1층의 북 카페에서 흘러나온 커피 향을 맡으며 3층 아트랩으로 올라간다. 명필름의 영화를 기억하는 '명필름 컬렉션' 공간으로, 〈접속〉 〈건축학개론〉 등의 영화에 쓰인 오브제와 의상을 전시해 흥미롭다. 4층은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 컬렉션으로 꾸몄다. 빔프로젝터로 영화 후반부를 재생해 주는데, 잎싹의 마지막 모습과 자연의 섭리를 보여 주는 장면에 가슴이 먹먹해져 한참 머물렀다.

전시 공간, 카페, 북 앤드 아트 숍이 모인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아름다운 곡선의 외관부터 눈을 즐겁게 한다. 유려한 곡선과 맞닿은 하늘을 만질 수 없어 아쉬운 마음에 바쁘게 셔터를 눌렀다. 내부에서는 흰색 선과 면으로 단장한 공간이 마음을 차분하게 한다.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빛 조각이 전시만큼이나 눈길을 끈다. 전시를 감상하고 나서는 드로잉 공방 '스케치북플러스'를 찾았다. 오랜만에 붓을 잡아 긴장했지만 "수채화는 여백을 남기고 어둠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작가님 설명을 듣고 용기를 낸다. 오늘 여정을 돌아보면서 눈에 담았던 색들을 종이에 채워 나가다 보니 어느새 나만의 작품이 완성됐다. 파주에서 보낸 하루를 액자에 담아 벽에 걸어 놓았다. 수채화로 남은 하루 여행이 뿌듯하다.

1

THE GRAPHIC ART OF Harry Potter

하우스 오브 미나리마

영화 〈해리 포터〉와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의 그래픽 디자이너 미라포라 미나와 에두아르도 리마의 이름을 따 지은 팝업 스토어다. 영국 런던, 일본 오사카, 미국 뉴욕에 이어 지난해 10월 파주에도 문을 열어 올해 8월까지 운영한다. 본점인 런던의 디자인 요소를 그대로 재현한 붉은 톤 인테리어, 편지가 쏟아지는 벽난로와 그리핀도르 기숙사를 지키는 액자 속 부인 등이 정교하다. 1층에선 하우스 오브 미나리마의 굿즈를, 2층에서는 〈해리 포터〉 도서와 팝업 북 등을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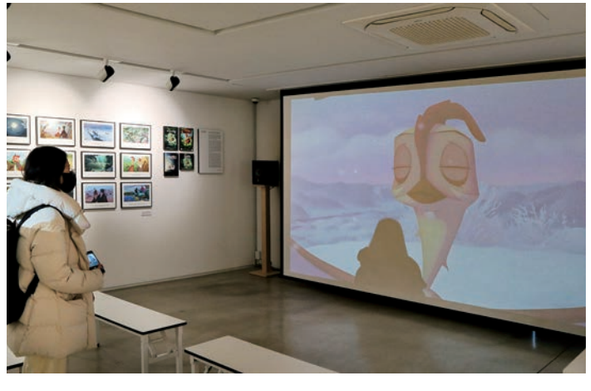
파주시 회동길 503-1 031-955-9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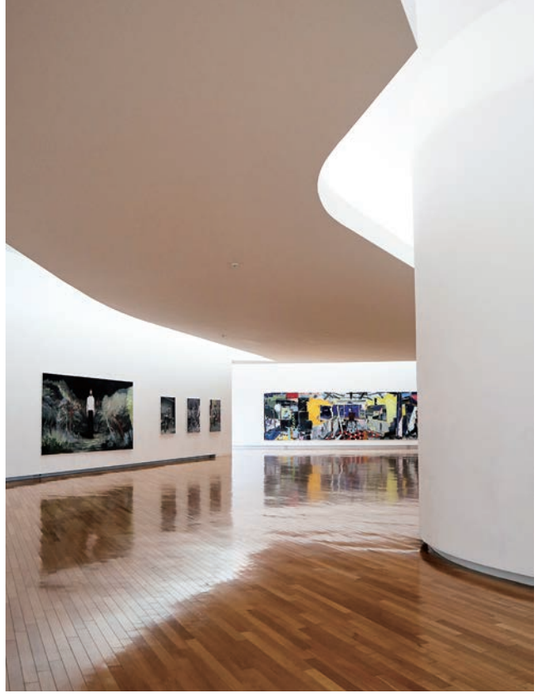
2

명필름아트센터

〈접속〉 〈건축학개론〉 등으로 유명한 영화사 명필름이 세운 복합 문화 공간이다. 지하 1층 영화관에서는 실감 나는 사운드 기술 돌비 애트모스로 믹싱한 최신 개봉작을 감상한다. 주로 예술영화를 선택해 주말에 상영한다. 3층은 명필름에서 제작한 영화의 각본집과 배우가 실제 입었던 의상을 전시하고, 4층에서는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과 관련한 전시물을 선보이는데 제작 과정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느라 시간이 '순삭'되었다. 계단마다 적힌 명대사의 향연도 놓치지 말 것.

파주시 회동길 530-20 031-930-6600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3

'건축의 시인'이라 불리는 모더니즘 건축가 알바루 시자가 설계를 맡았다. 다양한 곡면으로 만든 하얀 전시 공간이 가급적 인조광을 배제하고 자연광을 끌어들여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곳곳에서 빛의 향연이 펼쳐지는 건축물은 그 자체로 전시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마주 보는 개' '서커스 – 먼 곳을 바라보다' 등 뮤지엄에 숨은 다섯 점의 조각 작품을 찾으며 전시를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2월에는 심우현 작가의 회화를 모은 개인전이 열린다.

파주시 문발로 253 031-955-4100

4

스케치북플러스

스케치 밑그림을 골라 수채 물감으로 색칠해 보는 이색 체험 공방으로 종이컵 어버 스케치, 어버 스케치 컬러링 체험을 준비했다. 도구와 재료는 모두 공방에서 마련한다. 체험자에게 필요한 것은 차분한 마음.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신영·정숙희 작가의 친절한 진행 덕에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다. 파주의 풍경을 휴대전화 속 사진으로 두는 대신 수채화로 남겨 보는 것도 추억을 색다르게 기록하는 방법이다.

파주시 회동길 159 1층 B호 02-338-1405

작은 생물과 정을 나누는 '생물인' 유튜버 정브르

지난해 11월 〈정브르의 곤충일기〉를 펴낸 유튜버 정브르와 이야기를 나눴다.

© 샌드박스네트워크

2021년 3월 〈정브르의 동물일기〉에 이어 11월에 〈정브르의 곤충일기〉를 출간하셨어요. 포유류, 파충류, 곤충 등 다양한 생물에 대한 도서를 낸 계기가 무엇인가요? 〈정브르의 동물일기〉는 동물원 일일 사육사가 되어 다양한 동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현장감을 살리는 내용이 주였고, 〈정브르의 곤충일기〉에는 제가 수년간 곤충을 사육하고 보살피다가 알게 된 정보를 정리했어요. '이런 곤충도 있어요'라며 알리고 싶은 생물을 담아서 책을 썼죠. 생물에 관심이 많아도 그들의 활동 패턴이나 사람과 교감할 때 모습 같은 정보는 직접 겪지 않으면 자세히 알기 어렵잖아요. 생생한 현장을 조금이라도 공유하고 싶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곤충채집을 좋아해 이제는 '생물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으셨죠. 가장 기억에 남는 곤충이나 생물 채집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책을 읽다가 처음으로 장수풍뎅이의 존재를 알았죠. 그날 저녁 형과 노란 불빛이 나오는 커다란 손전등을 들고 바로 집을 나섰어요. 인근 공원에 가서 장수풍뎅이가 좋아하는 참나무, 상수리나무를 떠올리며 열심히 수액을 찾아다녔지요. 얼마 되지 않아 한 나무에서 수액을 발견했어요. 어두워지긴 했지만 초저녁이어서 야행성인 풍뎅이나 사슴벌레가 잘 보이지 않았죠.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한 시간쯤 지나서 다시 그 나무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넓적사슴벌레 암컷 다섯 마리를 한 번에 발견했어요. 형과 정말 기뻐한 기억이 나네요.

지난해 6월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하셨죠. 〈정브르〉 채널이 사랑받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에 사는 사람 대부분은 작은 곤충을 만날 기회가 드물어요. 바쁜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면 작은 것들을 놓치기 일쑤죠. 간단한 영상으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는데요, 그런 제 채널에 오셔서 생물과 교감하는 영상을 보며 잠시 쉬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생물을 보여 주는 것, 고단한 일상을 잠시 잊게 만드는 것, 곤충채집이나 생물 사육 영상을 보며 잠시나마 곤충을 사랑하던 어릴 적 추억을 되새겨보게 하는 것 때문에 사랑을 주시는 듯해요.

생물의 특징이나 사육 방식에 대한 콘텐츠 말고도 생물을 구조하러 직접 현장으로 가는 영상도 올리시죠. 인공 구조물로 야생동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마음이 컸어요. 조회수 460만 회를 기록해 화제가 된 맹꽁이를 구조할 때는 그 근방을 오가던 구독자의 제보를 받아 출동했지요. 직접 가 보니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수만 마리가 밟히고 수로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차 구조 작업을 하다 방대한 작업량에 구독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많은 분이 와서 도와주셨어요. 사체가 하수구 물과 섞이는 바람에 구조할 땐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맹꽁이를 담은 통, 구조할 때 쓴 각종 도구, 살아 있는 맹꽁이의 몸에도 냄새가 밸 정도였죠. 그래도 구독자님들 도움으로 많은 개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 후에 느낀 점이 많았겠어요.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어린 구독자들과 공사·개발 현장에서 근무하는 구독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이후에도 사람 때문에 생물이 고통받는 일이 줄었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개발 시 근처에 서식하는 보호 대상 생물에 대한 이해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모든 생명이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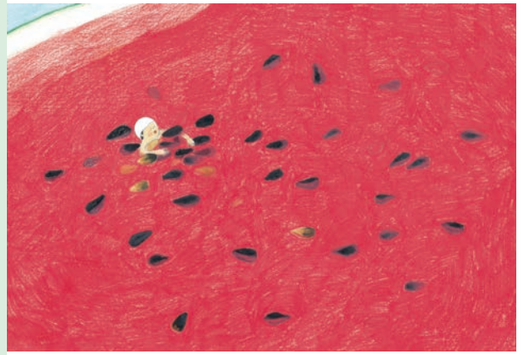
생물 유튜버로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지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생물을 생생하게 담아 보여드리고 싶어요. 목표는 아마존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겠지만 언젠간 꼭 가려 합니다. 악어, 아나콘다, 맹금류 등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아마존의 생물과 생태계를 담고 싶어요.

생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겉모습이 징그럽거나 무섭게 느껴져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겉모습과 달리 사람에게 이로운 생물이 많아 알아 가는 재미가 큽니다. 앙증맞고 귀여운 데다 교감까지 가능한 생물도 있어요. 다양한 곤충, 파충류, 양서류, 조류, 어류 등 생물을 하나하나 순수한 마음으로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신기하고 귀여운 생물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답니다. ⓚ

〈정브르의 곤충일기〉

곤충의 신비로움을 책으로 전한다. 생물 크리에이터 정브르가 개미,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타란툴라 등을 소개한다. 곤충 상식, 탐구 코너로 곤충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현장감 있는 사진을 보며 곤충의 세계에 빠져든다.
정브르 지음 **서울문화사** 펴냄

〈내 맘 쏙: 모두의 그림책전〉



서울 | **~2022.03.27.**

모두가 웃음꽃 피울 즐거운 그림책 전시가 기다린다.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김지영, 안녕달, 서현 등 한국 창작 그림책 작가 7명의 그림책 열여덟 권과 원화, 디지털 원작 200여 점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에브리웨어, 스튜디오 1750, 최성임 등 미디어·설치 작가와 협업한 인터랙티브 아트도 마련했다. 털 주머니를 설치 작품에 던지며 체험하는 '더 월(The Wall)' 등 관객 참여형 전시 덕분에 전시장 분위기가 활기차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어린이와 어른 할 것 없이 힐링하는 시간이다.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문의** 02-580-1300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HOW •

〈환상동화〉

서울 | **~2022.02.12.**

마술, 음악, 마임 등 퍼포먼스가 환상적인 연극이다. 사랑 광대, 전쟁 광대, 예술 광대가 서로 자기 말을 하겠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사랑, 전쟁, 예술이 모두 포함된 극을 하기로 결정한다. 광대들의 이야기는 전쟁의 영향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피아노 치는 남자 한스와 시력을 잃어버린 춤추는 여인 마리를 중심으로 흘러간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다.

장소 서울 국립극장 **문의** 1577-3363

• SHOW •

2022 정월대보름 〈달달한 콘서트〉

군포 | **2022.02.12. 19:00**

정월대보름을 맞아 세종국악관현악단과 음악 집단 '이드', 비나리 이광수, 가야금 문양숙, 피리 최경만 등이 뭉쳐 국악 콘서트를 연다. 1부에서는 사물놀이와 비나리를 전하고 국악 관현악과 가야금으로 '한오백년'을 연주한다. 2부는 '달항아리' '싸름' '자진아리'처럼 국악 관현악으로 편곡한 음악 등 다양한 국악 공연을 펼친다. 둥실 떠오른 달과 함께하는 국악 콘서트가 흥을 돋운다.

장소 경기도 군포문화예술회관 **문의** 031-390-3500

WHAT'S UP

• SHOW •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짐머만〉

대전 | 2022.02.17. 19:30

'살아 있는 전설'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짐머만이 대전을 찾는다. 열여덟에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전 세계 최고 피아니스트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그가 바흐의 파르티타 1번과 2번, 쇼팽의 피아노소나타 3번 등을 들려준다. 공연은 부산, 대구, 서울로 이어진다.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에 귀가 즐겁다.

장소 대전 예술의전당
문의 1544-1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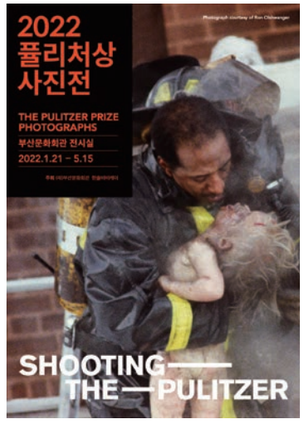
• SHOW •

〈곤 투모로우〉

서울 | ~2022.02.27.

1884년 갑신정변을 배경으로 한 조선 누아르가 관객을 사로잡는다. 개혁 운동을 일으켰으나 3일 만에 실패하고 암살당한 김옥균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한다. 김옥균, 암살자 한정훈, 고종 임금이 주인공으로, 이들을 둘러싼 사건이 긴장감 넘치게 전개된다. 격변기를 표현한 무대가 영화를 보는 듯하다.

장소 서울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
문의 1577-3363



• EXHIBIT •

〈2022 퓰리처상 사진전〉

부산 | ~2022.05.15.

한 장의 사진에 역사가 담겼다. 1942년부터 2021년까지 퓰리처상 사진 부문 수상 작품 120여 점을 만난다. 2019년 한국 사진기자 최초로 퓰리처상 사진 부문을 수상한 로이터통신 김경훈 기자의 작품을 볼 수 있으며, 사진가들의 인터뷰 영상과 1988년 에미상을 받은 퓰리처 수상 작가에 대한 다큐멘터리 〈충격의 순간(Moment of Impact)〉도 상영한다. 사진 속에서 기록하는 이들의 열정을 느낀다.

장소 부산문화회관
문의 02-801-7955

• SHOW •

〈스노우데이〉

서울 | ~2022.02.20.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공연장을 찾아온다. 무대 위로 눈을 뿌리고, 관객과 눈싸움도 하는 참여형 어린이 뮤지컬이다. 폭설로 학교 수업이 취소되지만 미처 연락받지 못한 대니와 트래퍼 선생님이 만나 단둘이 수업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구성이 관객을 뮤지컬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장소 서울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
문의 1566-5588

• FESTIVAL •

파주 눈내리는 초리골 축제

파주 | ~2022.02.20.

지나가는 겨울을 아쉬워 말고 제대로 즐기자. '초리골 협동조합' 마을 주민 공동체가 기획부터 운영까지 진행하는 겨울 축제다. 눈썰매, 스노모빌래프팅, 봅슬레이 등 즐길 거리가 쏟아진다. 애견 눈놀이장을 새롭게 열어 반려동물과 마음껏 뛰어놀 공간도 준비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장소 경기도 파주 초리골 눈썰매장
문의 031-958-8880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efez.go.kr

길

북방경제 중심지!
글로벌 비즈니스의
을 만들다!

미세먼지가 적은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
편리한 생활환경, 간편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유롭고 폭넓은 기업활동을 보장합니다.

동해 북평
국제복합 산업지구
세계적인 인력·기술·자본이 융합된 **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동해시 구호동 일원

동해 망상
국제복합 관광도시
연1억명 이상이 방문하는 환동해 최고의 **해양 명품관광지**
동해시 망상동 일원

강릉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첨단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
강릉시 옥계면 일원

efez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East coast Free Economic Zone

25769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231(천곡동)
efezadmin@korea.kr

북평 장기임대단지 2차 공고 중(8필지 4190㎡)
기간 '21.12.27.~'22.1.24. 홈페이지(공고) www.factoryon.go.kr
문의 033.539.7671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editor. 김규보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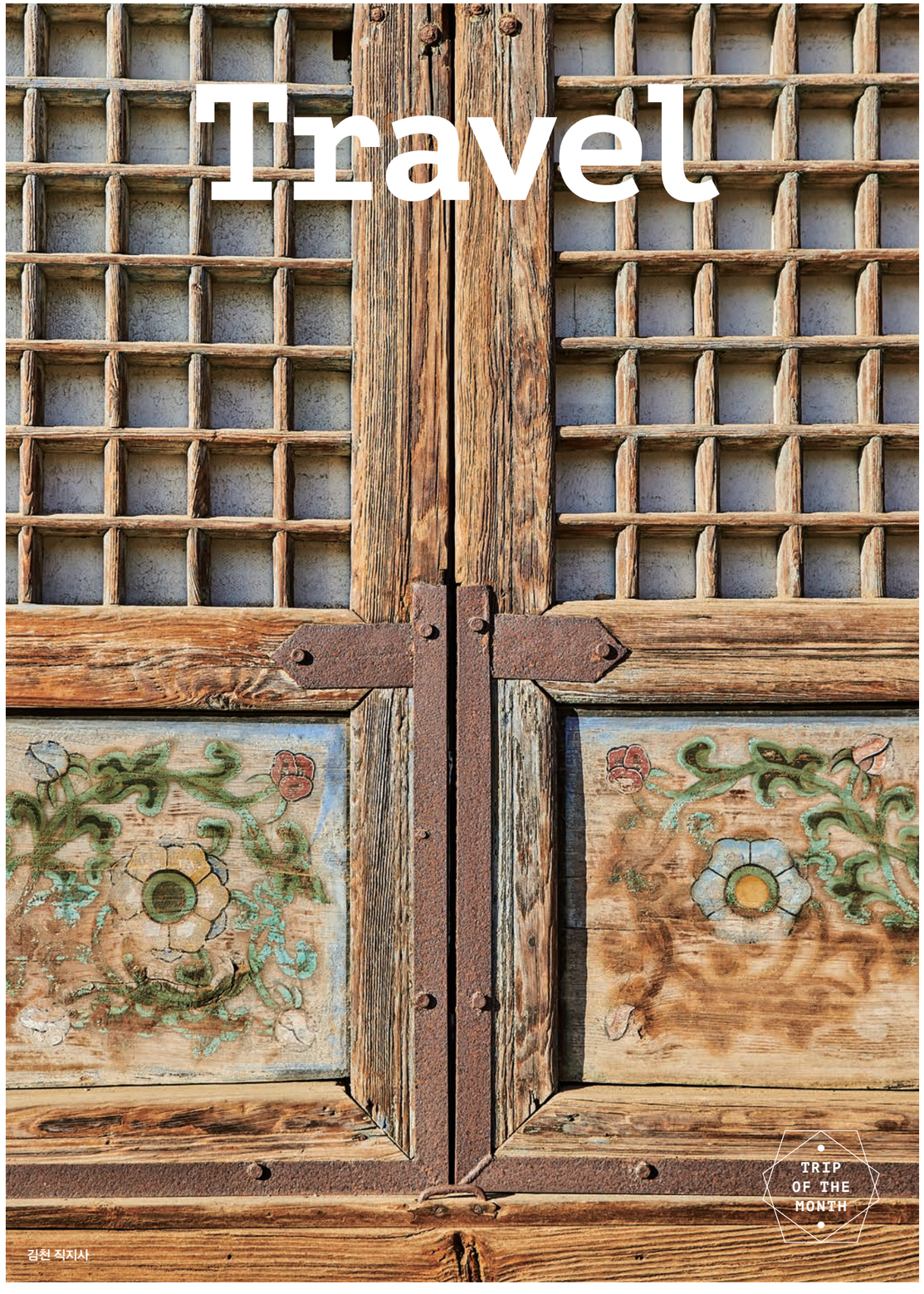
'Blooming-8', 90.9×65.1cm, Acrylic on canvas

‘Blooming-8’

우인영

서울 화동 골목에 꽃이 피었다. 조선 시대 화초를 관리하는 관청 장원서가 있어 꽃이 열리는 동네, 화개동(花開洞)으로 불린 마을 아늑한 갤러리에서 우인영 작가가 그린 꽃이 봄을 내보인다. 마음이 수선스러워질 때마다 붓을 잡았다는 작가는 코로나19로 지친 세상을 위한 위로를 그림에 담았다. 차분차분 색을 입힌 송이와 줄기에서 봄이 다가왔음을 예감한다. 굳이 의미를 궁리하지 않아도 꽃은 오롯이 꽃이 되어 주듯, 삶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대도 나아갈 것이다. 지금 걷는 길이 언제나 그러했으니. 비록 캔버스 안이지만 머지않은 날 화동에, 세상에 나와 잎을 열 모든 꽃이 아름답다. 정독도서관 옆 자그마한 골목에 위치한 갤러리단정이 개관을 기념해 선보이는 전시가 동네 이름 화동처럼 꽃 같다. ⓚ

* 서울 갤러리단정 **〈꽃 과일과 사이좋게〉전**, 2월 4일부터 27일까지. **문의** 02-6104-0058



ⓒ 박정아

editor. 강은주 photographer. 신규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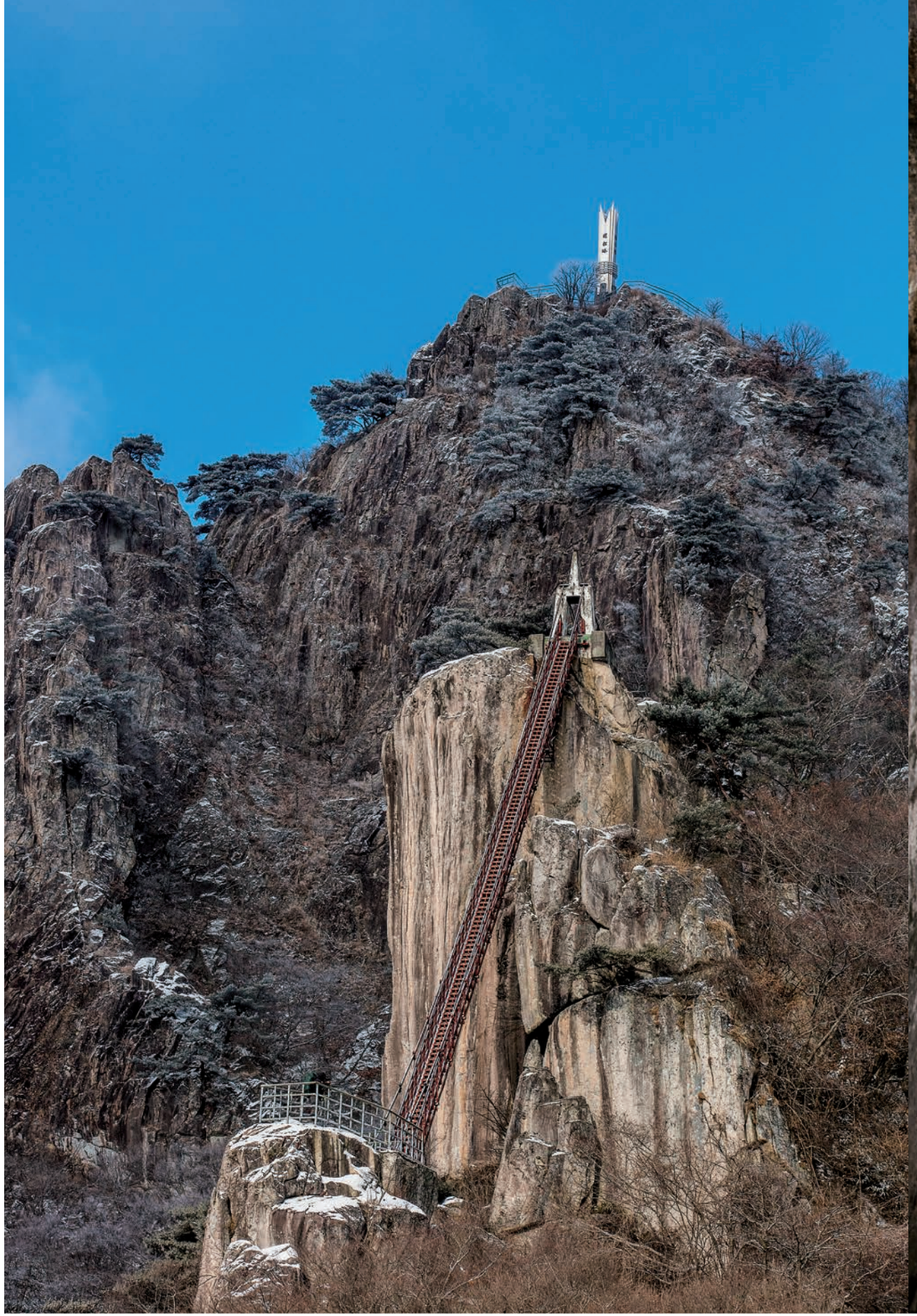
www.korail.com 한국철도공사

완연한 계절의 맛, 완주

간밤 내린 눈 위에
첫 발자국을 내며 산길을
오르고, 얼음 풀리는 강변에서
백로와 함께 노닐었다.
이 겨울, 전북 완주에서 계절의
지극한 즐거움을 누렸다.

오르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
활공의 짜릿한 감각에
손에 닿을 듯 가까워진다.
우람한 돌병풍이



아찔하다. 방금 전까지 발 딛고 선 땅이 순식간에 멀어지더니, 우람한 돌병풍이 손에 닿을 듯 가까워진다. 활공의 짜릿한 감각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 오전 9시 정각, 대둔산 첫 상행 케이블카에 올랐다. 지난밤 내려앉은 함박눈은 아직 녹지 않은 채다. "여러분이 타고 계신 케이블카의 운행 거리는 927미터로, 23도의 경사를 유지하며 6분가량 짧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자의 흥을 돋우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온다. "해발 878미터의 대둔산은 소나무와 기암괴석의 자태가 빼어나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케이블카 뒤편으로 푸른 산마루가 밀려든다. 바다, 아니 어쩌면 하늘을 닮았는지 모를 첩첩산중의 비경은 이제 발끝 저만치로 까마득해진다. 안내 방송의 율동감 넘치는 목소리는 창밖 왼쪽 11시 방향의 동심바위, 그 너머 9시 방향의 형제봉, 동학농민운동 최후 항쟁지까지 가리키고서야 천천히 잦아든다. 어느덧 우리의 빨간 케이블카는 산 중턱에 닿아 가고 있었다.

● 케이블카에 오르면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일 것. 대둔산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

I am simply overwhelmed. The majestic rocks are getting closer, seemingly within reach. Adrenaline begins to rush through my spine. I have boarded the 9 a.m. cable car, the first of the day, bound for Daedunsan Mountain. A voice comes through the speakers. "This ride covers a distance of 927 meters with a climbing angle of 23 degrees, and lasts for about six minutes. Daedunsan Mountain, which rises 878 meters above sea level, is also known as the Honam region's Geumgangsan Mountain because of its pine trees and oddly-shaped rocks. A blue-green horizon of mountain ridges greets me from behind the cable car. The mountains—as vast as the ocean, or perhaps even the sky—have sunk from eye-level to way below my feet. The voice subsides after introducing Dongsimbawi Rock in the 11 o'clock direction, Hyeongjebong Peak in the 9 o'clock direction, and the last battleground of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완주 여행 1번지, 대둔산

정류장에 도착한 등산객을 가장 먼저 반기는 건 전망대 찻집에서 흘러나오는 쌍화차 향내다. 감초와 계피를 푹 달인, 겨울 음료의 달큰한 냄새. 콧속 깊이 빨아들이는 것만으로 이미 명치가 후끈해지는 기분이다. 이 찻집은 어디에도 없는 산수를 거느린 망루다. 창 너머로 펼쳐진 산등성이를 마주하는 동안, 바위들이 커다랗게 솟았다고 해서 '한듬산'이라고도 불렀다는 대둔산의 옛이야기를 곱씹어 보았다.

이쯤에서 산을 오른, 아니 완주를 찾은 이유를 고백한다. 산 좋고 물 맑은 완주에서라면 겨울바람에 몸을 내맡겨도 즐거우리라는 확신이 있었고, 새해 새 마음과 호연지기를 논하기에 대둔산만 한 명당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무엇보다 지난가을 새롭게 단장했다는 한국 최초의 출렁다리, 완주 대둔산 구름다리를 두 다리로 걸어 보고 싶었다.

1975년 3월, 이곳에 놓인 첫 출렁다리의 이름은

Daedunsan Mountain, First Stop in Wanju

The upper cable car station is filled with the rich aroma of a classic winter tea called ssanghwacha (medicinal herb tea). This tea is a decoction of dong quai root, cinnamon, and several medicinal herbs. This tea house near the station offers an excellent view of the surrounding landscape. Daedunsan Mountain was formerly known as Handeumsan, in reference to how the rocks are shooting up like sprouts.

What excited me most about this trip to Wanju was the renowned Cloud Bridge. Having heard the rave reviews, I couldn't wait to walk on it with my own two feet. As Korea's first suspension bridge, it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삼례역까지 3시간 20여 분이 걸린다. KTX를 이용할 경우 익산역, 전주역이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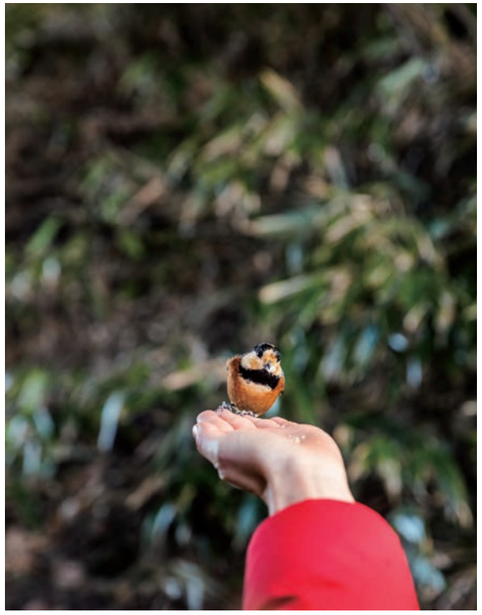
‘금강구름다리’였다. 다리가 놓인 계곡의 이름이 금강이라서다. 다리는 그로부터 10년 뒤에 재건되었는데, 다시 36년을 버티고 나서야 지금 모습으로 ‘세대교체’가 되었다. 이 출렁다리에서 10분을 오르면 삼선계단, 여기서 다시 15분을 오르면 정상 마천대에 닿는다. 예상 소요 시간 왕복 90분. 단출하되 만만한 코스는 아니다. 우선 삼선계단은 총 127개 계단, 51도의 기울기를 자랑한다. 등산로 대부분을 이루는 돌계단은 또 어떤가. 울퉁불퉁한 표면에 발을 내딛다 보면 차라리 네발로 오르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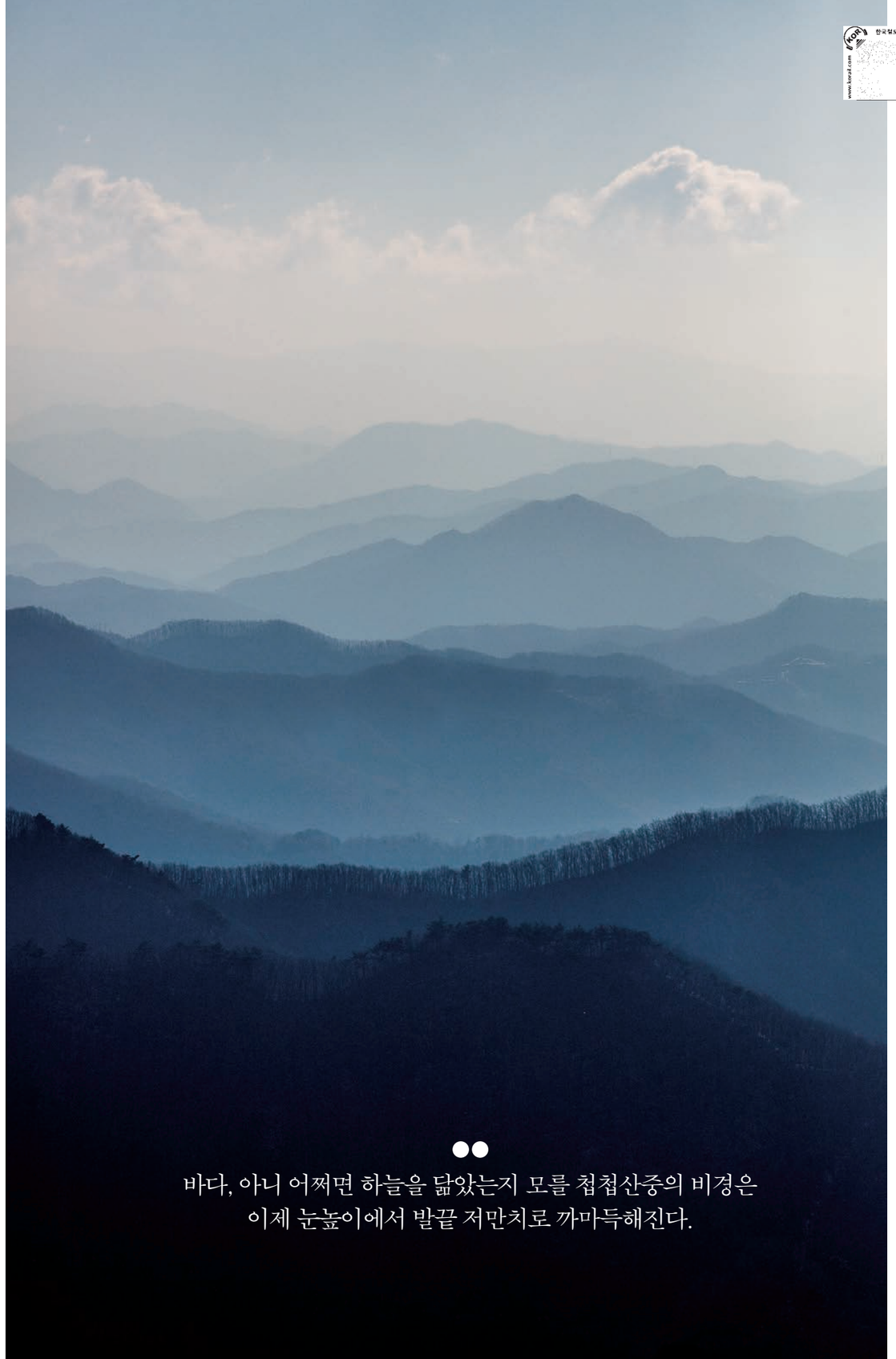
“발 조심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천천히, 천천히.” 이번 산행의 벗, 서영아 문화관광해설사가 초조한 걸음을 다독인다. “정상을 찍으려고 산에 가는 게 아니니까요. 산을 오를 땐 마음에 드는 풍경 앞에서 오래 머물며 바라보기도 해야죠.” 마침 금강계곡과 다리, 삼선계단과 마천대가 한눈에 바라보였다. 그러니까 무작정 오를 일만은 아니라고 이 산이, 저 구름이 속살거렸다.

● 작고 날쌘 곤줄박이가 눈 내린 숲을 헤치고 포르르 날갯짓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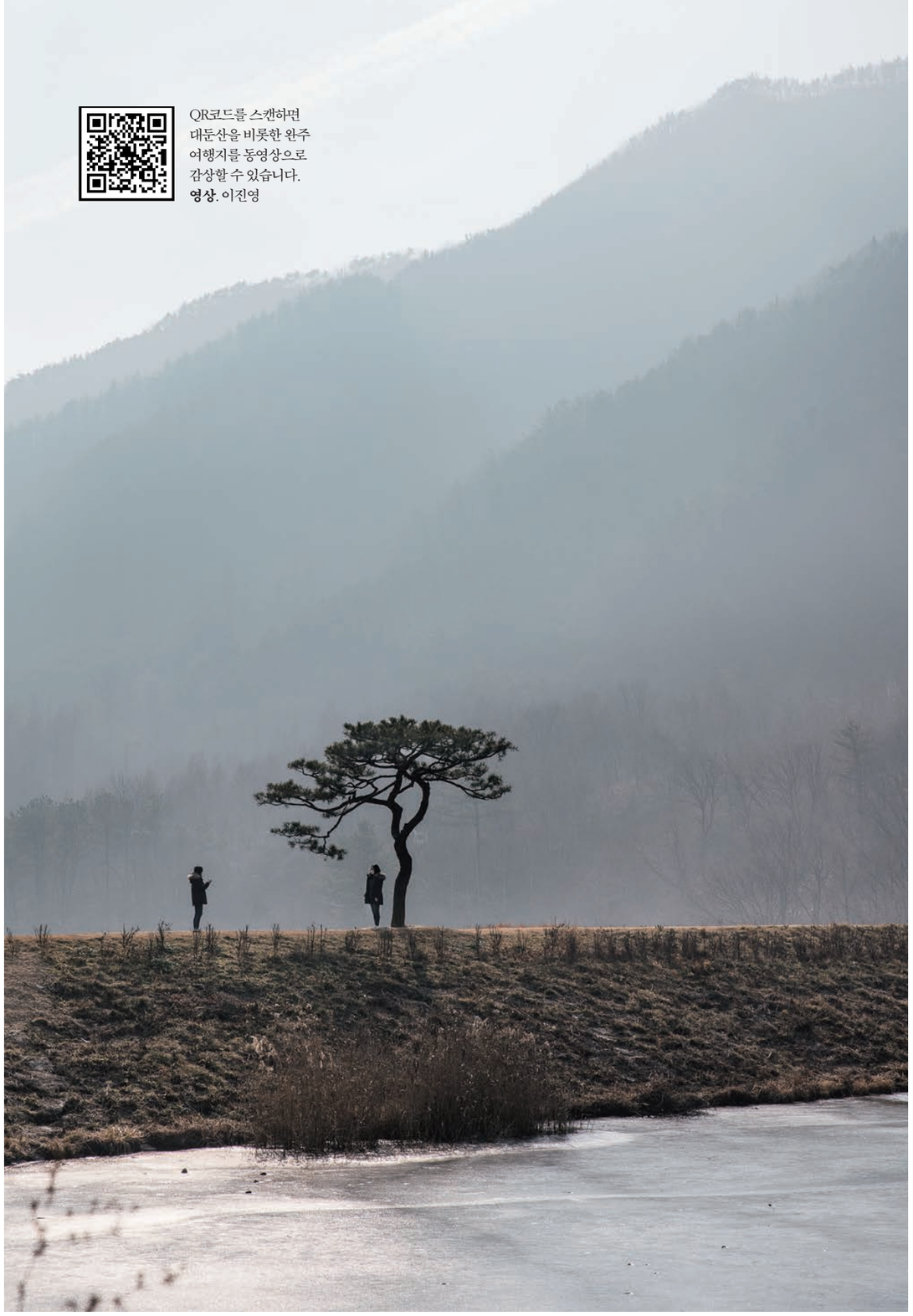
originally went by the name of Geumgang Cloud Bridge in March 1975. It was reconstructed for the second time last year, which makes the current bridge the third-generation bridge. A 10-minute climb from the bridge leads to Samseon Stairway, and another 15 minutes to the Macheondae Summit. The Samseon Stairway is a ladder bridge with 127 steps and a steep gradient of 51 degrees. The stairs, with their uneven and rugged surface, add to the challenge of the climb.

“Be careful. There’s no need to rush. Slowly, slowly.” Seo Yeong-ah, the guide for this climb, cheers me on. “Remember you don’t *have* to reach the summit. Take the time to appreciate the scenery.” The key attractions, namely, Geumgang Valley, Cloud Bridge, Samseon Stairway and Macheondae Summit, come into view. The mountains and clouds are a reminder that it’s more about the journey than getting to the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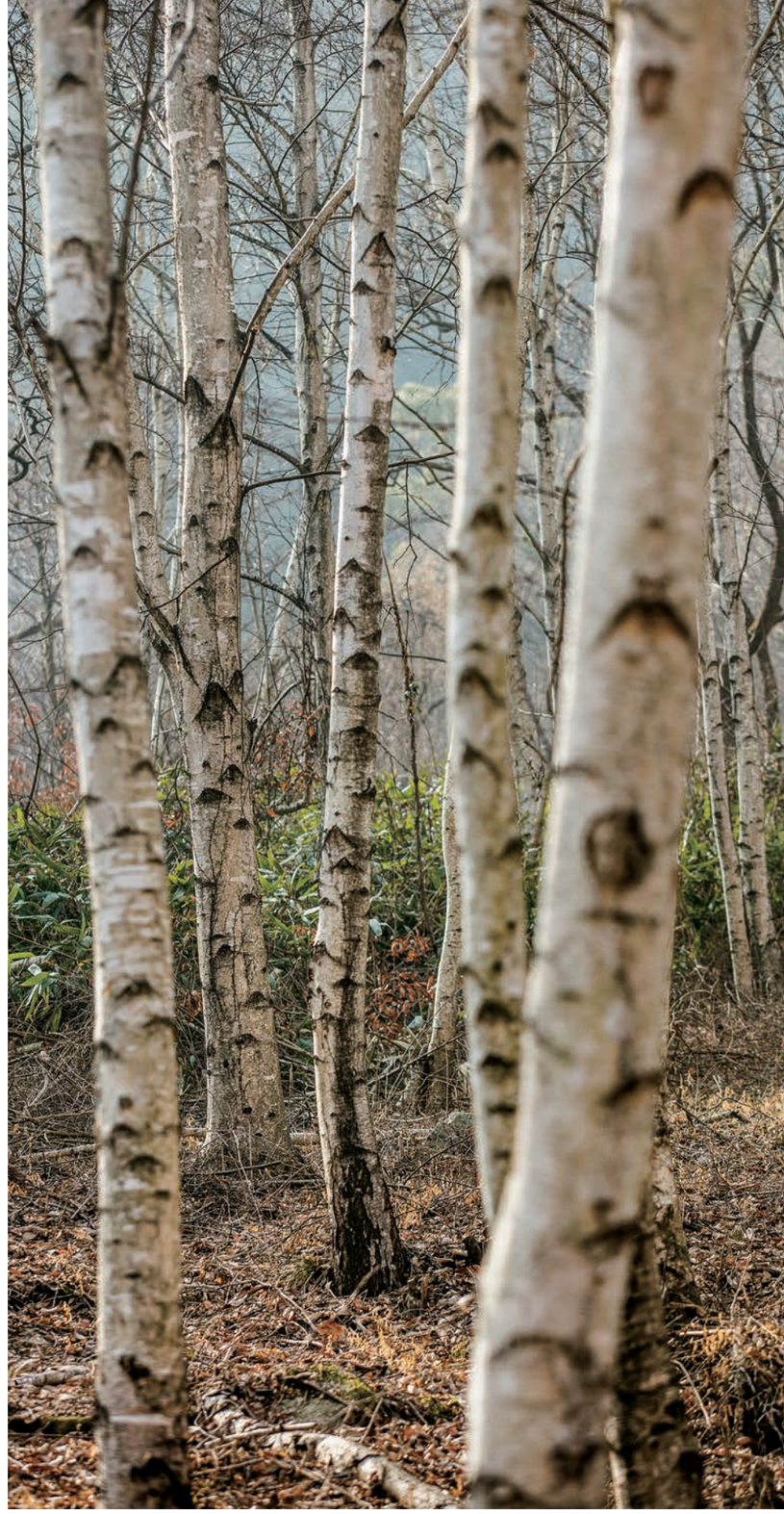
●●
바다, 아니 어쩌면 하늘을 닮았는지 모를 첩첩산중의 비경은
이제 눈높이에서 발끝 저만치로 까마득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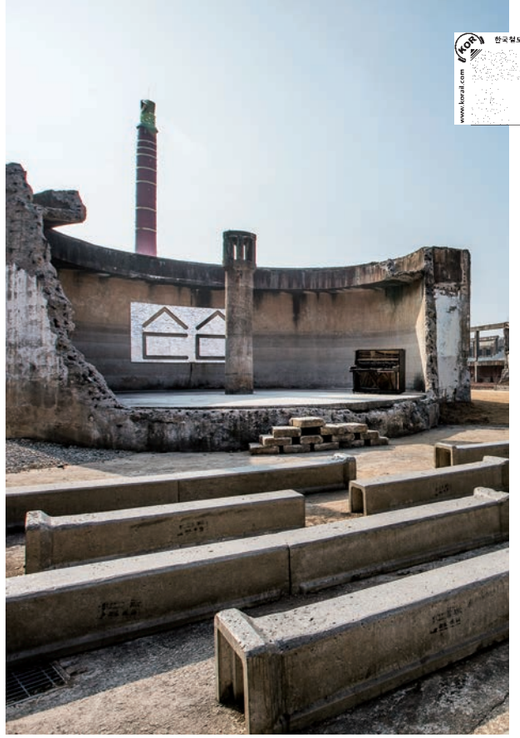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대둔산을 비롯한 완주
여행지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상. 이진영

배 같은 사이 아닌가.
친구란 망망대해의 등대와
다른 사람은 그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한 사람은 어깨를 내어 주고,

머물다





등대와 소나무, 소양면 이야기

산속등대의 낡은 건물과 알록달록한 컨테이너 건물이 묘한 조화를 이룬다.

"경주는 첨성대, 완주는 산속등대." 완주군 소양면에 우뚝 선 산속등대를 찾아가는 길, 입구에 걸린 당찬 슬로건이 눈을 사로잡는다. "완주 하면 떠오르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제 꿈이거든요." '등대지기'를 자처하는 원태연 대표는 한창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버려진 공장 건물을 갤러리와 카페, 유쾌한 체험 놀이터로 탈바꿈시켰다. 벌써 3년 전 일이다. 그사이 산속등대는 TV 프로그램 <한 번쯤 멈출 수밖에-내 오랜 벗, 전북 완주>에 등장해 소양면의 이정표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텔레비전에 등장한 두 벗은 가수 이선희와 아나운서 이금희다. 완주 곳곳을 쏘다니며 정다운 여행의 순간을 보여 준 두 사람은 산속등대의 야외 공연장 벤치에 걸터앉아 조용한 휴식을 청한다. 이때 한 사람은 어깨를 내어 주고, 다른 사람은 그 어깨에 기꺼이 머리를 기댄다. 그러고 보면 친구란 망망대해의 등대와 배 같은 사이 아닌가.

The Story of Soyang-myeon

"It's my dream to create a space that comes immediately to mind when you think of Wanju," says Won Tae-yeon, the owner of Sansok Lighthouse. Three years ago, he transformed an abandoned factory into what is known today as Sansok Lighthouse, comprised of a gallery, café, and a playground for interactive experiences. It quickly established itself as a must-visit in Soyang-myeon, and was even introduced in the travel documentary series *Gotta Stop Once*. In the Sansok Lighthouse episode, the singer Lee Sun-hee and host Lee Keum-hee stop to rest on a bench in the outdoor amphitheater. Lee Sun-hee rests her head on Lee Keum-hee's shoulder. Their friendship is reminisc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 lighthouse and a boat out at s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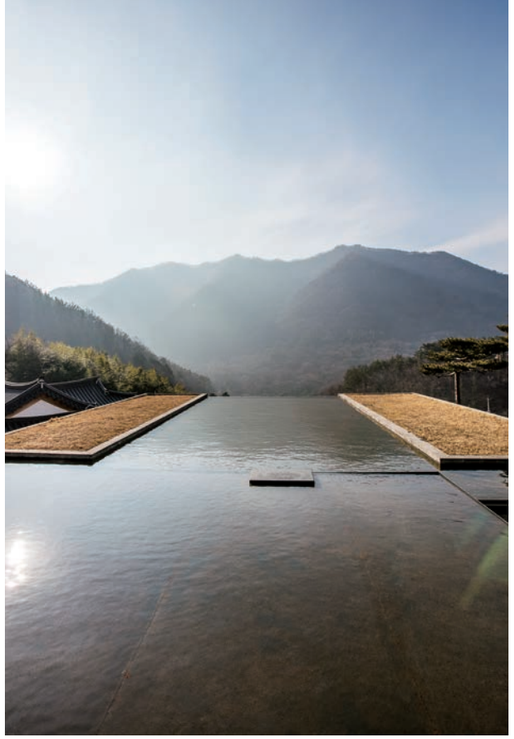
The entrance of Oseongje Reservoir in the village of Soyang-myeon is guarded by a tree, nicknamed the BTS Pine Tree. The pine tree, planted a few years ago for a drama shoot, gained fame after being featured in the 2019 BTS Summer Package. A sign reads "Wanju BTS Pilgrimage Site." In Soyang-myeon, the same sign can be found at two other places: Awon Museum and Hotel, and Wibongsanseong Fort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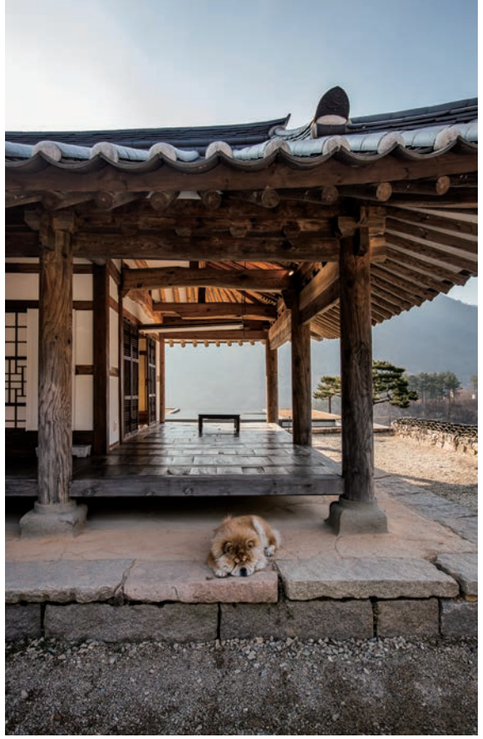
Imagining myself as one of the villagers, I take in the surroundings. The first place that grabs my attention is Oseong Tea Garden, a café and cultural space run by the village community. Visitors can book a room in the hanok-style accommodation and rent hanbok,

소양면 마을 저수지 오성제에 닿자, 그 이름도 위풍당당한 'BTS 소나무'와 맞닥뜨린다. 몇 해 전 드라마 촬영을 위해 둑길에 심어 놓은 소나무가 정작 유명해진 것은 2019년 여름, BTS의 화보 촬영지로 알려지면서부터다. 저수지 입구에는 '완주 BTS 힐링 성지'라고 쓴 귀여운 팻말도 자리한다. 소양면에는 이 팻말이 2개 더 있다. 하나는 오성한옥마을의 아원고택에, 다른 하나는 위봉산성에.

BTS처럼 노닐 듯 마을을 둘러봐도 즐겁겠지만, 이번엔 마을 사람처럼 천천히 머물며 풍경을 음미해 볼 계획이다. 시작점은 오성다원이다. 이곳은 오성한옥마을 공동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찻집이자 문화 공간으로, 단정한 한옥 숙소와 함께 한복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때 버려진 공장이었던 건물은 갤러리와 카페, 유쾌한 체험 놀이터로 탈바꿈했다.
벌써 3년 전 일이다. 그사이 산속등대는 소양면의 이정표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오성다원 뒤곁으로는 소양문화생태숲이 이어진다. 숲길을 걷다 보면 작은 야외 도서관도 만난다. 볕 좋은 날에 여기서 책 한 권 꺼내 들고 느릿느릿 걸음을 떼도 좋을 것이다. 얼마나 걸었을까, 희끗한 자작나무 군락이 보인다. 뒤편에 선 아름드리 감나무도 정답다. 길은 계속 이어져 종남산 임도와 연결되고, 익산에서 연결된 전라북도 아름다운 순례길로도 뻗어 나간다.

오성한옥마을은 저수지를 기준으로 서쪽엔 마을 공동체와 생태숲이, 동쪽엔 고택과 카페가 자리한다. 이 두 축은 오성한옥마을 공동체를 이끄는 전남도립대학교 한옥건축과 장택주 교수, 오스갤러리와 아원고택을 건립한 건축가 전해갑 대표에 의해 자연스러운 균형을 이룬다. 저수지 너머 동쪽 마을엔 앞서 말한 'BTS 힐링 성지'로 이름난 아원고택이 있다. 마을 터줏대감 아원고택은 한국적인 지세와 지형을 빌린 미감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 고아한 건축미는 올봄 이축 예정인 전남 함평의 서당 건물에도 오롯이 깃들 것이다.

● 소양문화생태숲은 참나무 군락과 너덜경으로 이뤄진다.

Korea's traditional attire, for a more memorable experience.

To the back of Oseong Tea Garden is Soyang Cultural and Ecological Forest. Along the trail, there is a small outdoor library where you can borrow a book or two to read amidst nature. After walking for some time, I come upon a grove of birch trees. The trail connects to not only Jongnamsan Mountain, but also Beautiful Sunrye-gil, or Beautiful Pilgrimage Route. Wanju is one of the many points on the route, along with Iksan and Gimje.

Lying to the east of the reservoir is Awon Museum and Hotel, one of the other BTS pilgrimage sites in Wanju. Regarded as a village monument by many, Awon Museum and Hotel is known for its sense of aesthetics. Its architectural elegance will be further enhanced when the village school building re-opens this spring.

노을이 타는, 황홀한 겨울 강이다.
누런 볕이 내려앉는 시간이다.
달뿌리풀과 물억새, 마른 쑥꽃 위로

흐르다

겨울 철새의 낙원, 만경강길

겨울
만경강길에서
철새의 날갯짓,
물억새의
고갯짓을 본다.

이 겨울, 흰뺨검둥오리는 만경강 신천습지의 주인이다. 이따금 고니와 대백로가 날아들지만, 흰뺨검둥오리의 대세를 거스를 순 없다. 물론 겨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청둥오리, 황조롱이, 왜가리, 논병아리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조류와 토종 물고기가 이곳에서 공존하기 때문이다.

인기척을 느낀 걸까, 놀란 새들이 화들짝 날아오른다. 잠시 멋쩍었다가 이내 미안해진다. 그나마 날아가지 않고 멀뚱멀뚱 남은 몇 마리와 눈을 맞춰 보기로 한다. "저 친구들은 물닭이에요. 물닭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새랍니다." 만경강사랑지킴이 이현귀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마른 풀이 우거진 물가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여기 좀 보실래요? 지난가을엔 숭어, 잉어 같은 물고기가 잔뜩 모였던 자리예요. 수달이 물고기를 몰고 다녔거든요. 하하, 맞아요. 여기 수달이 살아요!"

만경강길은 동상면 발원샘부터 삼례읍 해전마을까지 약 52킬로미터 구간 7개 코스로 이뤄진다. 우리가 걷는 신천습지 구간은 6코스로, 회포교에서 하리교까지 이어진다. 만경강이 늘 맑기만 했던 건 아니다. 뱀의 몸처럼 굽이친다고 해서 '사수강'이라 불리던 만경강은 일제강점기에 직강화되면서 빠르게 망가졌고, 모래톱은 1970년대부터 난립한 공사 현장에 유출되었다. 모래를 환경 자원으로 취급하지 않던 시절의 일이다.

강은 다행히 제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자연의 회복력 덕분이다. 퇴적작용으로 복원된 모래톱에는 다시 철새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만경강의 여린 동식물이 처한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 "모두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기록해야 하는데, 안타깝기만 해요. 지금 멸종 위기종이라 여겨지는 동식물은 모두 옛사람들의 삶 속에 있던 것들이거든요." 이번에 그는 소리쟁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꼭 왕관처럼 생겼죠? 저 어릴 적엔 된장을 넣어 국으로 만들어 먹던 풀이에요." 그의 말 끝엔 쓸쓸함도, 정겨움도 다 담겨 있었다.

Mangyeonggang-gil, a Paradise for Bi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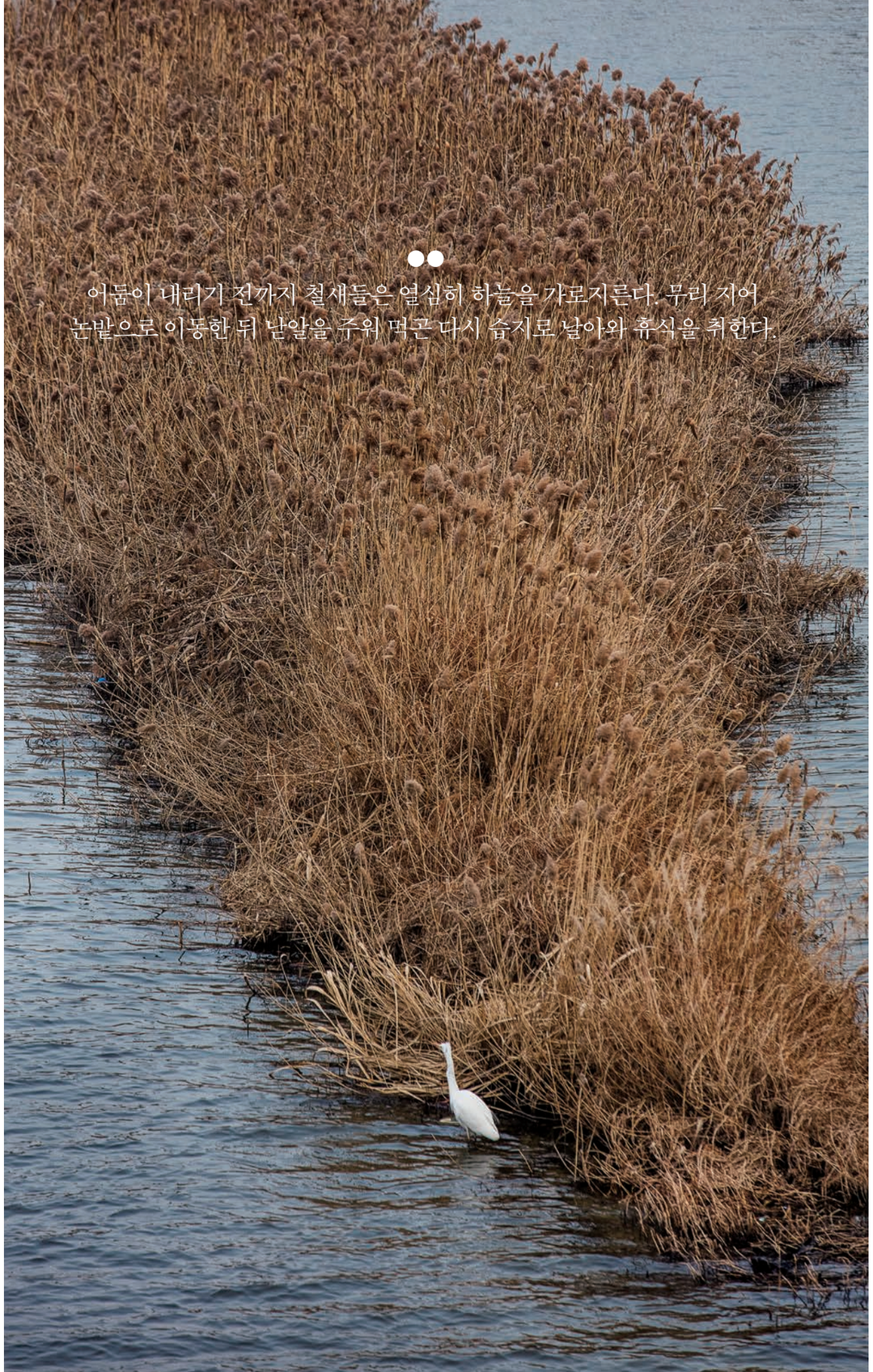
This winter, you will find Mangyeonggang River dominated by spot-billed ducks. The area also gets its share of swans and great white egrets, but spot-billed ducks form the majority. Of course, this is only so in winter. In other seasons, the river is home to various species, including mallards, kestrels, grey herons, and little grebes.

A flock of birds is flushed out of their hiding places. I make eye contact with the remaining few. "Those are coots. They're not afraid of people." says Lee Hyeon-gwi, the president of Mangyeonggang River Guardians. She points to a bank overgrown with grass. "Look over there. Last autumn, that's where the otters cornered fishes like flathead mullets and carps. Yes, we have otters living here!"

Mangyeonggang-gil is a 52-kilometer trail comprised of seven courses, and stretches from the origin of the river in Dongsang-myeon to Haejeon Village in Samrye-eup. Course 6, the one we are on, starts at Hoepogyo Bridge and ends at Harigyo Bridge. There is a dark history to Mangyeonggang River.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the meandering river was straightened, which caused it to be rapidly polluted.

Over the years, the river gradually reverted to its natural form. Sedimentation has helped to restore the sandy plain, a popular spot among migratory birds. However, the fragile plants and animals of Mangyeonggang River are still under threat. "We must keep track of the diverse species while they are still around. Today's endangered species were commonly spotted in the past. It's an unfortunate reality."

The golden rays of the sun are stroking the reed grasses and weeds. We continue on to Course 7,



달뿌리풀과 물억새, 마른 쑥꽃 위로 누런 볕이 내려앉는 시간이다. 노을이 타는, 황홀한 겨울 강이다. 내친김에 만경강길의 마지막 7코스인 비비정길까지 걷기로 한다. 느릿느릿 걷다 보니 어느새 비비정 예술열차다. 이곳에서 만경강 철교 아래 자리한 하중도, 올챙이섬을 한동안 바라본다. 섬 끄트머리에 앉은 대백로 한 마리가 자기만의 시간을 누리고 있다.

어둠이 내리기 전까지 철새들은 열심히 하늘을 가로지른다. 무리 지어 논밭으로 이동한 뒤 낟알을 주워 먹곤 다시 습지로 날아와 휴식을 취한다. 새들도 쉬어가는 저녁, 만경강 자전거길은 여전히 활기가 넘친다. 둑방을 낀 자전거길은 매서운 겨울 북풍으로부터 안전한 편이지만, 여름 만경강만큼 근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즈음엔 고산면에서 '나라꽃 무궁화축제'도 열린다던데. 고산자연휴양림에 베이스캠프를 두고 싱싱한 강바람 맞으며 만경강길을 달리는 기분은 어떨까. 그 계절의 풍경은 또 어떤 모습이려나. 겨울 철새들은 2월 말이면 만경강을 떠난다지만, 바람 든 여행자의 마음은 한동안 이곳을 떠돌 것만 같다.

the last bit of Mangyeonggang-gil that leads to Bibijeong Pavilion. Even at a leisurely pace, we arrive at Bibijeong Art Train sooner than we had expected. My eyes fall on the river island below the bridge. At the edge of the river island, a great white egret is having a moment of solitude.

As dusk begins to fall, the birds that were out eating in the fields return to the wetlands to rest. At this time, the bike path begins to come alive with cyclists. Despite the embankment offering protection from harsh northerly winds, cycling, in my view, is an activity that becomes more enjoyable in summer than winter. My heart flutters at the thought of racing along the river, with the cool breeze grazing my cheeks—definitely worth looking forward to. The migratory birds fly away around the end of February, but the charm of Wanju will linger in my mind for much longer, even after I leave.

완주의 웰니스 체험 마을

구이안덕 건강 힐링체험마을 모악산도립공원 남쪽 자락에 펼쳐진 청정 마을이다. 미치마을, 장파마을, 원안덕마을, 신기마을이 의기투합해 자립형 마을 회사를 만들고 전통문화체험관과 마을 한의원 등 다양한 건강 체험 시설을 운영한다. 이곳에 머문다면 전통 구들방식으로 구축한 황토 한증막에 반드시 들러 봐야 한다. 한약재 향기를 맡고 약재 이름을 배워 향낭을 만들거나, 천연 염료를 사용해 흰 손수건을 염색하거나, 고두밥을 찌고 떡메를 쳐 인절미를 만들거나, 농작물을 직접 수확하는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여행자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의 063-227-1000

Gui Andeok Health Healing Experience Village This Experience Village is nestled at the southern foot of Moaksan Mountain. The company was formed out of a partnership of four villages, and the various health facilities include an oriental medical clinic. The red clay sauna, with its traditional underfloor heating, is highly recommended. You can dye colorful handkerchiefs with natural dyes, make rice cake, and learn to harvest crops. The unique set of activities will appeal to those seeking new experiences.
Information 063-227-1000

경천애인권역 농촌체험마을 화암사의 고장인 경천면에 자리한 생태 마을이자 녹색 농촌 체험 마을이다. 그 이름처럼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정겹다. 마을의 옛 이름은 개가 앉은 형상의 곳이라는 의미인 '개안지미'였다. 곶감과 복분자로 유명한 갱금마을, 진사고택을 품은 오복마을, 알 굵은 대추가 나는 원가천마을, 질 좋은 콩을 재배하는 구재마을, 두부가 맛있는 요동마을, 대나무 숲 울창한 죽림마을이 모여 있다. 경천애인농촌사랑학교와 자연 친화 숙소를 중심으로 맛 체험장, 물놀이 체험장, 가마솥 체험장 등 흥미로운 놀이터를 마련했다.
문의 063-263-5555

Gyeongcheon Aein Village This farming experience village is situated in Gyeongcheon-myeon, home to Hwaamsa Temple. It is surrounded by majestic mountains and the Guryongcheon Stream. The village was formerly known as "gaeanjimi" or "sitting dog" because of how it is shaped like a dog in the sitting position. Run by Gyeongcheon Aein Nongchon Sarang School, the village offers eco-friendly accommodation, food tasting, water activities, and a gamasot (traditional pot) experience.
Information 063-263-5555

© 완주군청

새해, 앞장감이 되세요!

전파미래 앞장감 양성

교육 분야

스마트제조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3월	4월	5월
스마트드론	**자율주행차**	**전파소재부품**
6월	9월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전파산업 재직자 앞장감 양성 교육을 진행합니다.

* **앞장감이란?** 앞장설 만한 인재, '리더'를 가리키는 순우리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초연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혁신적인 전파 활용 기술 확산을 위해 융합 역량을 갖춘 실무형 전파 앞장감을 양성합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방송통신교육원은 전파산업 재직자 앞장감 양성 교육을 통해 전파산업 분야 **여성 전문가 양성**과 **여성 참여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 전파산업 재직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 일정과 과정

교육 분야
4차 산업혁명 관련 전파 이용 6개 분야

교육 과정
분야별 7개 과정(총 42개 과정)
오프닝 세미나, 기술과 산업, 관리와 개발, 전파 측정 실습, 특성화 실습, 현장 견학, 우수 과정
※교육 과정 구성은 일부 조정 가능

교육 방식
양방향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집합 교육

교육 대상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특히 여성 재직자의 관심과 참여를 권고드립니다.

신청 방법
전파방송통신교육원(www.atic.ac) 홈페이지 또는 앞장감 홈페이지(www.앞장감.kr)
교육원 홈페이지 상단 '교육 소개' →
'전파 방송/정보 통신 교육' → 교육 과정 선택 → 교육 신청
* 신청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교육비
무료(중소벤처기업 재직자에 한함)

교육 문의
02-317-6191, 6158
yhk@rapa.or.kr, hylee@rapa.or.kr
(전파방송통신교육원 앞장감교육 담당)

RAPA 한국전파진흥협회 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www.앞장감.kr

www.korail.com 한국철도공사

완주의 맛있는 먹거리

자연을 닮은 사람들 소양면 오성한옥마을 어귀에 위치한 식당이다. 그 이름처럼 살아 숨 쉬는 황토와 볏짚의 담박한 멋이 그대로 느껴지는 공간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갈비 굽는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이곳의 주인공은 특제 양념으로 맛을 낸 돼지갈비와 목살구이다. 불에 잘 그을린 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무쇠 접시 위에 올린다. 그 덕분에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육질이 오래 유지된다. 전라도 밥상 아니랄까 봐, 김치부터 야생초 샐러드에 이르는 밑반찬도 떡 벌어진다. 상 위에 오른 채소는 대부분 식당에서 직접 재배했고, 발효 소스는 1년 이상 숙성해 맛을 완성했다. 뜨끈한 들깨수제비도 별미다.
문의 063-244-4567

Jayeoneul Dalmeun Saramdeul This restaurant, located at the entrance of Oseong Hanok Village in Soyang-myeon, specializes in grilled pork spareribs and pork shoulder. The grilled meat has a succulent smell and stays tender for a long time. Jeolla Province is known for its abundance of side dishes, and here, you will find all you can imagine from kimchi to wild herb salad. Most vegetables served on the table are grown by the restaurant, and the special sauce is made by fermenting for at least a year. Another signature dish is the noodle soup with perilla seeds.
Information 063-244-4567

산산산 대둔산 케이블카 탑승장 맞은편에 자리한 '산산산'. 절묘한 위치만큼 솜씨도 훌륭하다. 더덕구이 산채 정식을 주문하면 12첩 반찬이 깔리는데, 그 면면이 정성스럽다. 대둔산의 별미 인삼튀김은 물론, 이 계절엔 데치지 않은 생 냉이무침도 맛볼 수 있다.
문의 063-263-3829

Sansansan Sansansan is a restaurant across the Daedunsan Cable Car Station. The grilled deodeok set comes with 12 side dishes, such as fried ginseng with red ginseng sauce, a Daedunsan delicacy, and the seasonal shepherd's purse salad.
Information 063-263-3829

화산애빵긋 경천저수지를 품은 화산면에는 사랑스러운 무인 빵집이 있다. 식빵, 단호박 머핀, 마들렌, 소시지빵 등 메뉴가 알찬 데다 차나 커피를 곁들일 수도 있다. 가게 한편엔 조촐한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어 구매한 빵과 음료를 먹고 가기에 편리하다.
문의 0507-1369-3461

Hwasanae Bbanggeut This is a lovely unmanned bakery in Hwasan-myeon, where Gyeongcheon Reservoir is located. You can enjoy plain bread, sweet pumpkin muffin, madeleine, and sausage bread, along with tea or coffee.
Information 0507-1369-3461

입력에서 출력까지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

카메라로 촬영하고 프린터로 출력해 하나로 연결한 캐논코리아가 새롭게 출발한다.

캐논코리아가 한국 시장 진출 36년 만에 사무기기와 카메라 사업을 합쳐 통합 기업명 '캐논코리아 주식회사'로 거듭났다. '토탈 이미징 솔루션(Total Imaging Solution)'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며 캐논 브랜드 인지도를 공고히 다진다. 토탈 이미징 솔루션은 캐논 제품으로 입력에서 출력까지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 캐논 카메라로 촬영한 고화질 사진과 영상을 캐논 프린터·복합기 등 출력 기기를 사용해 더욱 쉽고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도록 자사만의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제품 간 연결성과 호환성을 확장해 소비자는 촬영부터 출력까지 한층 편리한 제작 환경과 만난다.

작지만 고성능, EOS RP

카메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찍린이'도 쉽게 다룰 수 있다. 입문용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EOS RP'는 440g의 가벼운 무게와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손이 작은 사람도 한 손 촬영이 가능하다. 풀터치 회전형 LCD, 2620만 화소, 35mm의 풀프레임 CMOS 센서를 탑재해 캐논 특유의 따뜻한 색감을 강조한 고화질 사진을 보장한다.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로 스마트폰과 연동해 결과물을 SNS에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휴대용 프린터 PIXMA TR150

프린터를 가방에 넣고 다니며 마음껏 이용한다. 휴대용 프린터 TR150은 작고 가벼운 사이즈로 사랑받고 있다. 배터리를 장착할 경우 전원 케이블이 필요 없어 이동 중에도 활용 가능하다. 외부에서 배터리가 방전되어도 걱정하지 말자. 보조배터리 등을 통해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분당 최대 9장의 빠른 출력 속도로 외근과 출장이 잦은 직장인에게 안성맞춤이다. 설치하기 간단한 무선 LAN 기능을 탑재해 PC, 스마트폰 등 와이파이 연결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출력할 수 있다.

문의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1533-3355

editor. 김현정 photographer. 박정우

www.korail.com 한국철도공사

시작하는 날의 여행

한 해를 시작하는 즈음, 경북 김천을 걸었다.
겨울이 가고 시간이 지나도 녹지 않을 말을 찾았다.

산에 깃든 오랜 절은 이미 자연이었다.
이름에 곧을 직(直)을 지닌 절이 수많은 곡선을
그리며 너그러운 품으로 여행자를 맞는다.

억하는 신라도 처음부터 불교의 나라는 아니었다. 기원전 57년에 세운 신라가 6세기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했으니, 직지사는 아직 대다수 사람이 불교를 모르던 시기의 사찰이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산에서 발원한 조그만 샘물이 흐르고 흘러 넓은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삶과 죽음, 올바름과 삿됨을 고민하는 철학과 신앙은 마침내 신라의 큰 줄기를 이루었다. 나라가 공인하기 100년 이상 전에 지은 초기 사찰은 불자가 된 신라인에게 평생 한 번이라도 방문하고 싶은 성지와 같았을 것이다. 첫 마음을 간직한 거룩한 곳이라 할까.

그렇다고 무게감에 짓눌리지 말라는 듯 일주문까지 소박한 오솔길이 이어진다. 키 큰 나무가 양옆에 늘어서서 걷는 내내 시선이 하늘로 올라간다. 나무가 몇 살이면 저만큼 자랄까. 이 나무에서 다음 나무로 걸음을 옮기는 길이 호사스럽다. 좀 더 가도 좋겠다 싶은데 이내 일주문이다. 직지사가 역사상 중요한 사찰이라는 이유로, 혹은 사람들의 깨달음을 위해서라며 산문과 건물의 거리를 길게 설계할 수 있건만 직지사는 그저 자연스럽다. 산세가 허락하는 대로 길과 건물을 내고 사람은 그 안을 누린다. 자연스러움이 평온함을 선사한다.

463년 전, 한 고아 소년의 눈에도 이 절이 그러했을까. 1544년 태어나 10대 초반에 부모를 여읜 소년이 직지사에 흘러들었다가 만 열다섯에 출가한다. 오늘날 직지사와는 다른 모습이었을지언정 당시에 이미 1100년 넘는 세월을 간직한 고찰은 누군가의 생애를 결단하게 하는 기운이 서려 있었나 보다. 그가 유명한 유정, 사명대사다. 열일곱 나이에 과거 시험 승과에 급제한 실력자인 사명대사는 스물아홉이 되어 주지로서 직지사에 부임하기도 했다.

번듯한 자리를 마다하고 서산대사를 찾아가 스승으로 모시는 등 오로지 깨달음을 추구한 삶이 급변한 계기는 임진왜란이다. '임진왜란' 네 글자는 침략당한 조선 사람의 고통을 결코 담지 못한다. 생명과 생계를 빼앗긴 참상을 목격한 사명대사는 뜻을 함께하는 승려를 모아 전장에 나선다. 어느새 마흔여덟의 나이였다. 지혜와 지략, 용맹함이 장수를 능가해 평양성을 비롯해 여러 전투에 임했고, 비전투 시에는 전쟁을 대비한 성을 쌓는 데 힘썼다. 조선이 유교 국가임에도 <조선왕조실록>에 그를 언급한 횟수가 100회가 넘는다. 법명인 '유정'을 임

담장은 낮고 나무는 높았다. 나무를 베어 내지 않으려 어느 담장은 갑자기 휘돌았고, 중간에 끊기기도 했다. 산에 깃든 오랜 절은 이미 자연이 되었건만, 가꿔 온 세월 동안 자연과 사람 중 누가 주인인지를 기억했음이 분명했다. 그 흔적을 발견하는 여행이 즐거웠다. 도시 이름에 샘 천(泉) 자가 들어간 김천 직지사는 물이 풍부한 황악산 자락에 놓여서인지, 곳곳에 크고 작은 나무가 불쑥 자라는 사찰이었다. 어디는 한두 그루, 어디는 거의 숲, 그 사이사이에 건물. 이름에 곧을 직(直)을 지닌 절이 수많은 곡선을 그리며 너그러운 품을 자랑했다. 한 해의 출발선에 선 즈음, 걸음 딛을 방향을 찾아 직지사로 향했다.

첫 마음이 담긴 사찰, 직지사

41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1604년 전 아도화상이 신라 땅에 넘어와 사찰을 짓는다. 무엇이든 최초가 있는 법. 흔히 불교 국가로 기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김천(구미)역까지 1시간 30여 분이 걸린다.

● 임진왜란 당시 의승병을 이끈 사명대사가 직지사에서 출가했다. 절에는 그가 소년 시절 누웠다 전하는 바위가 있다.

직지사는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기 전인 418년 창건했다. 신라 땅 두 번째 사찰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직지사, 사명대사공원 등 김천 여행지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상. 이진영

직지사 대웅전은 1735년
중건한 것으로 건물과
탱화, 수미단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문의 054-429-1700

금이 친히 언급하기도 여러 번이다.
그는 참전만 할 뿐 아니라 어명을 받아 가토 기요마사,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협상을 벌여 조선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고, 일본에 잡혀간 포로 3000여 명을 귀환시켰다. 정부가 못 한 일을 승려 한 사람이 해낸 것이다. 임금은 사명대사를 곁에 두려 했으나 임무를 마친 그는 절로 돌아갔다. 광해군은 그의 몸이 쇠했다는 말을 듣고는 약을 지어 보내라 했고, 이듬해인 1610년에 입적하자 장례 물품도 챙겨 하사했다.
천왕문 옆에는 대사께서 열다섯 소년 시절 직지사에 처음 와서 누웠다 전하는 평평한 바위가 있다. 한낱 전설일지라도 의미는 짙다. 자비와 구도를 목숨 걸고 실천한 고승의 출발이 이 바위처럼 평범했다. 내일이 그려지지 않는 막막한 심경으로 바위에 누웠을 소년을 떠올린다. 시작은 거창하더라도 여건을 탓하며 방향을 틀거나 애초의 뜻을 접고 허망하게 구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주저앉고 싶은 순간에 이 바위를 떠올려야겠다.

1600년 시간의 정성과 발원

직지사엔 스치고 지나가기 아까운 볼거리가 많다.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어 새로 짓고 1735년 중건한 대웅전은 300년 세월이 고스란해 구석구석 더듬게 된다. 단정한 문살 아래 색 바래 가는 그림이 사랑스럽다. 내부의 불상 뒤에는 탱화가 1744년부터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 불상을 모신 수미단은 용과 새와 온갖 꽃을 조각해 채색했다. 수미단 한편에 관음보살을 상징하는 파랑새가 노닌다. 대웅전은 물론이고 옛사람의 상상과 솜씨가 담긴 탱화와 불단 역시 국가가 보물로 지정했다. 단청의 아름다움은 말해 무엇하랴. 서까래 아래에는 꽃병으로 보이는 그림을 잇달아 그렸는데, 하나하나 무늬가 다르다. 대웅전에 쏟은 정성이 하 갸륵해 탑돌이 하듯 몇 바퀴를 돌면서 감탄했다. 건물 전체가 위에 계신 이에게 전하는 꽃다발 같다.
정성과 발원이 1600여 년간 쌓인 공간은 왕에게 선택받은 길지이기도 했다. 조선 정종 임금은 자신의 태를 직지사 위 산봉우리에 옮겨 봉안하도록 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파헤쳐 이전하기 전까지 500년

직지. 마음을 들여다보아 깨달음에 이른다는 이름의 절이다.
눈앞에 백두대간이 흘러간다. 마음을 직시하라 가르친다.

이상 어태를 직지사가 보호했다. 지금도 성보박물관과 안양루 앞마당에 태실 난간과 석물이 있다.

경내는 늠름한 나무와 유독 낮은 담장의 비율이 조화롭다. 그 가운데 고만고만한 단풍나무가 도열한 터널에는 사람들이 소원 쓴 종이를 달아 놓았다. "엄마가 낫게 해 주세요." 가족 건강, 시험 합격, 취직 기원, 사업 번창이 대다수인 문구에서 저 말이 눈에 띈다. 내 안에 꽉 찬 내 소원을 잠시 밀어내는 말. 누군지 모르는 그 어머님의 쾌유를 빌었다. 이를 발견하는 사람 모두가 그러하겠다.

물길을 거슬러 명적암에 오른다. 웅장한 풍경이 전하는 기세가 굉장하다. 황악산 허리에 들어선 암자에서는 백두대간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밝은 적막이라. 어둠과 어울리는 고요함이라는 한자에 밝음을 뜻하는 한자를 붙였다. 명적암에서 자연의 고요함에,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직지(直指). 손가락이 어디로 향하는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마음을 들여다보아 깨달음에 이른다는 이름의 절이다. 마음만 제대로 들여다보아도 깨달음에 이를 것을, 눈을 오만 데 두느라 마음을 직시하지 못한다. 실은 마음 직시하기가 두렵기도 하다. 직지, 두 글자를 굴리며 구불구불한 길을 내려온다.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아득하게 물소리가 따라와 주어 외롭지 않다.

● 사명대사공원은 여행자센터, 김천시립박물관, 건강문화원 숙박동과 체험동 등을 갖추어 알찬 시간을 보내기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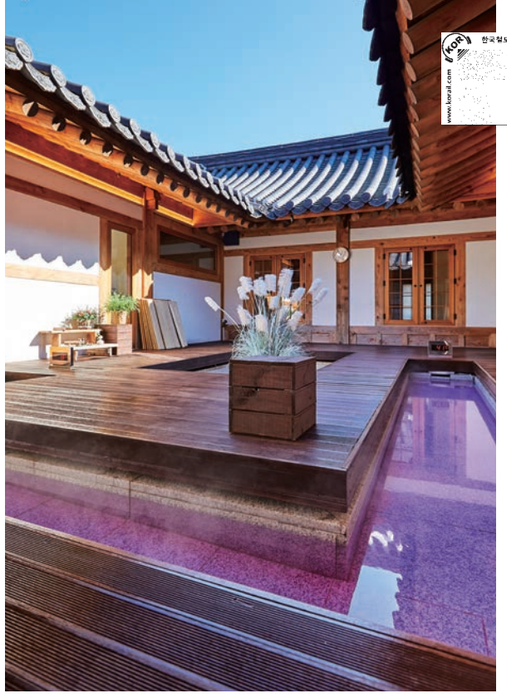
여행자를 반기는 진심, 사명대사공원

직지사 바로 옆이 사명대사공원이다. 산자락 지형을 살려 14만 3695제곱미터(약 4만 3400평) 부지에 조성한 공원은 여행자센터, 김천시립박물관, 건강문화원 숙박동과 체험동, 한복 대여점 등을 갖추어 알찬 시간을 약속한다. 여행자센터에서는 짐을 맡기고, 600여 권의 신간과 베스트셀러를 읽고, 김천8경을 VR로 감상하고, 한 달이 지나 도착하는 느린 엽서를 쓸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무료다. 건강문화원에서는 수압 마사지기, 광물질인 일라이트 온열 의자, 음파 온열기 같은 눈

●

한옥 카페는
사명대사공원의
상징인 평화의 탑을
감상하고 인증
사진을 찍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문의 054-437-7979

건강문화원 체험동에서는
다양한 기기를 이용한
마사지와 라벤더 족욕을
체험할 수 있다.



이 휘둥그레지는 다양한 기기에 라벤더 족욕까지 체험한다. 한옥 중정, 하늘이 뻥 뚫린 마루에 앉아 보랏빛 따스한 물에 발을 담그니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다. 온열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창밖의 백두대간을 바라보는 시간도 마찬가지다.

공원의 상징은 평화의 탑이다. 승리와 보복이 아닌 평화를 위해 협상에 임한 사명대사의 뜻을 기려 지은 41.5미터 높이의 5층 목탑은 자체로도, 백두대간 지세와 어우러져서도 한 풍경을 이룬다. 한옥 '카페, 밀'은 탑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당. 김천이 고향인 젊은 대표가 오랫동안 커피와 제빵을 해 온 부모님의 기술과 자세를 이어받아 손님을 맞는다. 아버지가 세심하게 고른 원두로 내린 커피, 대표가 직접 고안하고 만들고 보완하고 마침내 완성한 빵 메뉴에 진심이 가득하다.

김천이 건넨 말을 기억하다

걷는 재미가 붙어 공원을 산책하는 사이 날이 저물고 평화의 탑에 불이 켜진다. 은은한 조명이라 좋다는 감상도 잠시, 말을 잊었다. 하늘에 별이 흐드러져 있다. 목이 뻐근할 만큼 밤하늘을, 별빛을 눈에 머금었다. 쓸어 담았다. 사람을 꿈꾸게 하는 빛이 김천의 하늘에 만개했다. 차가운 공기마저 달콤하다.

녹지 않는 말이 있다. 몸을 낮추고, 구부러져야 할 때 구부러진 담장은 아름답다. 세상 어디든 내 몸 하나 기댈 바위는 존재할 테니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구나 생각했다. 직지,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직시하면서 계속 걸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겨울, 김천이 선물한 말이다.

+ 사명대사공원 즐기기

14만 3695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은 여행자를 환대하는 김천의 진심, 여행자를 만족시키겠다는 김천의 야심이 느껴지는 곳이다. 여행자센터에서는 신간과 베스트셀러를 읽고 한 달 뒤 도착하는 느린 엽서를 무료로 보낼 수 있다. 한복 대여점은 평상시 입기 힘든 다양한 한복을 준비했다. 한옥 숙박동은 합리적 가격에 편안한 시설을 갖추어 인기 만점이다. 직지사, 직지문화공원, 모티길이 인근이라 여행 동선 짜기도 편리하다. **문의** 054-421-1557

김천의 하루가 저문다. 은은한 조명이 좋다는 감상도 잠시, 밤하늘 흐드러진 별에 말을 잊었다. 별을 눈에 쓸어 담았다. 차가운 공기마저 달콤한 밤이다.

editor. 김규보 photographer. 이규열

단단한 삶의 이야기, 충주

삶은 이야기를 꽃피운다.
지현동 사과나무 이야기길,
소태면 스페이스선을 둘러보며
충북 충주의 이야기를 들었다.

산이 숨었다. 분명 있을 텐데 모습을 찾을 수 없다. 강은 보이지만 흐릿하고 강가에 늘어선 나무는 빛깔이 엷어 멀게 느껴진다. 오늘 충주는 강과 나무가 아니라면 모두 안개다. 남한강과 탄금호에서 올라온 희뿌연 장막이 구름처럼 흐르는 하얀 도시에 마침 상고대가 피었다.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아롱져 더 꿈같은 풍경 속으로 들어간다.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는 단단한 삶들이 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릴 듯하다.

충주를 여행지로 결정한 이유는 하나, 작년 12월 31일 이천 부발역에서 충주역을 잇는 중부내륙선이 개통했기 때문이다. KTX-이음이 오가는 중부내륙선이 계획대로 서울 수서역까지 연결되고, 남부내륙선이 경남 거제까지 이어지는 2027년 무렵 충주는 한반도를 종단하는 새 고속철도 노선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아늑한 벽화 마을, 지현동

머잖아 더욱 분주해질 충주역에서 여행을 시작한다. 도심에 이르려 무던히 애쓰던 안개가 이제 됐다 싶은지 물러나는 중이다. 무엇이 존재하는지 알 길 없는 안개 싸인 길을 달려 전부 선명한 길에 섰다. 깊숙한 내륙을 가로지르는 남한강이 수시로 안개를 드리우는 충주가 하나씩 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희뿌연 장막이 걷히는 도시에 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현동에 도착했다. 충주천 서쪽에 군데군데 놓인 골목 중 하나로 발걸음을 옮기자 주택이 서너 채 붙은 구역들 사이에서 잘 정비된 길이 나온다. 주민 몇몇만 어디론가 향하는 조용한 거리, 담벼락 그림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두 개가 아니다. 저 멀리 거리 끄트머리 담장에도 벽화가 있다. 서로 돋보이려 하지 않고 정답게 소곤거리는 양 조화하는 그림 덕분에 걷는 재미가 상당하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충주역까지 2시간 50여 분이 걸린다. 지난해 12월 31일에 이천 부발역에서 충주역을 잇는 KTX-이음 중부내륙선이 개통했다.

“지현동 주민 모두 재생 사업에 적극적이에요. 그 덕분에 이렇게 예쁜 벽화 마을이 탄생했죠.”

그림마다 색채와 기법은 달라도 사과가 하나 이상 꼭 등장한다. 지현동은 저 유명한 충주 사과의 기원지다. 1912년 지현동에 심은 50그루는 사과 농사에 적합한 연평균 일조량과 기온, 토양 성분을 만나 무럭무럭 자랐다. 이를 기점으로 충주 곳곳에서 사과나무를 재배한 것이 오늘날 명성으로 이어졌다. 구석구석 벽화를 입혀 ‘사과나무 이야기길’로 거듭난 지현동은 그때를 기억하는 거대한 기념물이 되었다. 담장에서 사과를 따 한 입 베어 문 듯 맛깔난 산책을 즐기던 중 동행한 권연정 도시 재생 사업 활동가가 말했다. “쇠락한 동네였어요. 병원이나 약국 같은 시설이 멀어 도시 속 시골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오후 6시가 지나면 온통 깜깜해져 분위기가 꽤 소슬했죠.”

벽화로 둘러싸인 골목 어디쯤에서 걸음을 멈췄다. 공들여 매만진 흔적이 역력한 말끔한 거리가 얼마 전엔 소슬했다니, 좀처럼 믿기지 않았다. 지현동은 어떤 여정을 거친 걸까. “2018년부터 정부와 충북도, 충주시가 힘을 모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했어요. 사과나무를 콘셉트로 지현동을 단장하자는 계획이었죠.”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현동은 충주 구도심에 속한다. 충주천 변을 따라 작은 상권이 명맥을 유지했으나 그마저 나날이 기울었고 젊은 층은 계속 빠져나갔다. 재생 사업 전에 뜻 있는 작가들이 주민 협조를 얻어 작업한 벽화에서 착안해 대대적인 경관 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거리를 열다섯 구역으로 나눠 충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에게 배분했고, 작가들은 주민과 협업해 사과 이야기를 담장에 그렸다.

권연정 활동가는 시와 주민, 주민과 작가, 작가와 시의 소통을 돕고 재생 사업을 이끄는 코디네이터 중 하나다. 그는 우리와 마을을 걸으며 안내하고 설명하느라 숨차 하면서도 내내 환했다. 말끝마다 터지는 웃음소리가 정말 맑았다. “실은 저도 화가예요. 충주에서 나고 자라 현재는 지현동에서 살아요. 벽화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사업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는 코디네이터이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맞죠. 아쉽지 않았냐고요? 여기 벽화 보세요. 뿌듯해요.”

● 쇠락했던 충주 구도심 지현동이 2018년부터 실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화사한 벽화 마을이 되었다. 사과를 주제로 한 벽화가 마을 곳곳에 그려져 있다.
문의 043-856-9493

결국, 사람 이야기

벽화는 재생 사업의 하나였다.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공원을 건립했다. 갤러리 등을 운영할 지현문화플랫폼과 애플뮤지엄은 올여름 완공 예정이다. 마을은 결국 사람이 사는 곳, 무엇보다 주민이 중요했다. 권 활동가를 비롯한 사업 참여 인원은 주민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했다. 주민 대상 예술 강의와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을 열었으며, 홍보 콘텐츠를 함께 만들었다. 그러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재생의 진짜 의미를 알아 갔다.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세요. 마을 예술 행사 때는 직접 큐레이터가 되시고요. 뿌듯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하.” 말끝에서 터지는 웃음소리가 어김없이 맑게 지현동 골목으로 흐른다.

지속 가능한 삶, 스페이스선

도심에서 벗어나 북쪽으로 올라간다. 유유한 남한강과 새하얀 상고대에서 겨울 정취가 날아온다. 안개는 다 사라지지 않았다. 포근하게 젖어드는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문득, 살아 보고 싶다 생각했다. 여기서 산다면 우리도 풍경처럼 따듯해지리라는 예감. 충주와 강원도 원주의 경계에 위치한 스페이스선 엄수정 대표도 그랬다. 강을 좋아한 부모님이 물 따라 내려오다 발견한 소태면 언덕에선 남한강 전경이 펼쳐졌다. 부모님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 미국에서 살던 엄 대표도 2012년 소태면으로 들어왔다. 그때까지 도시에서만 생활한 데다 충주엔 아무 연고도 없었다.

"엄마가 텃밭 가꾸고 쑥 캐는 걸 좋아하셨어요. 엄마의 삶을 이해해 보기로 하고 자급자족했죠. 이곳 언덕은 원래 밤나무 군락이어서 계속 밤을 수확했고요. 오이, 가지, 고추, 감자도 씨를 심어 키웠어요. 그러다 깨달았죠."

심으면 자라는 자연의 이치가 신비로웠고 자연에 기댄 온갖 생명의 소중함은 가슴 절절히 다가왔다. 밭일하다 꿈틀거리는 애벌레를 보고는 나 혼자 편하자고 이런 생명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하여 먹먹해졌다. 그즈음 여름에는 미루는 습관 때문에 수확 시기를 놓친 감자가 몇 주간 장대비를 맞고 무더기로 썩는 일이 벌어졌다. 자연에 너무 미안했다. 더불어 사는 삶, 지속 가능한 삶이 무얼까 고민했다. 엄 대표는 결심하고 2014년 스페이스선을 설립했다.

남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충주 소태면 언덕에 위치한
스페이스선은 생태 공동체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며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보급한다.
문의 070-8835-4253

●●

“인간이 함부로 대하는 자연에 너무 미안했어요.
지속 가능한 삶을 고민하다 생태 공동체 스페이스선을 설립했죠.”

더불어 살아 자유로운 오늘

스페이스선은 생태 공동체다. 밤나무 군락이 둘러 감은 마당에서 소 두 마리, 양 세 마리, 말 두 마리가 한가로이 먹이를 먹고 있다. 닭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통에 몇 마리인지 세지 못했다. 낯선 우리를 힐끔하던 소가 느릿느릿 이쪽으로 온다. 부르지 않았는데 와서는 호기심 어린 게 분명한 눈망울을 내비친다. 손을 뻗자 머리를 내민다. 어떤 경계심도 보이지 않고, 그저 우리가 궁금하기만 한 것 같다. “반려동물이에요. 구제역 파동 때 죽은 생명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농장 이름을 ‘해원 동물 농장’으로 지었어요. 해원(解冤), 마음을 풀어 주고 싶었죠.”

네 명에서 출발한 공동체는 지금 엄 대표를 포함한 다섯 명과 동물, 소태면 언덕에 가득한 밤나무와 밭에서 나는 과일, 채소가 함께하는 진정한 생태 공동체가 되었다. 물론, 모여 살기만 하는 건 아니다. 플라스틱 섬유 대신에 경기도 여주에서 건강하게 기른 식물 수세미를 써 주방 수세미를 만들고, 분해되지 않는 합성세제는 하나도 넣지 않은 코코넛 오일 주방 비누를 제조해 판매한다. 제품 포장지 또한 재생 가능한 사탕수수 잔여물로 제작한 것이다. 비누망, 수건 등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하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이 조금이라도 전달되길 바라며 물을 사용하지 않는 수세식 화장실과 빗물 탱크를 개발하고 보급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으나 스페이스선은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자신의 삶을 세상에 소개해 왔다. “예전엔 늘 남과 나를 비교했어요. 위축되고 우울한 날이 많았죠. 지금은 주어진 일을 할 뿐이에요. 자유롭고 행복해요.”

스페이스선의 모토는 ‘We, Listen to the Earth(지구에게 듣다)’다. 잘 들어야 알게 되고, 알아야 이해하고, 이해하면 공존한다. 조금 전, 부르지 않았어도 소는 다가와 반짝반짝한 눈망울로 머리를 내밀었다.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라 믿는다. 소태면 작은 언덕에는 더불어 사는 곳, 스페이스선이 있다.

●
스페이스선이 위치한
소태면 언덕엔 밤나무가
군락을 이루었다.
엄수정 대표는
밤을 비롯해 오이, 고추 등을
키우며 자급자족한다.

여전히 안개 덮인 남한강 줄기 흐릿한 풍경 속에서, 분명 존재하지만 모습은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삶을 기억해 본다. 보이지 않는다고 정말 없을까.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는 단단한 삶들이 오늘도 이 땅을 산다. 저 안개 안에, 서로 손 내밀어 말하고 들으며 함께 걷는 이들이 존재한다. 나의 작은 노력이 쇠락한 마을을 재생하고 동물을 살리고, 마침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충주에 밤이 내린다. 탑평리 칠층석탑이 놓인 남한강 변 중앙탑공원에서 여행을 마무리한다. 어두운 밤. 충주는 다시 흐릿해지나 저 어둠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흐르는지, 이젠 알 것 같다. 눈을 감아도 선명한 삶들과 손잡고 한 걸음씩, 세상으로 걸어간다. k

●●

안개 덮인 흐릿한 풍경 속에서,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수많은 삶을 기억해 본다.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editor. 김규보 photographer. 신규철

바다 그리고 목포

유달산으로 날아오는 바다 풍경 속에서 날마다 새 이야기가 피어오르는 곳, 전남 목포의 여러 촬영지를 소개한다.

木浦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삼학도 파도 깊이 스며"들고 "유달산 바람도 영산강을 안"는데, "못 오는 임이면 이 마음도 보낼 것을". 저 문장에, 몇몇 단어에 얼마나 많은 이가 눈물 흘렸으며 그곳을 그리워하게 되었는지. 1935년 이난영이 처음 부른 뒤 숱하게 리메이크된 노래 '목포의 눈물' 가사처럼 목포는 다도해와 유달산, 항구의 다양한 사연을 품고 꿋꿋하게 흘러 왔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호남을 호령하는 항구도시이자 인근 산물이 모이는 집산지로서 사공의 뱃노래처럼 유장한 이야기를 쌓았다. 그렇게 이름부터 포구 내음 물씬한 목포에선 지금도 영산강 하구로 밀려드는 바다 풍경 속에 그리움으로 남을 이야기가 샘솟는다. 유달산과 다도해의 정취가 여전한 가운데 레트로 감성 가득한 건물과 골목, 목포대교 너머에서 번지는 석양이 새로운 기억을 선사해 주는 것이다.

이제 호남의 대표 관광도시가 된 목포는 KTX를 타고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먼저 목포역 근처 근대역사거리의 목포진, 목포근대역사관, 경동성당 등을 통해 옛일의 흔적을 보인다. 그중 목포근대역사관은 1900년 일본 영사관으로 지은 당시 모습을 간직한 외관이 묘한 감상을 끌어낸다. 해방 이후 시청 등으로 활용하다 2014년 역사관이 된 이곳에서 도시 역사를 살피고, 15분 정도 걸어 서산동 시화골목에 다다른다. 예쁘게 새긴 시와 그림을 감상하면서 다닥다닥 붙은 집들 사이 예스러운 골목을 오르는 어느 순간, 목포 바다 전경이 펼쳐진다. 바다와 섬의 서정이 날아드는 시화골목 언덕을 서성이는 동안에도 목포는 어김없이 다음 여정을 준비한다. 목포해상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본 짜릿한 광경, 맛깔스러운 세발낙지와 꽃게무침 등 미식의 향연, 목포대교를 비추는 낙조까지. 이렇게 다채롭기에 그리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목포를 주인공으로, 배경으로 선택했겠다. 오늘도 목포에선 떠나면 이내 그리워하게 될 이야기가 샘솟는다. ⓚ

The boat song of the ferryman wafts through the air, Samhakdo Island hides deep below the waves, the winds of Yudalsan Mountain embrace Yeongsangang River, my heart goes out to he who cannot return. These well-known lyrics, from Lee Nan-young's 1935 hit song *Tears of Mokpo*, capture the pain of farewell, and evoke a sense of nostalgia. Dadohae, Yudalsan Mountain, and the Port of Mokpo have witnessed the ups and downs of the nation. Today, Mokpo is recognized as a major port city. Just like the boat song of the ferryman, it has made a name for itself in the Honam region.

Those arriving at Mokpo Station on the KTX train can get a glimpse of the past at nearby attractions such as Mokpo Modern History Museum and Kyungdong Catholic Church. Established in 2014, the museum has retained its exterior from 1900, when it was built as a consulate for Japan. A 15-minute walk from the museum leads to Sihwa Alley in Seosan-dong. Once passing through the alley, lined densely with houses, the waters off Mokpo come into view. Even at this very moment, the port is bustling with ships preparing for their next voyages. The city offers a wealth of spectacular views, which you can enjoy aboard the Mokpo Marine Cable Car or around sunset near Mokpo Bridge. It is no wonder that it was selected as a filming location for many movies and dramas. Once you've had a taste of Mokpo, you will yearn to return for more. ⓚ

이곳에서 촬영했어요

영화 〈마차 타고 고래고래〉 @목포대교

목포 출신 친구 넷이 고등학생 시절 꿈꾸던 음악 축제 무대에 서기로 한다. 여기까진 별다르지 않으나, 이들은 거리 공연도 하기 위해 경기도 가평까지 걸어가자 무모한 결심을 한다. 조랑말로 마차를 끌면서 가평으로 출발한 이들 옆에 놓인 목포대교가 거대하다. 쉽지 않은 여정을 예고하는 이 장면처럼 넷은 어려움을 겪지만 굳건하게 꿈을 향해 전진한다.

Four friends from Mokpo decide to pursue their dream of performing in a music festival. They plan to travel on foot all the way to Gapyeong, Gyeonggi-do Province. Mokpo Bridge towers over them, as though symbolizing the many challenges ahead. Unfazed, the friends take a bold step forward.

드라마 〈호텔 델루나〉 @목포근대역사관

2019년 방영 당시 드라마 부문 콘텐츠 영향력 지수 1위를 차지하며 흥행한 〈호텔 델루나〉에서 목포근대역사관은 서사를 이끄는 중심이었다. 엘리트 호텔리어와 괴팍한 사장이 운영하는 호텔 외관을 바로 목포근대역사관에서 촬영한 것이다. 붉은 벽돌로 지은 근대 건축물은 죽은 자의 영혼이 묵는 호텔을 더없이 신비롭게 묘사해 주었다.

Hotel del Luna ranked first in the content influence index of the drama category when it aired in 2019. In the drama, Mokpo Modern History Museum was at the center of the narrative. The mysterious atmosphere of the hotel for dead souls was enhanced by the building's modern architecture and red bricks.

드라마 〈도도솔솔라라솔〉 @시화골목

부족할 것 없이 살다 갑작스레 집안이 몰락한 라라와 '알바력 만렙' 우준이 사랑을 키우는 로맨스 코미디의 주 무대가 시화골목이다. 이곳에 피아노 학원 라라랜드를 연 라라는 이런저런 상황을 겪어도 언제나 삶을 긍정하면서 쑥쑥 성장한다. 현재 라라랜드는 행복꽃집이라는 이름을 걸고 피아노 같은 촬영 소품을 전시해 여행객을 맞는다.

This television series is a romantic comedy set in Sihwa Alley, and focuses on the love between the pianist Rara and jack-of-all-trades Jun. Rara opens Lala Land to give piano lessons, and stays optimistic despite losing her fortune. Visitors will find Lala Land under the name of Haengbok Flower Shop, which has various props on display.

예능 프로그램 〈더 리슨: 바람이 분다〉 @목포 곳곳

가수 솔지, 김나영, 케이시, 승희, HYNN이 프로젝트 그룹 '더 리슨'을 결성해 목포에서 버스킹을 펼쳤다. 평화광장, 외달도, 시화골목 등 목포의 주요 여행지에서 연 공연은 매번 배경과 잘 어우러지며 이들의 음색을 더욱 감미롭게 만들었다. 목포해상케이블카를 타고 바다 풍경을 감상하거나 맛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장면 또한 공연만큼 흥미롭다.

The Listen, a group consisting of Solji, Kim Nayoung, Kassy, Seunghee, and HYNN, performs on the streets of Mokpo. The beautiful landscape of Oedaldo Island and other spots makes their music more captivating. Besides their street performances, it is fun to watch the members riding the Mokpo Marine Cable Car and enjoying local delicacies.

교육이 미래다

인류는 가르치고 배우며 내일로 나아간다. 졸업 시즌을 맞아 교육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전국의 교육박물관을 소개한다.

서울교육박물관 정독도서관 옆에 서울교육박물관이 자리한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이 글을 통해 알게 되었다면 하나 더 알아야 할 게 있다. 교육박물관으로서 소장 자료가 '역대급'으로 방대하다는 사실. 정독도서관, 중부교육박물관 등에 분산된 서울 지역 교육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 1995년 개관했다. 조선 시대 책상인 서안과 일제강점기 교과서 등 교육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1만 3540점에 달한다. 선비 옷 입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02-2011-5780
edumuseum.sen.go.kr

제주교육박물관 제주 지역 교육 역사를 탐라 시대부터 알아보는, 오직 제주이기에 가능한 교육박물관이다. 1전시실에선 모형으로 제작한 제주향교, 서당을 통해 탐라에서 해방 이전까지 교육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한다. 2·3전시실 역시 노천 천막 교실 디오라마와 제주 근현대 실물 교복처럼 모형과 실물 위주로 구성해 흥미롭다. 여기서 나아가 제주 놀이 문화와 언어 자료도 풍부하게 마련한, 제주의 역사와 풍속도 만나는 이색 여행지다.

064-720-9114
www.jjemuseum.go.kr

대구교육박물관 대동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영남 최초의 교육박물관답게 다양한 자료를 보유했다. 무엇보다 체험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가 신나게 놀기 좋다. 경북 안동 출신 교사 변우용 선생이 기증한 도자기 등 유물 5000여 점을 전시하며, 교육역사관과 대구교육관으로 나눠 각각 한반도와 대구의 교육에 대한 전시물을 선보인다. 고고학 체험, 디지털아쿠아리움 체험, 학교 체험VR 시설 등이 놀이공원에 온 듯 즐거운 경험을 선사한다.

053-231-1790
www.dge.go.kr

한밭교육박물관 한국전쟁 당시 총탄의 흔적이 고스란한 외관과 일제강점기 건축 양식을 보여 주는 내부부터 교육의 장으로 손색이 없다. 1938년 준공해 1980년대까지 대전삼성초등학교였던 한밭교육박물관은 과거 관학 교재인 〈사서오경〉을 비롯한 고서 등 많은 전시물을 갖췄다. 조선 시대 서당, 성균관 디오라마 모형을 설치했으며 독도 관련 자료를 수집해 별도 공간에서 전시한다. 붓글씨 쓰기와 사군자 치기 체험도 진행한다.

042-670-2200
www.hbem.or.kr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

아하! 발견과 공감

1부 새롭게 관찰해요

생각주머니가 커지는 곳,
마음을 나누는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부 다르게 생각해요

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실 입구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어린이박물관 CHILDREN'S MUSEUM

writer. 허형욱(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Treasure of Korea

생생한 아미타여래의 세계
–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경북 예천 용문사 대장전에 봉안된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그 뒤쪽에 배치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하 목각설법상)은 조선 시대인 1684년 단응을 비롯한 아홉 명의 승려 장인이 만들었다. 목각설법상은 서방 극락정토에서 아미타여래가 여덟 보살을 이끌고 가르침을 설파하면서, 죽은 자의 정토왕생을 돕는 광경을 표현한 작품인데 일반적인 탱화 대신 나무판을 조각해 화려하고 장엄한 정토 세계를 구현했다. 평면에 그려지는 불화를 조각으로 번안한 듯한 목각설법상은 비슷한 시기의 중국이나 일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선 후기 불교미술의 독창적 장르다. 당시 신자들에게는 금빛 찬란한 목각설법상이 오늘날 3D 입체 영상처럼 생생한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3월 6일까지 진행하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조선의 승려 장인〉에서 이 목각설법상을 만날 수 있다.

The Vivid World of Amitabha Buddha
– Wooden Amitabha Buddha Altarpiece

Created by Daneung and eight other artisan monks in 1684, the wooden Amitabha Buddha altarpiece is placed behind the statue of Buddha in Daejangjeon Hall of Yongmunsa Temple. It depicts how Amitabha Buddha provides guidance for the eight bodhisattvas in the Western Pure Land, whose grandeur is expressed through intricate carvings on a wooden board. The wooden altarpiece is a fine example of Korean Buddhist sculptu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elaborate work has an effect similar to 3D movies, leaving an imprint in the minds of viewers. It is among the featured exhibits of *Monk Artisans of the Joseon Dynasty*, which runs through March 6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02-2077-9000 www.museum.go.kr

낙화장 김영조가 작업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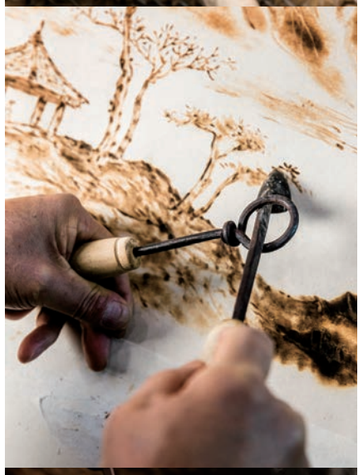
© 신규철

editor. 김규보 photographer. 신규철

烙畵

낙화장 김영조가
인두로 한지를 지진다.
수묵이 꽃송이 흩날리듯 곱게
한지를 물들인다.
그를 닮은 낙화가 고아하다.

한지에 핀 꽃 낙화



●

화로에 불이 붙길 기다리고,
인두가 달궈지길 기다린다.
낙화는 기다림이다.

빛이 사라져도 보인다. 처음엔 캄캄하기만 하다가, 서서히 선과 질감이 드러나고는 사물과 공간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순간이 온다. 가는 윤곽선 안팎이 짙고 옅은 층을 이루며 어둠에 명암을 들이는 것이다. 환하지 않아도 보이는 광경은 우리가 눈을 감지 않는다면, 보고자 한다면 점점 환해진다. 무엇인들 아니 그러하랴.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세상은 다가와 꽃이 되리니.

더 어둡거나 덜 어두운 농담(濃淡)만으로 빚은 광경을 매일 들여다보는 이가 있다. 그는 한지에서 수묵이 발화하길 기다린다. 달군 인두로 한지를 태워, 선과 질감이 꽃처럼 피어오르는 모습을 지켜본다. 낙화(落花)한 꽃송이들의 군무인 양 곱게 번지는 밤빛이 문득 짙고 옅은 층을 이룬다. 명암이 어리고 산과 나무가 솟는다. 김영조가 기다린 이 순간, 그가 그리는 낙화(烙畫)가 점점 환해진다.

“목숨을 걸고” 걸어온 길

김영조는 낙화장이다. 국가무형문화재 낙화는 나무나 종이를 인두로 지져서 그리는 전통 회화로, 조선 시대 서화 사전 <근역서화징>에 17세기 안동 장씨 부인이 낙화에 능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추사 김정희 또한 조선 낙화의 중흥조 박창규에게 ‘화화도인’이라는 호를 지어 주며 예술성을 칭송했다. 당시 대중에게 친숙했던 낙화는 일제강점기에 더욱 흥해 외국에 알려지기도 했으나 한때 맥이 끊어질 위기를 겪는다. 그리기 힘들고 익히기 어렵고, 그리하여 경지에 이르는 과정이 지난한 까닭이다. 계속 흐르는 시대가 오늘의 유행을 옛일로 옮기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자취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그라졌겠는지.

낙화는 어떤가. 안동 장씨 부인과 박창규에서 시작해 박복규, 박진호, 박계담 등으로 이어지는 전승 계보의 현재를 김영조가 지킨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렸고 “혼신을 다해” 익혔다. 50여 년간 외길을 걸어 낙화를 예술의 경지에 올렸다. 자신의 삶을 함축한 단어가 비장하건만 인두 끝에서 피어오르는 낙화는 고아하다. 극적으로 표현하자는 게 아니다. 그는 늘 그렇게, 그러한 그림을 그려 왔다.

●●

김영조가 달궈진
인두로 한지를 태운다.
선과 질감이 꽃처럼
피어오른다.
명암이 어리고,
산과 나무가 솟는다.

●●

사람이 날마다 맞닥뜨리는 선택의 순간 가운데 몇몇은 일생을 좌우한다. 삶을 송두리째 바꾸겠다 예감하는 순간도 존재하나, 대부분 불현듯 찾아와 선택하는 찰나에 잊힌다. 한참 지난 어느 날엔 걸어온 길을 새삼 헤아리면서, 그때는 행운이거나 불운 혹은 운명이지 않았겠느냐고 자문한다.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다. 선택한 이후 경로는 매번 자신이 결정해 나가니까. 걸어온 길을 헤아리는 지금 역시, 실은 미지의 저곳을 향해 걷는 중 아니겠는지.

낙화를 선택한 연유와 그 의미를 묻자 그는 대답하는 대신에 "나에게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웃집 하나 없는 충남 부여 첩첩산중에서 태어난 김영조는 자연과 벗하며 자랐다. 그림을 좋아해 거의 모든 시간 자연을 그렸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갑작스레 부친이 돌아가시고 먹고살 길이 막막해졌다. "한 줄짜리 신문광고를 봤어요.. '낙화, 수강생 모집'. 여기까지라면 그냥 넘어갔겠죠. '취업도 가능'. 바로 서울 청계천 2가 작업실을 찾아갔어요."

한여름, 자그마한 작업실 문을 열자 인두를 달구려 불을 땐 화로들에서 어마어마한 열기가 밀려왔다. 뜨거워진 시선에 인두 끝에서 작품이 탄생하는 장면이 들어왔다. 낙화는 더없이 아름다웠다. 반년 수강료를 한꺼번에 내고 작업실에서 숙식하며 훈련했다. 인두가 식기에 선풍기도 틀지 못하는 한증막 같은 공간에서 정말 좋아서, 너무 재미있어서 밤낮없이 그리기만 했다.

김영조는 답을 내지 않고 내리 이야기했다. 수강생이 줄어 작업실이 문을 닫자 뜻이 맞는 친구들과 사무실을 얻어 독학하다시피 공부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무실을 비운 뒤에는 함께하던 친구들과 전북 무주구천동 계곡에 가 낙화를 그려 팔았다. 20대 젊은이가 구슬땀 흘려 가며 작업하는 모습을 기특하게 여긴 많은 관광객이 낙화를 구매해 주었다. 이를 계기로 속리산, 내장산, 덕유산 등에서 작업실을 열었다. 기념품으로서 인기가 시들시들해진 1990년대 전까지 그는 낙화로 생계를 이었다. 그리고 그즈음 또 한 번 전환점을 넘는다. 낙화를 예술로 승화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인연을 만나면서다.

말 없는 말로 그리는 낙화

'취업도 가능'이라는 문구가 없었다면, 있더라도 그냥 지나쳤다면, 지나치지 않았더라도 작업실에 갈 용기가 없었다면 이 땅의 낙화는 어찌 되었을까. 김영조는 그날의 의미를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살아온 내력만 계속 말했다. 낙화를 빼고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는 그의 삶은 달군 인두처럼 치열하고 한지에 번지는 밤빛처럼 담백하다. 그런 그에게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미지의 저곳을 향해 걷는 과정일 뿐이니, 그날도 영원히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김영조는 그 사실을 몸짓으로 드러낸다. 낙화는 그리기 전 화로에 풀무질하면서 숯에 불이 붙길 기다려야 한다. 불이 붙은 뒤엔 인두를 넣고 달궈지길 기다린다. 인두를 들고 작업하는 시간은 고작 20초 남짓. 식은 인두를 다시 화로에 넣고 달궈지길 기다린다.

낙화를 그리는 그를 보았다. 단정하게 앉아 정성껏 움직였다. 허리는 꼿꼿했는데 작업을 마칠 때까지 그대로였다. 시선은 한 번도 한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순간을 기다렸고, 순간이 올 때 그렸다. 더할 것도, 덜 것도 없는 꽉 찬 움직임이 이어지던 중 한지에서 산과 나무가 솟아올랐다. 여백은 강물이 되어 흘렀다. 그의 몸짓이 한지에 서려 자연이 되는 광경을 지켜봤다. 김영조는 살아온 내력을 계속 말하고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1980년대 어느 날, 한국 서양화의 거장 장욱진 선생이 속리산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의 작업실을 발견했다. "요 옆에 막걸리 마시러 왔어. 이거 그림 재밌다. 나 좀 그려 봐."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앉아 선생을 그리기 시작했다. 절반 정도 진행했을까. 선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말했다. "됐어, 그만. 그림 좋다. 잘 그리네. 근데 그림은 완성하면 재미

●
'강산무진도'는 조선 후기 화가 이인문의 가로 8미터 넘는 대작 '강산무진도'를 낙화로 재현한 것이다.

●

충북 보은전통공예체험학교에서는
그가 작업해 온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43-542-3989

없어. 그리고 나는 요즘 돌멩이에다 매직으로도 그려. 도구나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으로 해도 다 예술이야."
이것이 또 한 번의 전환점이었다. 그는 낙화를 여행지 기념품 정도로 생각하던 시대를 살았다. 작업실 앞을 지나는 이가 저건 그림도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도 목격했다. 언제는 아팠겠고, 몇 번쯤 뒤를 돌아봤겠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 그런 말을 듣기도 했다는 데에서 김영조는 이야기를 끝냈다. 그러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다. 장욱진 선생을 만나고 그는 더 뜨거워졌다. 이인문의 '강산무진도', 안견의 '몽유도원도' 등 대작을 수백, 수천 번 모사했다. 연구를 거듭해 수파문, 쇄찰법, 낙묵법을 비롯한 열아홉 가지 낙화 기법을 체계화했다. 김영조는 2010년 충북무형문화재, 2018년 국가무형문화재 낙화장이 되었다.

색을 찾아서 영원히

자그마한 작업실에서 낙화를 처음 본 후 50여 년이 흘렀다. 오늘날 낙화는 모두가 인정하는 예술이다. 김영조는 일본, 중국, 이탈리아, 타이, 베트남에서 낙화를 전시하고 시연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한 교황에게 충북도청은 도를 대표하는 선물로 낙화를 건넸다. 세상은 변했지만 그는 달라진 게 없다. 50여 년 전 그날과 똑같이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시선은 한지에 고정한 채 순간을 기다린다. 정성껏 움직이는 인두 끝에서 어김없이 산과 나무가 솟아오른다. 한지에서 발화한 수묵이 꽃송이들이 추는 군무처럼 곱다. 문득 그가 기다리는 삶의 순간이 궁금했다. 귀로 들리는 이야기와 몸짓에서 느껴지는 이야기가 봄기운인 듯 따듯하게 고인 충북 보은전통공예체험학교 그의 작업실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헤어지기 전, 김영조는 마지막 이야기를 했다.
"제가 낙화에서 찾은 색은 만분의 일도 안 돼요. 인두를 누르는 속도와 깊이에 따라 색이 천변만화하니까요. 여전히 낙화의 색을 찾아가고 있어요." 김영조는 미지의 세상을 향해 걷는다. 그곳은 끝내 미지로 남을 것이지만, 아무렴 어떠한가. 다만 인두를 들고 묵묵히 그려 나간다. 김영조에게 이보다 귀한 순간은 없을 것이다.

●●

"제가 낙화에서 찾은
색은 만분의 일도
안 돼요. 인두를
누르는 속도와 깊이에
따라 색이 달라지니까요.
여전히 색을 찾고 있어요."

●●

'낙화 맹호도', 130×70cm, 한지에 낙화

단정하게 앉아 정성껏
움직인다. 작업을 마칠 때까지
허리가 꼿꼿하다. 더할 것도
덜어 낼 것도 없는 꽉 찬
움직임 속에서 어느새
산과 나무가 완성된다.

김영조 1950년 충남 부여 첩첩산중에서 태어나 자연을 그리며 자랐다. 일찍이 미술에 흥미와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꿈을 키워 가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전원 전창진 선생을 사사해 낙화를 공부했다. 생계를 위해 속리산, 내장산, 덕유산에 작업실을 열고 기념품을 제작하는 틈틈이 기법을 연마하던 중 우연히 장욱진 선생을 만나 본격적인 예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0년경 작업실을 모두 처분하고 대작을 모사하는 방식으로 낙화에 깊이를 더해 가는 한편, 기법을 체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2010년 충북무형문화재, 2018년 국가무형문화재 낙화장으로 지정됐다. 세계 각지에서 전시를 열고 낙화를 시연한 김영조는 현재 충북 보은전통공예체험학교에서 작업을 한다. 딸 김유진 씨가 낙화장 전수자로 함께 활동 중이다.

editor. 강은주 photographer. 이철

이젠도르프의 유려한 타임즈 샌드타이머, 필기구 명가 파브리아노의 5홀 샤프너, 팔로미노에서 재현한 블랙윙 리미티드 펜슬 모두 **더콘란샵** 나뭇결이 은은한 펜 레스트 1구 **쿠오뜨**

편지에게

이토록 내밀하고도 아름다운 편지의 물결 속에서 당신에게 열다섯 권의 '편지책'을 권합니다.

#첫 번째 편지

한 시대에 부쳐

플라톤의 편지를 흉내 내어 당신의 안녕을 기원해 봅니다. "그대에게, 잘 지내시길." 고대 그리스 사람은 편지의 첫 인사말로 '안녕하시길(chairein)'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이와는 조금 다른 '잘 지내시길(eu prattein)'이라는 말로 일관합니다. 심지어는 상대에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단히 논리적인 전략을 제시하죠. 일상의 인사말까지 철학의 지평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플라톤이 썼다고 추정하는 열세 편의 서간문 모음집 **〈편지들〉**에는 끊임없이 '지혜 사랑'을 지고의 가치로 여긴 한 철학자의 위대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용은 대체로 정치적 조언이지만, 그의 문장은 언제나 '왜 철학은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가'로 귀결됩니다. 철학이란 그에게 당면한 현실을 헤쳐 나가는 도구였으니까요.

훌륭한 사상가와 문인의 편지는 이렇듯 안부를 묻는 것에서 시작해 자신의 삶과 인생관을 정교하게 드러내기에 이릅니다. 제인 오스틴부터 수전 손택에 이르는 작가 94명이 쓴 편지 94통을 엮은 책 **〈작가의 편지〉**는 '편지란 무엇인가?'에 내어 놓는 가장 훌륭한 답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 대부분이 편지에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책 출간을 앞둔 초조함, 고료를 독촉하는 절실함, 동료 작가가 건필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 같은 것들 말입니다. 활자화한 내용과 함께 육필 편지 스캔본도 만날 수 있어 더 흥미롭습니다. 그 덕분에 실비아 플라스의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글씨체, 아이리스 머독의 장난스러운 스케치, 한때 시나리오 작가로 일한 스콧 피츠제럴드의 편지에 인쇄된 20세기 폭스사 로고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물론 남의 편지를 엿보는 것이 언제나 신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레지스탕스 사형수들의 마지막 편지〉**처럼, 죽음 앞에 선 사람이 남긴 메시지는 묵직하고도 밀도 높은 슬픔을 안깁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당에 맞서 레지스탕스로 투쟁하다 사형수로 투옥되었으나 편지 말미엔 "안녕히 계세요" "나를 기억해 줘" "이탈리아 만세" "키스, 키스, 키스"라고 쓴, 지극히 평범하고 놀라울 만큼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죽음을 눈앞에 둔 레지스탕스 사형수들의 최후에는 고통을 초월하는 숭고함이 느껴집니다. 한 사내가 쓴 문장 하나가 영 잊히질 않습니다. "내 마음은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내 몸은 내 믿음에게로."

이쯤에서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절실한 편지 중 하나를 소개해야겠습니다. 바로 김구, 김규식 선생이 당시 북조선노동당 위원장 김두봉과 북조선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에게 남북지도자회담을 요청하며 쓴 편지입니다. "하루라도 일즉 회음을 주소이다"라고 쓴 대목에서는 급박한 당시 상황이 절절하게 느껴지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이 편지의 목적은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로 읽는 해방과 점령〉**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일부터 1949년 가을까지 이어진 '해방 공간' 또는 '점령기'라 불리는 시공간 속에서 오간 편지와 그 속에서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채집했습니다. 점령군인 미군 사령관에게 우리 청년이 보내는 호소문부터 시인 주요한이 보내는 단호한 권고문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편지가 어두운 시대를 비춥니다.

사회와 풍속을 마치 기록사진처럼 선명하게 보여 주는 또 하나의 '편지책'이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 부안 김씨 우반종가에 전해 내려오는 간찰을 엮은 **〈옛 편지로 읽는 조선 사람의 감정〉**입니다. 주요 수신인과 발신인은 김홍원과 그의 아들 김명열, 그 손자 김수종입니다. 정치가 원두표가 김홍원에게 첩 중매를 요청한 메모에는 은밀한 욕망이, 평산부사 김명열이 병든 아내의 임종을 기다리느라 업무를 돌보지 못해 일터에 보낸 전보에는 슬픔이, 불온한 소문과 함께 "보신 즉시 불태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쓴 김수종의 비밀 서신에는 불안감이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다분히 'TMI'에 가까운 이야깃거리가 흘러넘치는 이 편지 속에서,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걸까요. 어쩐지 야릇한 일입니다.

〈편지들〉 플라톤 지음 | 강철웅 외 옮김 | 아카넷 펴냄 **〈작가의 편지〉** 마이클 버드, 올랜도 버드 지음 | 황종민 옮김 | 미술문화 펴냄
〈레지스탕스 사형수들의 마지막 편지〉 피에로 말베치, 조반니 피렐리 지음 | 임희연 옮김 | 혜다 펴냄
〈편지로 읽는 해방과 점령〉 정용욱 지음 | 민음사 펴냄 **〈옛 편지로 읽는 조선 사람의 감정〉** 전경목 지음 |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펴냄

#두 번째 편지

어떤 우정에게

어린 시절엔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 또래 아이만 친구 삼았습니다. 지금은 친구의 정의에 좀 더 너그러워졌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이 가까운 사람을 아울러 친구라고 여기니까요. 적절한 거리와 적당한 예의를 유지하면서 공감을 주고받는 느슨한 우리 우정, 현대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 아닐까요.

작가들의 왕복 서간 에세이 시리즈 '총총'의 첫 번째 책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에 쏟아진 출판계와 독자의 관심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런 관계를 좋아한다는 걸 짐작하게 됩니다. 이슬아, 남궁인 작가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슴없이 '쓰는 삶'의 애환을 나누고, 제각기 당면한 삶의 난제를 두고 입씨름을 합니다. 한 치의 양보 없는 둘의 서신은 독특한 서스펜스와 유머, 예기치 못한 감동을 안기죠. 여기 능란한 인터뷰어이기도 한 이슬아 작가가 체현하는 '밀당'의 미학을 좀 보세요. "활시위를 당겨보세요. 과녁은 저입니다"라며 "선빵을 날리"는 와중에도 상대에 대한 "깨끗한 존경"을 잃지 않는 경지가 놀랍습니다. 상대가 응급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한 남궁인 작가라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림"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용기를 내 자모를 맞추고 문장을 만들어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이죠. "계속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며 우리를 북돋우는 코로나 시대의 투사를 어찌 존경하지 않을까요.

삶과 운명에 대한 긴 대화를 나눈 한 쌍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을 쓴 미야노 마키코와 이소노 마호입니다. 유방암으로 시한부 삶 선고를 받은 철학자 미야노는 의료인류학을 공부한 학자이자 친구인 이소노와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둘은 서로를 '흩어진 영혼'이라 여기며 "만남과 죽음, 상실의 우연이 운명 속에 존재하게 될 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를 논합니다. 이들 사이에 응당 놓여야 할 부호는 그래서 '+'보다는 '×'입니다. 이 우정의 '곱하기'란 "상대와 다양하게 마주하고 자신이 파악한 상대에 '맞추어' 상대를 향해 '운동'하는 '행위'"죠. 20통에 이르는 모든 편지가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간다는 것, 매 순간 이 세계에 경이를 느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스레 되새겨 봅니다.

이러한 펜팔 우정 속에서 오가는 질문은 대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결론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차라리 툭 던져 놓는 **〈두 비교문학자의 편지〉**의 접근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근대문학과 미술을 연구하는 강정화, 미술과 문학을 공부한 뒤 미술 기관에서 일하는 기획자 신이연은 그들의 영원한 연구 대상인 문학과 미술의 경계에 대해 편지 형식을 빌려 대화를 나눕니다. 강정화가 "문학과 미술의 경계를 나눌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시서화일체론'을 떠올릴 때, 신이연은 그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우리는 여러 다름 속에서도 결국 같은 지향성을 공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중섭과 김춘수, 이불과 최승자를 경유해 "미술도 문학도 아닌 경계 어딘가"의 지점을 함께 상상하는 데 이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은 팬데믹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보노보노〉의 만화가 이가라시 미키오와 전방위 예술가 이랑은 각기 일본과 한국에 체류하며 이메일과 메신저로 긴 대화를 나누고, 점차 깊어 가는 우정을 음미합니다. 그렇게 주고받은 편지를 묶어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를 완성했습니다. 오죽하면 이가라시는 "이 연재라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라고 말했을까요. 먼저 이 흥미로운 '콜라보'를 제안한 건 이가라시였습니다. 교환 일기처럼 '교환 만화'를 주고받아 볼까 궁리했지만, 이랑은 그와 가급적 많은 대화를 효율적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편지 형식을 취하게 된 건 그래서죠. 두 예술가는 이별, 디지털 사회, 코로나19, 강렬하게 갖고 싶은 것 등 세상의 온갖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서로의 견해를 묻고 답합니다. 신이 되고 싶다는 이랑, 그리고 AI야말로 신에게 다가가는 것이라는 통찰을 보여 주는 이가라시의 모습을 보면 둘의 나이 차가 서른 살이란 사실을 자꾸 잊게 됩니다.

디지털은 더 많은 사람을 가벼우면서도 건강한 우정의 관계망에 포섭하고 있습니다. 레시피 상담소 '편지 내 식당'을 운영하는 요리사 하지희는 한 끼 제대로 만들고 싶다는 열망을 매개로 수많은 사람과 연결됐습니다. **〈잘 먹고 싶어서, 요리 편지〉**는 그가 '요알못' 독자들에게 선사한 28통의 맞춤형 요리 상담 편지를 보여 줍니다. 아침 시간이 부족한 이를 위해 '여름 채소 도시락'을, 부모님께 대접해도 손색없는 간단한 요리로 '전자레인지 라따뚜이'를 추천하는가 하면, 신혼살림을 차릴 친구에게 그레이터(강판)와 실리콘 주걱의 요긴함을 설파하고, 제철 채소 달력과 효율적인 조리대 구획을 제시합니다. 요리에 몹시 서툰 이에겐 메뉴와 레시피만이라도 수집해 볼 것을 권하며 "주방 한구석에 붙어 있는 작은 레시피 목록으로 안심이 된다면, 우린 이미 행복한 요리인이 된 거예요"라고 다독이기도 합니다. 참 맛있는 위로입니다.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 이슬아, 남궁인 지음 | 문학동네 펴냄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 미야노 마키코, 이소노 마호 지음 | 김영현 옮김 | 다다서재 펴냄 **〈두 비교문학자의 편지〉** 강정화, 신이연 지음 | yeondoo(연두) 펴냄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랑, 이가라시 미키오 지음 | 황국영 옮김 | 미디어창비 펴냄 **〈잘 먹고 싶어서, 요리 편지〉** 하지희 지음 | 다른 펴냄

기하학적인 조형미의 인센스 홀더, 슬랜트 오브 센트 **쿠오뜨**

작지만 짜임새가 견고한
콜렉토 박스 시리즈
#04 스리 솔트 북 오거나이저
콜렉토그라프

#세 번째 편지

사랑을 담아, 그대에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고대 그리스인의 이야기를 꺼내 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한 그들은 우리가 느끼는 가장 압도적인 감정인 사랑을 에로스, 아가페, 필리아 등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사랑의 유형 중 하나인 스토르게(storge)는 가족을 향한, 본능에 가까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에로스나 필리아가 상대의 매력이나 특징을 중시한다면, 스토르게는 그 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전혀 상관없이 사랑을 퍼붓는다는 뜻이죠. 스토르게는 화수분처럼 한없는 유대감과 친밀감을 자아냅니다.

시대의 지성 이어령 선생은 그 어떤 사랑의 유형보다 스토르게를 좋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의 "세속적 삶의 원동력"이었다고도 덧붙입니다. 고백의 대상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딸, 고 이민아 목사입니다. 그는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를 통해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였던 그는 딸이 실명 위기에 처했을 때 신의 목소리를 들었고, 딸의 죽음을 겪은 뒤에는 '생명과 죽음'을 글쓰기의 주요 테마로 삼았습니다. "네가 태어나던 날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문장은 그래서 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스토르게는 여느 사랑의 유형에 비해 훨씬 일방적이고 비대칭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우리 속담은 이러한 스토르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아픈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그 사랑의 기울기는 훨씬 더 커지겠지요. **〈디어 가브리엘〉**은 노르웨이의 저널리스트 할프단 프레이호브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 가브리엘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될 날을 상상하며 쓴 10통의 편지입니다. 아이를 '특별함'으로 포장하거나 과잉보호하지 않을뿐더러, "검지가 하나 없이 태어난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담담함은 오히려 예상치 못한 울림을 줍니다.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자신뿐"이니, "내일도 열심히 살아 보자"라는 그의 다독임을 오래도록 되새기고 싶어지는 이유입니다.

여기, 조금은 색다른 부자간 편지도 존재합니다. 예술 평론가이자 소설가인 존 버거와 화가인 아들 이브 버거가 주고받은 서신을 엮은 책 **〈어떤 그림〉**입니다. 두 예술가는 시대와 장르를 막론한 수많은 그림을 경유하며 '그림이란 무엇인가'를 사유합니다. 먼저 아버지 존은 에두아르 마네의 꽃 그림을 거론하며 작품 속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복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나간 걸까?"라는 의심으로 끝맺는 존의 편지에 아들 이브는 "아뇨, 아버지"라고 운을 떼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복원'은 정말로 그림이 짊어진 거대한 배낭 같아요"라며 공감을 표하죠. 그런가 하면 존이 수르바란의 그림을 통해 시각과 촉각을 설명할 때, 이브는 아버지의 행성처럼 넓고 둥근 등을 떠올립니다. 그 등을 어루만진 순간을 환기하며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드는 건 제 손"이라는 직관도 함께 보여 주죠. 이성과 감성이 교차하는, 오묘한 행복의 순간이 느껴집니다.

이렇듯 깊은 이해와 단단한 지지를 기반에 둔 가족 관계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극작가 박재성의 아내, 요시코의 편지〉**는 '비운의 천재 극작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곤 하는 통영 청년 박재성에게 그의 아내이자 문학적 지원자였던 요시코가 1946년 가을부터 1947년 여름까지 보낸 편지를 모은 책입니다. 둘은 광복 이후 한일 관계가 단절되면서 한동안 각자 나라에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통영의 남편을 그리며 요시코가 쓴 편지에는 애끓는 사랑과 혹독한 다그침이 교차합니다. 물론 그 모두는 예술가 남편을 향한 응원에서 비롯하지요. "부디 멋지고 훌륭한 작가가 되세요. 현재의 경험을 살려서 정열적인 감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영원한 빛을 향해 순수한 작가로서 있어 주세요." 아내의 절절한 문장은 결국 남편을 일본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박재성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 요시코와 영원히 이별합니다. 삶이란 왜 이리 얄궂을까요.

비정한 운명의 그림자는 1960년대부터 세계적인 수학자로 주목받던 한 사내에게도 드리웁니다. 1979년 당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약칭 '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선고가 내려진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 이야기인데요. 그는 1980년에 사형수로 투옥되었으나 전 세계 수학자들이 보낸 구명 서한으로 감형되었고, 1988년 가석방됩니다. 그 8년간 안재구 교수의 가족이 나눈 편지 모음 **〈봄을 기다리는 날들〉**엔 추억과 사랑은 물론이고 한 시대와 사회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백일장에서 쓴 시, 삼촌의 결혼 소식, 경주 수학여행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기도문과 책, 양말을 부치며 건강을 기원하지요. 흐르는 세월 속에서 그저 "밤하늘의 남쪽만 보는 게 허락될 뿐"인 아버지는 "겨레가 기뻐할 날을 기다리며 꿋꿋하게 살자"라고 말합니다. 별처럼 빛나고 총총한 이 가족의 문장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허물없이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향해 펜을 들고 싶어집니다. 이 긴긴 편지를 당신 앞에 올리는 까닭입니다. ⓚ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이어령 지음 | 열림원 펴냄 **〈디어 가브리엘〉** 할프단 프레이호브 지음 | 허형은 옮김 | 문학동네 펴냄
〈어떤 그림〉 존 버거, 이브 버거 지음 | 신해경 옮김 | 열화당 펴냄 **〈극작가 박재성의 아내, 요시코의 편지〉** 테라오 요시코 지음 | 김봉희 옮김 | 경진출판 펴냄 **〈봄을 기다리는 날들〉** 안재구 지음 | 안소영 엮음 | 창비 펴냄

소품 협찬 더콜라상 1522-0074 콜렉토그라프 070-8847-0222 쿠오뜨 070-4501-6060

editor. 김규보

전통과 고집의 버번위스키

와일드 터키

LAWRENCEBURG

미국 켄터키주 로렌스버그의 한 증류소가 1942년 와일드 터키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것이 버번위스키의 상징이 될 줄은.

버번 본연의 달짝지근한
향이 묵직하게 어리는
와일드 터키는
마니아가 손꼽는
대표 버번위스키다.

위스키는 버번과 버번이 아닌 것으로 나뉜다. 물론 생산지로 따져 스카치(스코틀랜드), 아이리시(아일랜드)도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버번을 사랑하는 많은 이가 버번만 마시고 음미하고 다시 찾는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쓴 대문호 마크 트웨인은 말했다. “천국에서 버번위스키를 마시지 못한다면,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 그리 매력적인, 오직 미국에서 생산하는 버번위스키 가운데 와일드 터키가 있다. ‘있다’라는 표현은 얼핏 존재한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여지나, 와일드 터키는 ‘있다’를 훌쩍 뛰어넘는 존재감을 가진다. 버팔로 트레이스, 메이커스 마크와 함께 한국에서 ‘버번 3대장’, 또는 사랑과 위트를 담아 ‘법원 3대장’으로 불리는 와일드 터키의 의미는 마니아에게 독보적이다.

버번은 무엇일까. 미국 켄터키의 한 마을에서 이름이 비롯됐다 알려졌는데, 사실 버번은 기원보다 주조 방식이 중요하다. 위스키 이름에 버번을 붙이기 위해선 미국 연방정부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중 옥수수를 51퍼센트 이상 함유한 원액을 쓰고, 매번 새 오크통에서 숙성하며, 어떤 첨가물도 가미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전술했듯,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 이것이 발아 보리가 주재료이면서 오크통을 재활용하는 스코틀랜드 스카치위스키와 구별되는 대목이다. 먹음직스럽도록 색소를 가미하는 다른 위스키와 달리 버번의 빛깔은 새 오크통에서 숙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드러난다. 옥수수를 증류하고 숙성할 때 올라오는 적당히 달금한 맛 또한 버번만의 특징으로 꼽힌다.

버번위스키의 새 시대를 열다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을 지키는 버번위스키 중에서도 와일드 터키는 특별하다. 1869년 미국 켄터키 로렌스버그에 세운 증류소에서 와일드 터키 브랜드가 탄생한 게 1942년. 그 무렵 어느 날 밤, 증류소 직원들이 둘러앉아 위스키를 마셨다. 어떤 이가 자신이 직접 만든 위스키를 마셔 보라 권했다. 입이 떡 벌어지는 맛이었다. 마침 그날 직원들은 야생 칠면조를 사냥했고, 놀랍도록 맛난 그 위스키는 와일드 터키(Wild Turkey)가 되었다.

버번은 1960년대 미국에서 보드카가 대유행하며 몰락 위기에 처한다. 생존이 급박한 버번 증류소들이 앞다퉈 보드카 모방 위스키를 출시하던 뒤숭숭한 시기, 오늘날 ‘살아 있는 전설’로 칭송받는 지미 러셀

세계적인 배우
매슈 매코너헤이가
와일드 터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부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LONGBRANCH

101 BOURBON

이 등장한다. 와일드 터키 증류소에 위스키 제조 책임자인 마스터 디스틸러로 부임한 그는 시류에 편승하는 대신, 오히려 버번 본연의 맛을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쏟는다. 그러곤 트렁크에 와일드 터키를 잔뜩 실은 차를 몰고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주류 판매장이 아무리 작더라도 일일이 들러 홍보했다. 유행이 어떻든 옥수수, 호밀, 맥아 비율을 모든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뚝심까지 보여 온 지미 러셀은 마니아들이 와일드 터키만큼 떠받드는 버번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가 그렇게 기울인 노력이 결국 오늘날 버번 전성기를 이끌었다. 켄터키 여러 증류소의 마스터 디스틸러들은 그를 '버번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40여 년 전, 와일드 터키 증류소에 합류해 또 한 명의 전설이 되어 가는 아들 에디 러셀이 아버지에게 헌정한 브랜드가 저 유명한 러셀스 리저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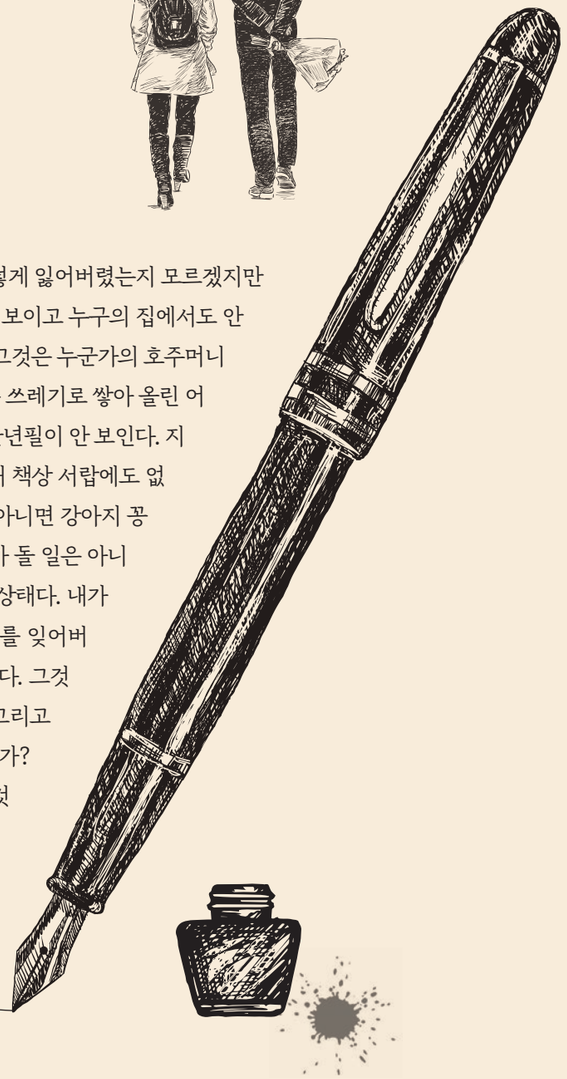
공동 마스터 디스틸러인 아버지 지미 러셀과 아들 에디 러셀이 와일드 터키의 맛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있다.

세계가 열광하는 와일드 터키의 맛

여전히 현역인 러셀 부자가 와일드 터키를 빚고 숙성하는 곳, 로렌스버그에서 2017년 유쾌한 이벤트가 열렸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배우 매슈 매코너헤이(매튜 맥커너히)가 추수감사절에 집집이 깜짝 방문해 칠면조 요리를 선물한 것이다. 세계적인 배우가 도대체 왜 로렌스버그에 와서 하필 칠면조 요리를 배달한 걸까. 그는 와일드 터키의 홍보 모델이다. 와일드 터키를 너무 사랑해 단순히 홍보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제품 개발에도 참여한다. 매슈 매코너헤이는 '와일드 터키 덕후' 중 하나일 뿐이다. 작가 스티븐 킹, 헌터 톰슨,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가 곁에 두고 마시며, 얼마나 좋은지 작품에서도 종종 와일드 터키를 언급한다. 버번 본연의 달금한 바닐라 향이 묵직하게 어리는 와일드 터키를 마시고 음미한다. 천국에 와일드 터키가 없다면, 되도록 오래 살고 싶다. ⓚ

만년필

김언



선물 받은 만년필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인다. 방에서도 안 보이고 집에서도 안 보이고 누구의 집에서도 안 보이는 것일까? 그것은 길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누군가의 호주머니 속에 있거나 침대 밑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쓰레기로 쌓아 올린 어떤 산더미에 묻혀 있는 것일까? 선물 받은 만년필이 안 보인다. 지금까지는 잃어버린 것이 분명한 만년필은 내 책상 서랍에도 없다. 대여섯 개는 되는 내 가방 안에도 없다. 아니면 강아지 꽁지가 물고 가서 어디 감춰 둔 것일까? 꼭지가 돌 일은 아니지만 선물 받은 만년필은 지금까지 분실된 상태다. 내가 잃어버린 상태다. 내가 그것을 그것의 존재를 잊어버린다 해도 변함없는 상태로 그것은 안 보인다. 그것은 분해된 것일까? 그것은 상부와 하부와 그리고 펜촉으로 분리된 상태일까? 아무려면 어떤가? 그것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상태로 그것은 있다. 어딘가에 있다. 없다면 없는 대로 생각나는 장소가 더 있을 것이다. 거기가 어딜까? 만년필이 안 보이는 장소는 많다. 어디 한 군데가 아니라는 것만 안다. 그곳이 어딜까?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말과 만년필

사라지고 우리 곁을 떠난 것들은 어디에서 떠다닐까. 없어진 것들을 떠올린다.

김언은 본명이 아니다. 나는 작가로 데뷔하기 전에도 그를 알았는데, 늘 '언'이 형이라고 불렀다. 본명을 여러 번 들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고 관심도 없다. '언'이 형이라고 부르는 게 좋기 때문이다. 필명이 '언'인 시인. 나는 막연히 '언'이 '말씀'을 뜻하는 '言'이 아닐까 추정하는 것이다. 맞는지 틀린지, 역시 내가 알 바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듭 언이 형, 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름이 언인 시인 형.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언이 형이 3개월 동안 미국에 갔다. 오하이오였는지 아이오하였나, 그쪽에 있는 대학에서 문학 전공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고, 창작 활동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역시 자세히 기억을 떠올리면 알겠지만 이 글에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생략. 그때 나는 언이 형을 만나러 갔다.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휴가를 내고 비행기를 타고 굳이 갔다. 뉴욕도 LA도 아닌, 오하이오인가 아이오하를. 좋아하는 형이 있다고 하니 가고 싶었을까? 이유다운 이유가 못 되지만(그러게 왜 그랬나 몰라).

하루는 그쪽 문학 전공 학생들과 김언 시인의 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특강이 열렸다. 60분 정도였는데 학생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고, 언이 형은 대답을 잘 못했다. 통역해 주는 분이 계셨지만, 아무래도 영어와 한국어가 오가는 대화니까 어떻게 말해도 충분하지 않았겠지. 그때 나는 손을 들고 알려 주고 싶었다. 저 시인 이름이 '언'이고, 아시아에서 '언'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러니 저 시인에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라고. 내가 판단하기에 대부분의 질문은 그저 저 이름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대답이 될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손을 들지 못했다. '샤이'했던 것이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시로 말하고 있는 거니까.

김언의 시 '만년필'은 만년필에 대한 시가 아니다. 만년필은 사라졌으니까. 하지만 또한 만년필에 대한 시이기도 하다. 사라진 것이 만년필이며, 어딘가에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는 것도 만년필이니까. 그리고 이름이 '언'인 시인에게 만년필은 특별한 물건일 테니까. 나는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만년필'을 내 맘대로 두 가지로 바꾸었다. 하나는 폭탄. 영화를 보면, 악당이 폭탄을 훔쳐 가고 착한 편이 그 폭탄을 찾는다. 악당은 폭탄으로 나쁜 짓을 할 게 분명하다. 그러니 착한 편은

폭탄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상상하고 추적해야 한다. 당연히 김언이 이런 걸 떠올리며 시를 쓰진 않았을 것이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음. 만년필은 내 것이었으나 나에게서 사라진 것이니까. 마음. 워낙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결국 시라는 게 '마음'의 흐름을 적는 것이고, 내가 늘 잊고 후회하는 것이기도 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로 갈까? 헤어지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를 떠난 것들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그것이 만년필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살면서 만년필을 선물 받은 적도 있는 것 같다. 어디 갔지? 이 정도 사용했으면 됐어, 하고 버린 기억이 없으니 잃어버린 거겠지? 발과 감정이 생겨서 가 버린 것 같네. 어딘가에서 또 무슨 '말씀'을 쓰고 있을까? 어릴 때 손에 쥐고 올려다보던 풍선이 어디로 갔는지도 궁금하다. 엄마가 사준 운동화도 지금 나에게 없다. 잃어버린 것, 잃어버리고 인식 못 하는 것이 많구나. 야, 너네 다 어디 갔니? 미안해, 이제야 기억나서. 아, 쓸쓸해지네.

그러나 이 시는 멀뚱히 앉아 쓸쓸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잃어버린 것이 만년필이다! 만년필은 정말 폭탄이거나 그보다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만년필이 쓰게 될 말들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나에겐, 마음이 만년필 같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게 된다. 후회하지 말아야 할 텐데, 내 경우는, 그렇게 떠나보낸 사람을 다시 그리워했다. 돌아오지 않았다. 잃고 싶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잃었다. 그러나 교훈을 전달하는 게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니 여기까지.

언이 형은 왜 만년필을 잃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을까? 그것 말고도 많을 텐데. 기억하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이 질문의 답 역시 이름 '언'에 담겨 있다. 이름에 걸맞게 모국어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김언 시인…. 뭐 이런 평가가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학상 심사위원들이 쓸 말이고. 가끔 전화를 걸어 맥락 없이 형의 이름을 부른다. 나도 시인인데 내 이름을 언이라고 짓지 않았고 만년필의 행방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서. 부러움과 애정과 존경을 담아. 그리고 오늘은 새삼, 사라진 것을 떠올린다. 기억나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낸다. 그것은 어떤 세계에서 자라고 있을까.

골든 타임을 사수한 열차의 두 파수꾼

생사의 기로에 선 승객을 구한 두 영웅을 소개한다.
익산열차승무사업소의 여객전무 김재익, 노귀식이 주인공이다.

삶은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위협으로 가득하다. 시시때때로 드리우는 운명의 그림자 아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한국철도 전북본부 익산열차승무사업소 소속 여객전무 김재익(사진 왼쪽)과 노귀식은 열차 객실 바닥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승객을 구했다. 이들은 일상적인 훈련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도 놀라우리만치 평정심을 유지하고, 몸으로 익힌 응급처치를 완벽하게 해냈다. 두 여객전무가 보여 준 의연한 행동 앞에서 새삼스레 범사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두 분을 이렇게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열차 내에서 두 분이 맡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여객전무는 열차 내 서비스를 총괄하는 승무원입니다. 승차권 확인부터 객실 질서 유지까지, 달리는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봐도 좋겠네요. 열차가 정차하면 승강장에 내려 승객이 안전하게 내리고 타는 모습을 확인하고, 다시 출발할 때 승강문 개폐 여부를 판단해 기관사에게 출발 신호를 보내는 것도 여객전무의 일이랍니다.

여느 때처럼 일과 시간을 보내다가 응급 상황을 맞닥뜨리셨을 텐데요, 당시 상황이 궁금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밤 9시 1분, 여수엑스포역을 출발해 용산으로 가는 무궁화호 1512 열차에 탑승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열차가 연산역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을 앞둔 무렵, 50대 남성 승객이 3호차 객실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승객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두 여객전무는 즉시 객실로 이동해 승객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했고,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어요. 동시에 최대한 신속하게 119에 신고했으며, 다음 정차 역인 계룡역에 상황을 알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승객의 상태가 호전되기까지 과정은 어땠나요? 자동심장충격기를 동원해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승객의 의식이 희미하게나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회복 중인 승객을 부축해 역 앞에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에 인계했지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된 승객은 병원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무사히 귀가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승무원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이토록 기민하게 열차 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응급조치 요령이 몸에 밸 만큼 훈련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모든 승무원은 매달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필요한 행동을 익힙니다. 이번 응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취급 지침은 여객전무 실무 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이지요. 열차 내에서는 출발 전 자동심장충격기의 성능과 비상용품 구동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오늘도 열차가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여객전무로서 승객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재빠르게 승무원에게 알려 주시고, 응급조치로 인한 열차 지연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신 승객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상시 받은 안전 교육과 비상 대응 훈련이 응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승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일하는 여객전무로서 자부심을 갖고, 승객 여러분을 대하는 모든 행동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우리 승무원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늘 행복한 기차 여행 즐기시기 바랍니다.

+ 열차 밖에서 생명을 구한 철도원

한국철도 수원시설사업소 고명진 선임장 2021년 12월, 경기도 화성시 한 편의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한국철도 수원시설사업소 고명진 선임장과 그의 친구 김석상 씨가 심폐소생술로 구조했다. 두 사람은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로 활동 중이며, 고명진 선임장은 심장마비를 일으킨 80대 어르신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전력이 있다.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Book

신간

〈오늘도 우울증을 검색한 나에게〉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에는 우울증 정보도 홍수를 이룬다. 사람들은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해 보고 어느 정도 우울해야 병원에 가는지, 약을 먹었다가 못 끊진 않을지, 감기가 낫듯 우울증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지 검색한다. 인터넷이 명확한 답을 내려줄 리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풍부한 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지닌 정신과 전문의 세 명이 '책 클리닉'을 열었다. 병원 문을 두드리기 어려워하는 이에게 믿을 만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다. 우울증 증상과 특징, 종류와 치료법을 정리한 책이 차분하게 말을 건넨다.

김한준 오진승 이재병 지음 **카시오페아** 펴냄

〈최소한의 선의〉

'글 쓰는 판사' 문유석이 2020년, 23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작가로서 책을 냈다. 30만 독자가 읽은 〈개인주의자 선언〉은 물론이고 소설 〈미스 함무라비〉를 집필해 화제를 모은 문학청년 출신 판사였던 그가 법치주의라는 타협의 기술을 말한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과 존 롤스의 〈정의론〉, 인터넷 댓글과 헌법을 넘나드는 글은 독서의 즐거움과 지적 쾌감, 사유하는 시간을 동시에 선사한다. **문유석** 지음 **문학동네** 펴냄

〈이미지로 글쓰기〉

말하기는 괜찮은데, 글을 쓰려면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이가 많다. 영상 시대라지만 글은 여전히 콘텐츠의 기본이다. 미술사를 전공한 저자는 〈그림에, 마음을 놓다〉를 비롯해 다양한 책과 칼럼에서 이미지를 소재로 사용한 글쓰기를 해 왔다. 주변에서 이미지를 포착하고 글에 끌어오기, 의미를 도출하고 글을 구성하기, 전달력 있게 표현하기 등 그만의 글쓰기 노하우를 한 권에 담았다.

이주은 지음 **자유의 길** 펴냄

〈연희동 우현이 걷다〉

부부는 우연히 좌회전한 길에서 만난 궁동산 풍광에 반해 서울 연희동에 정착한 뒤 24절기 변화를 몸으로 느끼면서 하염없이 동네를 걸어 다녔다. 소소한 동네 산책은 연희동 1번지 찾기, 작은 집 찾기, 진짜 연희궁터 찾기 등으로 이어지며 총거리 303킬로미터, 40만 6000보에 이르는 대탐사 프로젝트가 되었다. 평범하고도 특별한 연희동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우대성 현영미 지음 **픽셀하우스** 펴냄

Exhibit

전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박수근: 봄을 기다리는 나목〉

한국 현대미술의 거목 박수근의 삶과 예술을 만난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 이래 처음 마련한 박수근 개인전이니만큼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과 공동 선별한 작품과 자료로 작가의 예술 세계를 총망라했다. 유화에서 수채화, 드로잉, 삽화까지 작품 174점을 공개하고 화집과 스크랩북, 엽서 등 아카이브 100여 점을 선보여 역대 최대 규모 박수근 전시로 손꼽힌다. '독학' '전후 화단' '서민' '한국미'를 키워드로 밀레같이 훌륭한 화가가 되려 한 10대 시절에서 1950~1960년대 서민의 궁핍한 생활을 따듯한 시선으로 들여다본 말년에 이르는 삶을 시기별 작품을 통해 살핀다.

기간 3월 1일까지
문의 02-2022-0600(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박노해 사진전: 내 작은 방〉

박노해 시인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아프가니스탄 국경 마을 엄마 잃은 소녀의 집, 계엄령 내린 카슈미르 전기 끊긴 남매의 집, 귀향을 꿈꾸는 쿠르드 난민 가족의 단칸방 등 세계 곳곳의 집을 찾아 그곳에 어린 이야기를 사진에 담아 왔다. 세상이 사나워도 묵묵히 살아 내는 사람들을 흑백 필름 카메라로 포착한 사진 37점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묻는다. **기간** 9월 18일까지
문의 02-379-1975(서울 라 카페 갤러리)

〈경이로운 전환〉

주식과 가상 화폐로 대표되는 투자 열풍이 거세지는 반면, 노동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예술 작품으로 드러낸다. 강민기, 강태훈 등 작가 8명이 비디오, 설치, 회화 총 13점을 출품한 전시에서 싱가포르 출신 호루이안은 고속열차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동전을 영상으로 보여 주며 화폐에 대한 시대의 맹목적인 믿음을 비판한다. **기간** 3월 20일까지
문의 051-220-7400(부산현대미술관)

〈SPACE-가상과 실재〉

김강용, 김성복 등 현대미술 작가 6명이 가상과 실재 공간의 융합으로 구현한 이미지를 평면과 입체 설치 미디어 작품으로 조합해, 도시 공간에 길들여진 감성을 자극하고 익숙하다 여긴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이끈다. 꽃과 달빛, 책 같은 일상의 풍경과 사물을 비현실적인 구도로 배치하거나 몽환적인 영상으로 담은 작품이 잠든 감각을 일깨운다. **기간** 3월 27일까지 **문의** 033-463-4081(공립인제내설악미술관)

Show

공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남오아시스〉

소리꾼 이희문이 돌아왔다. 경기민요를 모티프로 장르 간 융합을 시도하며 한국 예술계 변방에 놓인 전통 성악을 이어 온 그는 기악, 무용 등 여러 분야의 예술가와 협업하는 창작 집단 이희문 컴퍼니의 대표이기도 하다. 〈강남오아시스〉는 이희문 컴퍼니의 올해 첫 작품이다. 이희문은 서울 강남이라는 한 시대이자 공간을 온몸으로 통과한 예술가로서 견고한 음악 세계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에 선보일 새로운 작창과 선율에는 잼 연주 전문 밴드 까데호가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음악을 더해 독특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기간 2월 18일~20일 **장소** 서울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문의 02-577-0713

〈가족이란 이름의 부족〉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폐쇄적인 사회다. 청각 장애인인 막내아들에게 수어를 가르치지 않는 한 유대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의 소통 불가능성을 드러낸 니나 레인의 희곡 〈부족(Tribes)〉이 무대에 오른다. 2014년 동명의 제목으로 초연한 이후 8년 만이다. 남명렬, 오대석, 정재은, 김정영 등 배우들의 힘 있는 연기가 기대를 모은다.

기간 2월 27일까지
장소 서울 국립정동극장 **문의** 1577-3363

〈장화 신은 고양이 비긴즈〉

고양이가 왜 장화를 신게 됐을까? 고양이는 왜 주인을 돕는 걸까? 랩을 하고 춤을 추며 좌중을 압도하는 고양이가 동화 이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러시아 상연 당시 매회 극장을 가득 메우고, 뮤지컬 대상 3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던 이 작품은 프랑스 샤를 페로의 원작을 러시아의 대표적 극작가인 에브게니 프리드만이 각색한 것이다.

기간 2월 27일까지 **장소**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문의** 02-588-7708

〈댄싱 바흐-임현정의 바흐 렉처 콘서트〉

피아니스트 임현정이 전국을 순회하며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새로운 면모를 알리고 있다. 때로는 말썽을 일으키고, 열렬히 사랑하며, 매 순간 아름다움에 목말라한 예술가 바흐의 매력적인 이면을 보여 주기 위해 그는 바흐 평균율의 프렐류드와 푸가를 신나는 춤곡으로 변주한다.

일시 2월 5일 오후 4시 **장소** 전북 익산 예술의전당 **문의** 031-5176-2516

안티에이징의 새 이름, 프리쥬비네이션

노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알아봤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의학적 트렌드가 항노화에서 노화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화가 시작된 피부나 신체 등에 행하는 리쥬비네이션(재생·회춘술)이 그동안 대세였다면, 이제는 프리쥬비네이션(예방 목적 재생술)이 떠오르는 것. 이와 관련 줄기세포 안티에이징·항노화 치료 전문가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의 도움말로 프리쥬비네이션 치료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조찬호 원장은 "프리쥬비네이션은 일종의 노화 예방 주사로 여기면 이해하기 쉽다"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전에는 얼굴의 주름, 두드러지는 피부 처짐, 떨어진 체력, 약해진 면역력 등이 눈에 보이고 나서야 의학적 처치에 나섰다면, 최근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미리 케어하는 데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했다.

물론, 기존 안티에이징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노화 징후를 지우는 것보다 이 같은 노화 증상이 나타나기 전 건강하고 젊은 체력과 피부를 오래 유지하는 치료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예방 목적 치료는 노화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최대한 미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 조 원장은 "선제적 안티에이징 치료는 나이든 얼굴이나 체력을 되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현재 젊고 건강한 컨디션과 외모를 오래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선제적 줄기세포 치료

프리쥬비네이션 치료를 반복할 경우 노화를 지속적으로 미룰 수 있다. 이는 피부 노화는 물론 노화로 인한 컨디션 저하에도 적용된다. 가령 체력이 고갈되고 신진대사가 떨어질 무렵, 전신 줄기세포 정맥 주사를 맞는 게 여기에 속한다. 실제로 프리쥬비네이션 치료에서 주목할 만한 게 줄기세포 치료다. 청담셀의원은 '줄기세포 헬스케어 디자인'을 표방하며 개인 상황에 맞는 치료를 처방한다. 노화 요인을 분석하고, 젊었을 때의 활력 넘치는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돕는 게 목표다. 주력 치료는 전신 줄기세포 정맥 주사인 청셀 프로그램이다. 성체 줄기세포를 채취해 배양하지 않고 링거로 주입하면 재생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단백질 항상성 유지로 인한 체력 증진, 항산화 효과, 미토콘드리아 기능 복구, 텔로미어 복구 등으로 체력을 오래 이어간다.

타깃 부위에 줄기세포를 집중 투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성기능을 건강하게 증진·유지하도록 돕는 성셀, 피부 탄력 유지 및 주름 예방을 돕는 미셀, 두피에 직접 줄기세포를 주입해 탈모를 예방하는 모셀, 약해지기 쉬운 인대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활셀 등이 그것이다. 상황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병행해 취약한 점을 미리 알고 노화에 대비한다. 조찬호 원장은 "선제적 안티에이징 치료는 노화를 영원히 막아 주는 마법은 아니다"라며 "다만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미뤄, 노화 진행시기를 늦추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치의와 꾸준하게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시술하며 스스로 생활습관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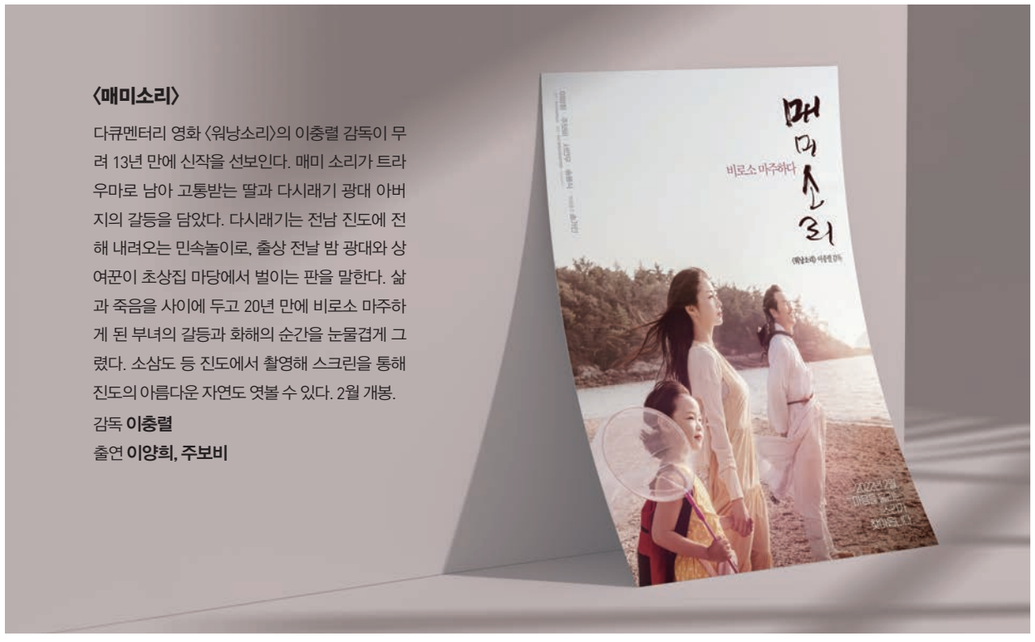
최근에는 이런 트렌드에 따라 노화가 나타나기 전에 조치하는 20~30대도 적잖다. 이들은 대개 피부·탈모 등 외적 노화 예방에 관심이 많다. 현재보다 탄탄한 얼굴 라인을 위해 선제적 안티에이징 치료에 나서는 것. 요즘에는 '가성비 시술'보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포미(ForME)족'이 증가하며 효율성이 높은 고가 치료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줄기세포를 활용한 미용 치료를 고려하는 젊은이가 증가세다. 조찬호 원장은 "미래 의학은 발병 뒤 치료하기보다 병을 막는 데 집중한다"라며 "건강한 몸과 외모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는 게 건강과 경제적 면에서 모두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담셀의원 02-514-2225

Movie

영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미소리〉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의 이충렬 감독이 무려 13년 만에 신작을 선보인다. 매미 소리가 트라우마로 남아 고통받는 딸과 다시래기 광대 아버지의 갈등을 담았다. 다시래기는 전남 진도에 전해 내려오는 민속놀이로, 출상 전날 밤 광대와 상여꾼이 초상집 마당에서 벌이는 판을 말한다. 삶과 죽음을 사이에 두고 20년 만에 비로소 마주하게 된 부녀의 갈등과 화해의 순간을 눈물겹게 그렸다. 소삼도 등 진도에서 촬영해 스크린을 통해 진도의 아름다운 자연도 엿볼 수 있다. 2월 개봉.

감독 **이충렬**
출연 **이양희, 주보비**

〈나일강의 죽음〉

2017년에 개봉한 〈오리엔트 특급 살인〉 후속편으로 명탐정 에르큘 푸아로의 맹활약상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나일강의 호화로운 여객선에서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여성이 총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모든 탑승객이 용의자인 상황, 한정된 공간에서 범인을 밝히기 위한 푸아로의 추리가 숨 막히도록 이어진다. 2월 9일 개봉.

감독 **케네스 브래너** 출연 **케네스 브래너, 갤 가돗**

〈보드랍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순악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전쟁 이후에도 삶은 또 다른 전쟁이었다. 미군 기지촌에서 물건을 팔고,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식모살이도 했다. 활동가 인터뷰, 아카이브 영상, 애니메이션, 증언 낭독으로 김순악의 인생을 다큐멘터리로 재구성했다. 2010년 세상을 떠난 그가 없는 자리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상을 받았다. 2월 개봉. 감독 **박문칠** 출연 **김순악**

〈애니멀 체인지〉

〈쿵푸 팬더 3〉 제작진이 재미있는 상상력과 수준 높은 그래픽으로 판타지 속 세계를 재현한다. 팔찌의 버튼만 누르면 사자·독수리·악어 등 원하는 동물로 변신할 수 있는 미래가 배경이다. 주인공 빅보이와 친구들은 꿈의 놀이동산 와일드 랜드에서 큰 우승 상금이 걸린 특별 이벤트 '애니멀 체인지 모험'에 참가한다. 유쾌한 웃음과 짜릿한 모험이 관객을 기다린다. 2월 개봉.

감독 **레온 딩** 목소리 출연 **정성원, 김용**

Panasonic

온기 어린 손길로, 파나소닉 리얼 프로 EP-MAK1

추위에 잔뜩 웅크린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 줄 안마의자가 출시됐다. 파나소닉 리얼 프로 EP-MAK1과 함께 안온한 휴식을 제안한다.

체감온도가 영하를 기록하고 있는 요즘, 찬 바람을 맞고 집에 돌아올 때면 온몸이 결리고 쑤신다. 추위에 한껏 긴장한 허리와 어깨 근육이 맥을 못 추고 굳어지기 때문이다.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직장인과 학생, 종일 서서 집안일을 하는 주부처럼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겐 이 겨울의 근육통이 더 혹독하게 느껴지곤 한다. 부드러운 이완과 휴식의 시간이 필요할 때, 파나소닉의 기술력이 집약된 '리얼 프로 EP-MAK1'은 훌륭한 처방이 되어 준다.

'휴식 내비게이션'이라는 새로운 발상

마사지 전문가의 손놀림, 압력, 패턴을 분석 및 재현한 리얼 프로 EP-MAK1은 마사지 볼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지해 사용자의 키와 신체 유형에 최적화된 맞춤형 안마를 제공한다. 특히 통증의 근원에 효과적으로 접근해 지압, 두드리기, 스트레칭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터치 패널 컨트롤러를 탑재한 덕에 취향에 맞는 마사지 메뉴를 손쉽게 탐색하고, 원하는 부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최대 세 명의 사용자가 세 부위를 조합해 설정한 후 등록하면 온 가족이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전문가의 손놀림과 온기를 재현하다

온열 마사지 볼을 탑재한 리얼 프로 EP-MAK1은 사람이 마사지하는 것 같은 손놀림과 온기를 재현한다. 일체형으로 설계한 마사지 볼과 히터 디스크의 커버가 따뜻하게 데워져 경직된 근육에 편안함과 온열감을 전하기 때문이다. 가장 눈여겨볼 만한 마사지 메뉴는 회전 지압이다. 전문 세러피스트가 엄지손가락으로 환부를 지그시 누르듯 약 10밀리미터 간격으로 마사지 볼이 회전하며 압력을 섬세하게 가하는 기능이다. 이는 여느 안마의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파나소닉만의 독창적 기술이다. 리조트의 스파 베드가 연상되는 유려한 만듦새도 인상적이다. 베이지, 아이보리, 블랙 등 세 가지 색상으로 선보여 우리 집 인테리어를 세련되게 연출할 수도 있다.

문의 02-533-8452

editor. 남혜림

Puzzle

*다음 역에서 타는 친구도 도전할 수 있게 눈으로만 찾아봐 주세요.

자료 협조 한빛에듀

〈찾아도 찾아도 끝판왕–1000개 숨은그림찾기: 우리 동네〉

다양한 생활 속 모습에서 숨은 그림을 찾는다. 공원, 백화점, 병원, 빵집, 기차역, 사무실, 공사 현장 등 우리가 사는 세상을 소재로 삼았다. 각 장소와 직업의 특성을 담은 물건이 직업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퍼즐을 풀고 나서 색칠 놀이도 할 수 있다. 귀여운 그림 덕에 즐거움이 배가된다.

자나 컬 지음 **한빛에듀** 펴냄

정답

Hotel & Resort

휘닉스 평창

치맥과 함께하는 겨울 액티비티

스포츠 경기 관람할 땐 치킨에 맥주다. 2월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를 맞아 휘닉스 평창이 치맥 세트를 즐기며 선수들을 응원하는 패키지를 마련했다. 객실 프로모션 '휘플위크'를 구매한 고객이 대상이다. 겨울 액티비티를 한데 모은 스노우 빌리지에서 봅슬레이 등 익스트림 체험을 즐기고, 선착순 진행하는 스키 입문 강습으로 초보 탈출 기회도 누린다. 주중 투숙객에게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도 주니 우리 선수들 응원과 겨울 액티비티 체험 모두 놓치지 말자. 기간은 2월 11일까지.

1577-0069 www.phoenixhnr.co.kr

파크 하얏트 부산

상큼하고 부드러운 딸기의 향연

신선한 딸기 향이 밀려온다. 파크 하얏트 부산 호텔이 딸기를 활용한 디저트와 세이버리를 맛볼 수 있는 '스트로베리 애프터눈 티 세트'를 진행한다. 겨울 시즌 한정으로 딸기 크레페, 딸기 에클레어 등 달콤한 디저트와 그릴드 치킨 타코, 딸기 크림치즈 샌드위치, 딸기 칩을 올린 훈제 연어 샐러드 등 푸짐한 세이버리를 만난다. 곁들이는 음료로는 프리미엄 커피 또는 차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라운지에서 이용 가능하다. 기간은 2월 28일까지.

051-990-1300 www.parkhyattbusan.com

모나파크 용평리조트

새해 도약하기 위한 힐링 호캉스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새해를 맞는다. 모나파크 용평리조트가 웰니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고객에게 온전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타임' 패키지는 객실 1박에 웰니스 프로그램 2인권, 발왕산 관광 케이블카 2매가 기본 구성이다. 전문가의 진행 아래 소리로 몸을 씻어 내는 사운드 배스와 마음챙김 명상 요가를 체험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와 발왕산 氣(기) 스카이워크와 무장애데크길 천년주목숲길을 거닌다. 케이블카에서 보는 상고대가 아름답다. 기간은 3월 16일까지.

033-330-8162 www.yongpyong.co.k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Letters from Readers

〈KTX매거진〉을 보고 나서

푸른 휴식, 포항 신비로운 스페이스워크! 미처 알지 못한 포항의 다양한 얼굴을 본 것 같아 새롭고 유익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다는 산골에 사시는 어머님 모시고 포항을 여행해야겠어요. **박효진**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따스한 소리가 들리는 정선 이야기가 참 반가웠어요. 남매를 키우며 힘들게 생활했던 정선은 아련한 추억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길에 추억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순자**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묵묵하게, 담담하게 감물은 연둣빛 땡감으로만 들일 수 있다고, 감이 주황색으로 익기 시작하면 염색할 수가 없다고요. 몰랐어요. 강미선 작가의 인터뷰 내용이 전시에 꼭 가보고 싶게 만드네요. **임정희**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기차로 여행하면서

2월 7일 입대를 앞둔 큰아들과 함께 강릉 외갓집에 와서 할머니와 바다를 구경했어요. 강릉에 폭설이 내려 2021년 12월 30일 세밑의 경포해변 백사장은 눈 덮인 설원이었습니다.
장성아 경기도 과천시 양지마을로

봉화 승부역에서 양원역까지 트레킹을 했습니다. 신속함만 좇는 오늘날, 기차의 본래 역할은 다양한 지역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수단임을, 그리고 누군가에겐 꿈과 희망임을 양원역에서 느낍니다.
김태훈 전북 전주시 구룡1길

바다와 눈이 보고 싶다는 아들의 요청으로 급하게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겨울 바다를 봐서 너무 행복했고, 아들은 파도랑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며 놀다 신발이 젖을 정도로 신났어요.
서하나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독자 편지를 보내 주세요!

〈KTX매거진〉을 읽은 소감과 독자님의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KTX@seoulmedia.co.kr로 독자 평과 들려주고픈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사진은 600KB 이상). 메일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마감은 2월 15일입니다.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농부아빠의 사랑이 담긴 화장품 브랜드 페르미어파파의 키즈 라인 제품 올인원 젤 워시, 로션, 크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천년초와 모링가 성분을 함유해 연약한 아이 피부에 자극 없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KORAIL 한국철도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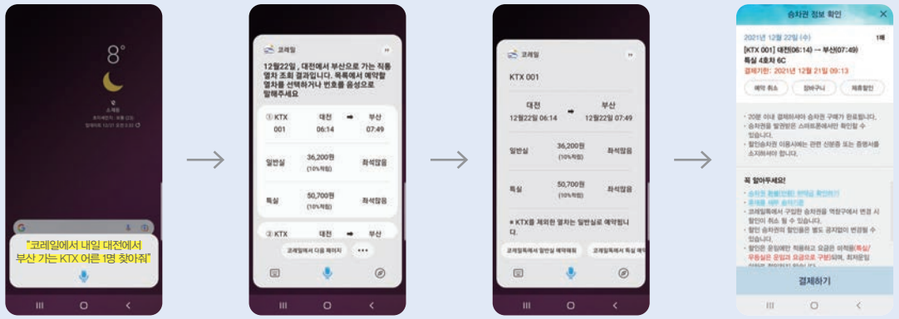
© 박준규

제12회 철도사진공모전
동상 수상작 '설국 바다열차'

KORAIL INFO

154 한국철도 소식
160 시간표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72 열차 이용 안내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



한국철도, 승차권 음성 예매 서비스 도입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성만으로도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한국철도는 지난해 12월 28일 삼성 '빅스비'를 활용한 승차권 음성 예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코레일톡' 앱과 음성 인식 프로그램 빅스비를 연동해 열차 시간표 조회부터 승차권 결제까지 쉽고 편하게 진행하는 서비스다. 음성으로 예매하려면 빅스비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이 있어야 한다. 우선 빅스비 마켓플레이스에서 '코레일 캡슐'을 찾아 사용에 동의한다. 코레일 캡슐은 열차 시각을 조회해 코레일톡으로 연동, 예약하는 기능이다. '하이 빅스비, 코레일에서 내일 부산 가는 열차 찾아 줘'처럼 '코레일에서~'를 포함한 음성 명령을 한 후 원하는 열차를 선택하면 코레일톡과 연계해 승차권 결제·발권이 가능하다.

1

축구장 5.7배 규모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한국철도와 한국남부발전이 공동 진행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이 발을 내디딘다. 두 기관은 지난 1월,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 시범 부지로 부산철도차량정비단과 태화강역을 포함해 여덟 곳을 선정했다. 역 승강장 지붕 등 설치할 태양광발전 시설의 총면적은 축구장 5.7배 규모인 4만1000제곱미터(약 1만 2400평)에 이른다. 한국철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모범이 되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

몽골에 심는 한국철도 관제 운영 기술

한국의 철도 관제 시스템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철도는 지난해 12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한 '몽골 철도교통관제센터 건립, 운영 역량 강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 관리 용역 사업'을 수주했다. 한국철도는 선진 철도 관제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설물 노후화, 선로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에 직면한 몽골 철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수송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3

한국철도 '10대 윤리 과제' 실천 약속

한국철도가 1월 10일 대전 사옥에서 윤리 실천 결의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추진하는 윤리 경영 10대 정책 과제를 사전에 공유하고 모든 임직원이 이를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사익 추구 금지, 부정부패 근절 및 존중의 조직 문화 조성, 사회적 책임 완수 등을 담은 결의문에 경영진을 포함한 전국의 소속장이 서약했다. 각 지역본부 등 3만여 직원은 전자 서명으로 동참했다. 지난해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국제 인증을 획득해 윤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한국철도가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실천을 이끌어 내는 데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한국철도는 국민이 신뢰하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4

사랑과 온기 가득 담은 연탄 나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더 춥게 느껴지는 올겨울, 한국철도가 이웃 돕기에 나섰다. 한국철도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30일까지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전국의 가정에 연탄 5만 장을 기부하고 배달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전통시장과 사회적 기업에서 구매한 5000만 원 상당의 난방용품과 생필품도 지역 복지관 50여 곳에 전달했다. 한국철도는 이웃에게 다가가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5

기차역에서 만날 지역별 대표 맛집 공개 모집

한국철도가 지역의 맛집을 역 안에서도 만나 볼 수 있도록 입점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대상 역은 서울역, 부산역 등 16개로 역사 내 유휴 공간에 운영 장소를 제공하며, 식당·카페·제과점 등 업종 제한은 없다. 단,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월 10일부터 2월 7일까지이며, 사업 제안서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유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70-7092-7913

6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ALL THAT KORAIL SERVICE

2021년 최고의 한국철도 서비스는 ‘지연금 자동 환급 등 국민 권익 보호 제도 개선’

고객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온 한국철도가 국민 투표를 통해 2021년 최고의 서비스를 선정했다. 투표 결과 ‘열차 지연금 자동 환급, 문자와 카톡으로 승차권 전달하기 확대 등 국민 권익 보호 제도 개선’이 1위를 차지했다. 그중 신용카드 결제 고객이 열차 지연 배상금을 익일 자동으로 환급받는 서비스가 특히 큰 호응을 얻었다. 그동안 열차가 지연되면 역 창구나 앱에서 신청해 배상금을 환급받았지만, 신용카드·간편결제로 구입한 승차권의 지연 배상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결제 수단으로 자동 반환된다. ‘국민 플랫폼 카카오 T·네이버와의 협력을 통한 승차권 구입 채널 확대’와 ‘무료 와이파이 등 열차 내 설비·서비스 개선’이 국민 권익 보호 제도 개선의 뒤를 이었다. 한국철도는 앞으로도 고객 의견을 반영해 고객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고객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KORAIL

#KTX 모든열차
#15~30% 할인

N 카드 기업용

#전구간 이용형
#특정구간 이용형
#20인 이상 법인

기업 임직원 출장엔
횟수차감형 할인카드
N카드(기업용)

기업회원에 가입한 임직원을 위한 철도운임 할인과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한국철도만의 기업전용 프로그램입니다.

PC https://biz.letskorail.com
Mobile https://mbiz.letskorail.com

장독 정원 '고스락'

둥그런 장독대가 여행객을 반긴다. 9만 9000제곱미터(3만 평) 장독 정원에서 전통 항아리에 자연 발효한 식품을 만드는 곳이다. 국산 유기농 원료로 담근 장에서 전통의 향기가 흘러나온다. 직접 장맛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장 담그기 체험도 가능하다. 시간이 빚는 장을 음미하고 정원을 걷는 순간이 감미롭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

한국 유일의 교도소 세트장이자 이색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이다. 입구에는 그동안 이곳에서 촬영한 영화의 포스터를 전시해 놓았다. 과거에 초등학교였으나 폐교한 이후 세트장으로 탈바꿈해 영화 촬영지와 여행지로 거듭났다. 죄수복을 입고 세트장을 둘러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개성 넘치는 사진을 찍기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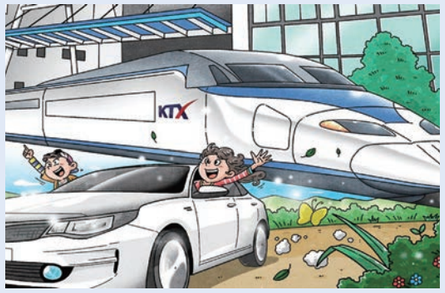
숨은 매력이 넘쳐나는 도시, 전북 익산

왕궁리 유적

탁 트인 옛 왕궁터가 걸음을 여유롭게 한다. 후원, 공방, 대형 화장실 등 자취가 남아 백제 후기 궁궐 구조와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 유적이다. 드넓은 벌판에 남은 건물 터로 백제를 이끌던 당당한 궁궐 모습을 떠올린다. 해 질 무렵 석양에 물든 황금빛 왕궁리 오층석탑은 놓쳐서는 안 될 장관이다.

아가페 정원

자연의 품 안에서 차분하게 걷고 싶다면 수목 정원 '아가페 정원'을 찾자. 1970년 서정수 신부가 설립한 노인복지시설 내 정원이었으나 2021년 민간에 개방하면서 지금은 누구나 거닐 수 있다. 메타세쿼이아, 잣나무, 공작단풍 등 수목 17종과 다양한 꽃을 식재해 계절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렌터카 타고 떠나는 익산 GO Back 여행

KTX 왕복권과 렌터카를 연계한 자유 여행 상품으로 열차와 렌터카 가격을 할인받는다. 단, 렌터카 반납 시 익산 여행지 두 곳의 사진과 익산 식당 한 곳의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출발일 기준 한 달 전부터 3일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앱에서 예약하거나 전북권 여행센터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KTX와 금강부릉이 타고 떠나는 익산 여행

KTX 왕복 열차와 관광택시로 구성된 상품으로 무사고 운전 경력 평균 20년 이상 비흡연 모범 기사가 안내해 주는 안전하고 쾌적한 금강 역사 여행 프로그램이다. 현지인 기사가 알려 주는 맛집과 숨겨진 익산 여행지를 방문한다. 차량 한 대당 탑승 인원은 4인이며, 여행객이 원하는 코스를 자유롭게 이용한다.

KTX와 함께 익산 제대로 즐기는 방법

한국철도 전북권 여행센터가 익산 백제문화탐방 버스투어 상품을 출시했다. KTX 왕복 승차권과 투어 버스, 점심(보리굴비정식), 카페 이용까지 포함한 상품으로 익산의 주요 관광지를 하루 안에 둘러보는 알찬 상품이다. 한 편의 영화가 떠오르는 익산 교도소 세트장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는 장독 정원 '고스락', 힐링 핫 플레이스 아가페 정원, 백제 최대 규모 사찰 미륵사지, 익산의 숨은 명소 구룡마을 대나무숲, 고즈넉한 퓨전 한옥 카페 '눈들재'까지 구석구석 여행한다. 곳곳에 보물이 숨어 있는 도시 익산을 한 번에 돌아볼 기회다. 투어 소요 시간은 7~8시간이며, 가격은 6만 4000원부터 시작한다. 여행 3일 전까지 10명 이상 예약해야 출발한다.

익산 백제문화탐방 버스투어

익산 교도소 세트장 → 장독 정원 '고스락' → 아가페 정원 → 미륵사지 → 구룡마을 대나무숲 → 한옥 카페 '눈들재'

문의 063-855-7715(한국철도 전북권 여행센터)

KTX/KTX-산천/KTX-이음 시간표

TIME TABLE

KTX/KTX-산천 경부선 하행 From Seoul to Bu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행신 幸信 Haengsin	서울 首尔 Seoul	광명 光明 Gwangmye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오송 五松 Osong	대전 大田 Daejeon	김천(구미) 金泉(龜尾) Gimcheon (Gumi)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신경주 新慶州 Sin gyeongju	울산 蔚山 Ulsan	부산 釜山 Busan	비고 備考 Remark
1		**05:15**	05:32			06:14		06:57	07:15	07:28	**07:49**	
161		**05:20**	05:37			06:19		07:02	밀양 07:35	구포 08:01	**08:14**	월
3		**05:30**	05:47	06:09		06:34	06:58	07:23	07:41	07:54	**08:15**	
5		**06:00**	06:17	06:39		07:04		07:47		08:12	**08:33**	
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2		08:27	**08:48**	금토일 KTX-산천
1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2		08:27	**08:48**	월화수목 KTX-산천
7	**06:13**	06:35	06:52			07:34	07:58	08:23	08:41	08:54	**09:15**	
9		**07:00**	07:17	07:39	07:52	08:09		08:52		09:17	**09:38**	
11	**07:08**	07:30	07:47		08:15	08:34	08:58	09:23			**10:03**	
13		**07:52**	08:09			08:49		09:32			**10:12**	
15		**08:00**	08:18			09:00	09:24	09:48	10:07	10:20	**10:41**	
121		**08:14** 영등포 08:24	수원 08:47			09:57		10:40			**11:20**	
17	**08:30**	09:00				09:52		10:35			**11:15**	
19		**09:30**	09:47		10:16	10:35	10:59	11:23	11:42	11:55	**12:16**	KTX-산천
101		**09:45**	10:02	10:25		10:50		11:33	밀양 12:06	구포 12:32	**12:45**	
21		**10:00**	10:17	10:39		11:04		11:47	12:06	12:19	**12:40**	
123		**10:14** 영등포 10:24	수원 10:48			11:59		12:42	13:00	13:13	**13:34**	
163		**10:20**		10:54	11:07	11:24		12:07	밀양 12:40	구포 13:06	**13:19**	금토일
23		**10:30**	10:47	11:09	11:22	11:39	12:03	12:27		12:52	**13:13**	
25		**11:00**	11:17	11:39		12:05		12:48	13:07	13:19	**13:41**	
171		**11:33** 영등포 11:43	수원 12:07			13:17	13:41	14:05			**14:49**	토일
27		**12:00**	12:17	12:39		13:05		13:48	14:07	14:19	**14:41**	
29		**12:27**	12:44	13:06		13:32		14:16		14:41	**15:02**	
31		**13:00**	13:17	13:39	13:52	14:09	14:33	15:01	15:19		**15:47**	KTX-산천
103		**13:10**	13:27	13:49		14:15	14:39	15:04	밀양 15:37	구포 16:03	**16:16**	
33		**13:20**	13:37	13:59	14:12	14:29		15:12		15:36	**15:58**	
83	**13:30**	13:52	14:09			14:51	15:15	15:39		16:04	**16:25**	금토일
183	**13:30**	13:52	14:09			14:51	15:15	15:39		16:04	**16:25**	월화수목
35		**14:00**		14:35	14:48	15:05		15:48	16:06		**16:34**	
85	**13:55**	14:17	14:34			15:14		15:58			**16:38**	금토일
185	**13:55**	14:17	14:34			15:14		15:58			**16:38**	월화수목 KTX-산천
37		**14:21**	14:38		15:06	15:25		16:08			**16:49**	
39		**14:30**	14:47	15:09		15:34		16:18	16:37	16:50	**17:11**	KTX-산천
87		**14:44**	15:01	15:23	15:36	15:53		16:36	16:54		**17:22**	금토일
41	**14:38**	15:00	15:17	15:39	15:52	16:09		16:53		17:18	**17:39**	
89		**15:25**		16:00		16:23		17:06			**17:46**	금토일 KTX-산천
43		**15:40**	15:57		16:25	16:44		17:27		17:52	**18:13**	
45		**16:00**	16:17			16:57	17:21	17:45	18:04		**18:32**	
125		**16:04** 영등포 16:17	수원 16:41			17:51		18:34		18:59	**19:20**	
47		**16:30**		17:04		17:29		18:12		18:37	**18:58**	
49		**17:00**	17:18		17:46	18:05	18:29	18:54		19:19	**19:40**	
105	**16:48**	17:15	17:32			18:15		18:58 경산 19:09	밀양 19:36	구포 20:02	**20:15**	
51		**17:25**	17:42	18:05		18:30		19:13	19:31	19:44	**20:05**	
53		**18:00**		18:34		19:00	19:24	19:49		20:14	**20:35**	
55		**18:15**	18:32		19:00	19:19		20:02		20:27	**20:48**	
57	**18:08**	18:30		19:05	19:17	19:34		20:17	20:36	20:48	**21:10**	
107		**18:43**	19:00	19:22	19:35	19:52	20:16	20:40	밀양 21:13	구포 21:39	**21:52**	
127		**18:55** 영등포 19:08	수원 19:33			20:44		21:27	21:45		**22:13**	
59		**19:00**	19:17	19:39	19:52	20:09		20:52		21:17	**21:38**	
91		**19:22**	19:39			20:19		21:03		21:28	**21:49**	금토일
61		**19:37**			20:17	20:34	20:58	21:23		21:48	**22:09**	
165		**19:46**	20:03	20:25		20:49		21:32	밀양 22:05	구포 22:31	**22:44**	금토
173		**19:50** 영등포 20:00	수원 20:23			21:33		22:16	22:34		**23:02**	금토일
93		**19:56**	20:13	20:35		20:58		21:41	22:00		**22:28**	금토일
63	**19:38**	20:00	20:17	20:39	20:52	21:09		21:51		22:16	**22:37**	
95		**20:15**	20:32	20:55		21:18		22:01			**22:41**	금토일
65		**20:30**				21:22		22:05			**22:45**	
109		**20:50**	21:07	21:29		21:54		22:39	밀양 23:12	구포 23:38	**23:51**	
67		**21:00**	21:16	21:39		22:04	22:28	22:52		23:17	**23:38**	
69		**21:30**	21:47		22:16	22:35		23:18	23:36	23:49	**00:10**	
111		**21:35**	21:52	22:14	22:27	22:44		23:27	밀양 00:00	구포 00:26	**00:39**	
71		**22:00**	22:17	22:39		23:04		23:47		00:12	**00:33**	
73		**22:30**	22:47	23:09		23:34		00:17		00:42	**01:03**	
97		**22:51**	23:08			23:48		00:31			**01:11**	금토일
117		**23:00**	23:17	23:39	23:52	00:09	00:33	**00:56**				
119		**23:30**	23:47	00:09	00:22	**00:37**						

KTX/KTX-산천 경부선 상행 From Busan to Seoul

2022년 2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부산 釜山 Busan	울산 蔚山 Ulsan	신경주 新慶州 Sin gyeongju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김천(구미) 金泉(龜尾) Gimcheon (Gumi)	대전 大田 Daejeon	오송 五松 Os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광명 光明 Gwangmyeong	서울 首尔 Seoul	행신 幸信 Haengsin	비고 備考 Remark
116						**05:55**	06:12	06:25	06:51	**07:07**		
82	**04:45**	05:08	05:20	05:38		06:20		06:44	07:10	**07:26**		월
118						**06:34**	06:52	07:05	07:30	**07:46**		화수목금토
166	**04:39**	구포 04:53	밀양 05:19	05:52		06:34	06:52	07:05	07:30	**07:46**		월
2	**05:10**	05:33		05:58	06:21	06:45		07:09	07:35	**07:51**		
4	**05:20**		05:48	06:07		06:49	07:07		07:39	**07:55**		
6	**05:40**	06:03		06:28		07:10	07:27	07:40	08:06	**08:22**		
120				**06:42**	07:05	07:29	07:47	08:00	08:25	**08:41**		
8	**06:10**	06:33	06:45	07:03	07:26	07:51	08:08	08:21	08:47	**09:03**		
84	**06:30**	06:53	07:05	07:24		08:06	08:24			**09:07**		금토일
170	**06:42**		07:10	07:30		08:14			수원 09:25	영등포 09:47 **09:56**		토일
102	**06:16**	구포 06:30	밀양 06:56	경산 07:22 07:33	07:56	08:20	08:38	08:51	09:16	**09:32**		
10	**07:00**	07:23		07:48	08:11	08:35	08:53		09:25	**09:41**		
12	**07:30**	07:53	08:05	08:23		09:06		09:31	09:56	**10:12**		
86	**07:50**	08:13		08:38	09:01	09:25	09:43	09:56	10:22	**10:38**		금토일
14	**08:10**	08:33		08:58	09:21	09:46		10:10		**10:46**		
122	**08:20**	08:43		09:08		09:51			수원 11:01	영등포 11:23 **11:32**		
104	**08:15**	구포 08:29	밀양 08:55	09:28		10:10	10:28		11:01	**11:17**		
16	**08:40**	09:03	09:15	09:33		10:16	10:33		11:06	11:27	**11:44**	
18	**08:50**	09:13		09:38	10:01	10:26			11:10	**11:26**		
20	**09:06**	09:29		09:54		10:36	10:53	11:06	11:31	**11:47**		
22	**09:36**			10:17		10:58				**11:51**		
88	**09:44**	10:07		10:32		11:14			11:57	**12:13**		금토일
188	**09:44**	10:07		10:32		11:14			11:57	**12:13**		월화수목 KTX-산천
24	**10:03**			10:44		11:26		11:50	12:15	**12:31**		
26	**10:20**	10:43	10:55	11:13		11:55	12:13		12:46	**13:02**		
162	**10:06**	구포 10:20	밀양 10:46	11:22	11:45	12:10			12:53	**13:09**		금토일 KTX-산천
28	**11:00**	11:23		11:48	12:11	12:37	12:54		13:27	**13:43**		
30	**12:00**	12:23		12:49	13:12	13:37	13:55	14:08	14:33	**14:49**		
32	**12:30**	12:53	13:05	13:23		14:06	14:23		14:56	**15:12**		
34	**13:10**	13:33		13:58		14:40	14:57	15:10		**15:46**		
124	**13:25**			14:06		14:48			수원 15:58	영등포 16:20 **16:29**		
90	**13:30**			14:11		14:53	15:10	15:23	15:49	**16:05**		금토
106	**13:29**	구포 13:43	밀양 14:09	14:45		15:27	15:45	15:58	16:23	**16:39**		KTX-산천
36	**14:00**	14:23		14:48	15:11	15:36	15:53	16:07		16:48	**17:05**	
38	**14:20**		14:48	15:07		15:49	16:07			**16:50**		
40	**14:30**	14:53	15:05	15:24	15:47	16:12			16:55	17:23	**17:43**	
42	**15:10**			15:51		16:32				**17:25**		
92	**15:20**			16:01		16:43			17:26	**17:42**		금토일
172	**15:25**			16:06		16:48			수원 17:58	영등포 18:20 **18:29**		금토일
44	**15:45**	16:08		16:33		17:15		17:39	18:04	**18:20**		
108	**15:35**	구포 15:49	밀양 16:15	16:48		17:30	17:48	18:01	18:26	**18:42**		
46	**16:23**		16:51	17:10	17:33	17:57	18:15		18:47	**19:03**		
94	**16:38**			17:19	17:42	18:07		18:31	18:56	**19:12**		금토일
194	**16:38**			17:19	17:42	18:07		18:31	18:56	**19:12**		월화수목
48	**16:50**	17:13	17:25	17:44		18:26		18:50	19:15	**19:31**		
50	**17:00**	17:23		17:48		18:30	18:47	19:00	19:26	**19:42**		
96	**17:09**		17:37	17:56		18:38	18:55	19:09		**19:45**		금토일
196	**17:09**		17:37	17:56		18:38	18:55	19:09		**19:45**		월화수목 KTX-산천
52	**17:17**	17:40	17:52	18:13		18:55		19:19	19:45	20:06	**20:23**	KTX-산천
126	**17:50**	18:13	18:25	18:43		19:27			수원 20:38	영등포 21:00 **21:09**		
54	**18:00**	18:23		18:49	19:12	19:38	19:55	20:09	20:34	**20:50**		
98	**18:30**			19:11		19:53	20:10			20:59	**21:16**	금토일 KTX-산천
56	**18:35**	18:58	19:10	19:29	19:52	20:16	20:34		21:06	**21:22**		
58	**19:05**	19:28		19:53		20:35	20:52		21:25	21:50	**22:07**	
110	**18:43**	구포 18:57	밀양 19:23	경산 19:49 20:03		20:45	21:02	21:15	21:41	**21:57**		KTX-산천
60	**19:20**	19:43	19:55	20:13	20:36	21:02			21:47	**22:03**		
164	**19:13**	구포 19:27	밀양 19:53	20:27		21:10		21:34		**22:10**		금토일
100	**19:45**		20:13	20:32		21:14		21:38	22:03	22:24	**22:41**	금토일
128	**19:55**			20:36		21:19			수원 22:29	영등포 22:51 **23:00**		
62	**20:05**	20:28	20:40	20:58		21:40		22:04	22:30	**22:46**		
64	**20:40**	21:03	21:15	21:33		22:15		22:39	23:05	**23:21**		
66	**21:00**	21:23		21:49	22:12	22:38	22:55		23:27	23:47	**00:04**	
112	**20:45**	구포 20:59	밀양 21:25	21:59		22:42	23:00		23:32	**23:48**		
68	**21:29**	21:52	22:04	22:22	22:45	23:10			23:53	**00:09**		
70	**21:43**	22:06		22:31		23:13	23:31		00:03	**00:19**		
72	**22:00**	22:23		22:48		23:30				**00:25**		
74	**22:10**		22:38	22:57		23:39		00:03		**00:38**		
80	**22:50**	23:13		23:38		00:20		00:44		**01:20**		금토일

열차 시각은 운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서 정확한 시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TX/KTX-산천 경전선 하행 From Seoul to Masan·Jinju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행신 幸信 Haengsin	서울 首尔 Seoul	광명 光明 Gwangmye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오송 五松 Osong	대전 大田 Daejeon	김천(구미) 金泉(龜尾) Gimcheon (Gumi)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밀양 密陽 Miryang	진영 進永 Jinyeong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 jungang	창원 昌原 Chang won	마산 馬山 Masan	진주 晋州 Jinju	비고 備考 Remark
201		05:05	05:22			06:04		06:50	07:23	07:41	07:53	08:02	08:09	08:33	KTX-산천
203		05:40	05:57	06:19	06:32	06:49		07:35 경산 07:46	08:13		08:39		08:51	09:15	KTX-산천
2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5	08:38	08:57		09:13	09:20	09:44	금토일 KTX-산천
205		08:25	08:42		09:10	09:29		10:12	10:45		11:11		11:23	11:47	
207		09:06	09:23	09:45		10:10	10:34	10:59	11:32	11:50		12:07	12:12		
285		09:30	09:47		10:16	10:35	10:59	11:26			12:22		12:34	12:58	금토일 KTX-산천
209		10:05	10:22	10:44		11:09	11:33	11:58	12:31		12:57		13:09	13:33	
211	12:28	12:50	13:07		13:36	13:55		14:38		15:26	15:37	15:46	15:51		
213		13:40		14:14		14:39		15:22	15:55		16:21		16:33	16:57	
287		14:30	14:47	15:09		15:34		16:21	16:54	17:12	17:24		17:34		금토일 KTX-산천
283		15:11	15:28		15:56	16:15		17:01	17:34		18:00	18:09	18:16	18:40	금토일 KTX-산천
215		16:20	16:37		17:05	17:24		18:10	18:43	19:02	19:14		19:24		KTX-산천
217		17:35	17:52		18:20	18:39	19:03	19:31				20:32	20:37		KTX-산천
219	17:36	18:05	18:22	18:45		19:10		19:53	20:26		20:52		21:02		
221		20:40	20:57	21:19	21:32	21:49		22:35		23:24	23:35	23:44	23:51	00:15	KTX-산천
223		22:10	22:27			23:09	23:33	23:57	00:30			01:02	01:07		KTX-산천

KTX/KTX-산천 동해선 하행 From Seoul to Pohang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행신 幸信 Haengsin	서울 首尔 Seoul	광명 光明 Gwangmye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Asan	오송 五松 Osong	대전 大田 Daejeon	김천(구미) 金泉(龜尾) Gimcheon(Gumi)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포항 浦項 Pohang	비고 備考 Remark
297		05:05	05:22			06:04		06:47	07:22	금토일 KTX-산천
231		05:40	05:57	06:19	06:32	06:49		07:32	08:07	KTX-산천
233		06:45	07:02	07:25		07:50		08:33	09:08	
235	07:48	08:10	08:28	08:51	09:03	09:20		10:04	10:39	KTX-산천
237		09:25	09:42		10:10	10:29		11:13	11:48	월화수목 KTX-산천
291		09:25	09:42		10:10	10:29		11:13	11:48	금토일 KTX-산천
239	10:23	10:45	11:02	11:24	11:37	11:54		12:37	13:12	KTX-산천
243		12:41			13:22	13:39		14:22	14:57	
241		13:00	13:17	13:39	13:52	14:09	14:33	14:57	15:33	KTX-산천
245	14:13	14:35	14:52	15:14		15:39	16:03	16:28	17:03	
295		15:11	15:28		15:56	16:15		16:59	17:34	월화수목 KTX-산천
293		15:11	15:28		15:56	16:15		16:59	17:34	금토일 KTX-산천
247		16:20	16:37		17:05	17:24		18:07	18:43	KTX-산천
249		17:35	17:52		18:20	18:39	19:03	19:28	20:03	KTX-산천
251		20:40	20:57	21:19	21:32	21:49		22:32	23:07	KTX-산천
253		22:20	22:37		23:05	23:24		00:08	00:43	KTX-산천

KTX-이음 강릉선 하행 From Seoul to Gangneung·Donghae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서울 首尔 Seoul	청량리 淸凉里 Cheong nyangni	상봉 上鳳 Sang bong	양평 楊平 Yang pyeong	만종 萬鍾 Manjong	횡성 橫城 Hoeng seong	둔내 屯內 Dunnae	평창 平昌 Pyeong chang	진부(오대산) 珍富(五臺山) Jinbu (Odaesan)	강릉 江陵 Gangneung	묵호 墨湖 Mukho	동해 東海 Donghae	비고 備考 Remark
801	05:11	05:32	05:38		06:23			06:45		07:08			
803	06:01	06:22		06:49	07:12		07:28	07:38	07:48	08:05			
841	07:01	07:22	07:28	07:51	08:14	08:22		08:38	08:47	정동진 09:14	09:35	09:42	
851		07:50	07:56		08:39			09:00	09:09	09:26			토일
805	08:01	08:22		08:48	09:11	09:20	09:29	09:40		10:01			
853		08:45	08:51		09:34	09:43	09:53		10:08	10:25			토일
807	09:01	09:22	09:29		서원주 10:09	10:21			10:40	10:57			
881		09:45		10:11	서원주 10:30			10:55		정동진 11:27	11:48	11:55	금토일
809	10:01	10:22		10:48	11:11		11:26	11:37		11:58			
843	11:01	11:22	11:28	11:50	서원주 12:10	12:21			12:41	정동진 13:10	13:31	13:38	
855		12:05			12:53					13:30			금토일
883		13:00	13:06		13:49		14:04			정동진 14:45	15:06	15:13	금토일
811	13:01	13:22	13:28		14:11	14:20		14:36	14:45	15:02			
813	13:31	13:52		14:18	14:41		14:56			15:23			
815	14:01	14:22		14:48	서원주 15:07	15:19		15:34		15:56			
857		15:10		15:37	16:00					16:37			금토일
845	15:01	15:22	15:28		16:11	16:20	16:30		16:45	정동진 17:12	17:33	17:40	
859		15:50			16:37					17:14			금토일
817	16:01	16:25		16:51	17:14	17:23		17:38	17:47	18:04			
861		18:13	18:19		서원주 18:58				19:26	19:43			금토일
819	18:01	18:22		18:48	19:11	19:19	19:29	19:39	19:47	20:04			
847	18:31	18:52	18:58		19:41		19:56	20:06		정동진 20:38	20:59	21:06	
821	19:01	19:22	19:28	19:51	20:14	20:23	20:34	20:44		21:06			
863		19:55		20:22	20:45				21:09				금토일
885		20:15			21:03			21:24		정동진 21:57	22:18	22:25	금토
823	20:01	20:22	20:28	20:51	21:13				21:38	21:55			
825	21:31	21:52		22:18	22:41	22:51	23:01	23:11		23:33			
827	22:11	22:32			23:18				23:43	00:00			

KTX/KTX-산천 경전선 상행 From Jinju·Masan to Seoul

2022년 2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진주 晋州 Jinju	마산 馬山 Masan	창원 昌原 Chang won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 jungang	진영 進永 Jin yeong	밀양 密陽 Miryang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김천(구미) 金泉(龜尾) Gimcheon (Gumi)	대전 大田 Daejeon	오송 五松 Os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광명 光明 Gwang myeong	서울 首尔 Seoul	행신 幸信 Haeng sin	비고 備考 Remark
202		05:00	05:06	05:14	05:25	05:42	06:18		07:00			07:42	07:59		KTX-산천
204	06:16	06:41	06:47		07:03	07:20	07:57	08:20	08:44	09:02		09:34	09:50		KTX-산천
206	08:58	09:24		09:36	09:47	10:04	10:40		11:22			12:07	12:28	12:45	KTX-산천
208	10:06	10:32	10:38	10:46		11:11	11:45		12:28		12:53	13:18	13:34		KTX-산천
282	11:24	11:50		12:02		12:26	13:00	13:23	13:47		14:12	14:37	14:53		금토일 KTX-산천
210		12:40		12:52		13:16	13:51		14:33		14:57	15:22	15:38		
212	12:52	13:18	13:24	13:32	13:43		14:30	14:53	15:17	15:35		16:07	16:35	16:55	
214	14:34	15:00		15:12		15:36	16:10		16:52			17:35	17:51		
284	15:25	15:51		16:03		16:27	17:04	17:27	17:51	18:09		18:41	18:57		금토일 KTX-산천
216		16:50	16:56	17:04	17:15		18:02	18:25	18:49		19:13	19:39	19:55		
218	17:45	18:11		18:23		18:47	19:21		20:03			20:46	21:02		
286		18:21		18:33	18:43	19:00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금토일 KTX-산천
220		20:00	20:06		20:22	20:39	21:12	21:35	22:01	22:19		22:51	23:07		KTX-산천
288	20:05	20:31		20:43		21:07	21:41	22:04	22:28	22:46	22:59		23:35		금토일 KTX-산천
222		21:08		21:20			22:17		22:59		23:23	23:48	00:09	00:26	KTX-산천
224		21:43	21:49			22:19	22:52		23:34			00:18	00:34		

KTX/KTX-산천 동해선 상행 From Pohang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포항 浦項 Pohang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김천(구미) 金泉(龜尾) Gimcheon(Gumi)	대전 大田 Daejeon	오송 五松 Os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Asan	광명 光明 Gwangmyeong	서울 首尔 Seoul	행신 幸信 Haengsin	비고 備考 Remark
232	05:37	06:18		07:00			07:42	07:59		KTX-산천
234	07:15	07:57	08:20	08:44	09:02		09:34	09:50		KTX-산천
236	09:59	10:40		11:22			12:07	12:28	12:45	KTX-산천
238	10:15	10:52		11:34	11:51	12:04	12:30	12:46		
298	10:41	11:22	11:45	12:10			12:53	13:09		금토일 KTX-산천
240	11:04	11:45		12:28		12:53	13:18	13:34		KTX-산천
242	12:37	13:14	13:37	14:02	14:19			15:03		월화수목 KTX-산천
292	12:37	13:14	13:37	14:02	14:19			15:03		금토일 KTX-산천
244	14:04	14:45		15:27	15:45	15:58	16:23	16:39		KTX-산천
246	15:37	16:14		16:56			17:39	17:55		
248	16:23	17:04	17:27	17:51	18:09		18:41	18:57		KTX-산천
250	18:00	18:37		19:19	19:36	19:49	20:15	20:31		
296	18:56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월화수목 KTX-산천
294	19:00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금토일 KTX-산천
252	19:22	20:03		20:45	21:02	21:15	21:41	21:57		KTX-산천
254	21:36	22:17		22:59		23:23	23:48	00:09	00:26	KTX-산천

KTX-이음 강릉선 상행 From Gangneung·Donghae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동해 東海 Donghae	묵호 墨湖 Mukho	강릉 江陵 Gang neung	진부(오대산) 珍富(五臺山) Jinbu (Odaesan)	평창 平昌 Pyeong chang	둔내 屯內 Dunnae	횡성 橫城 Hoeng seong	만종 萬鍾 Manjong	양평 楊平 Yang pyeong	상봉 上鳳 Sang bong	청량리 淸凉里 Cheong nyangni	서울 首尔 Seoul	비고 備考 Remark
802			05:25	05:45		06:00		06:14	06:36		07:03	07:23	
804			06:30	06:50	06:59		07:15	07:24	07:45		08:15	08:38	
806			07:30		07:53	08:03	08:12	08:20	08:42		09:10	09:29	
882	07:15	07:22	정동진 07:42					08:32		09:15	09:20		토일
808			08:30	08:50	08:59		09:15	09:24		10:08	10:15	10:35	
852			10:05		10:27			10:46			11:34		토일
810			10:30	10:49			11:09	서원주 11:23		12:03	12:09	12:29	
842	10:05	10:12	정동진 10:33		11:06	11:16		11:30	11:52	12:15	12:21	12:41	
854			11:00		11:23			11:44		12:27	12:33		토일
812			11:33			12:01		서원주 12:19	12:37		13:04	13:24	
814			12:25	12:45	12:54		13:10	13:19		14:02	14:08	14:27	
884	12:40	12:47	정동진 13:08					13:57			14:43		금토일
856			13:53			14:21		서원주 14:38	14:56	15:19	15:25		금토일
844	14:00	14:07	정동진 14:28	14:57	15:07			15:27	15:50		16:17	16:37	
816			15:30		15:54	16:04		16:18	16:40		17:07	17:27	
858			15:56					16:34			17:20		금토일
886	15:40	15:47	정동진 16:08					16:56		17:41	17:46		금토일
818			16:40	16:59		17:14	17:22	서원주 17:33		18:13	18:19	18:39	
820			17:25	17:45	17:54			18:15	18:37	19:01	19:08	19:28	
860			17:50	18:10			18:30	18:40	19:03		19:29		금토일
822			18:40	19:00	19:09	19:19	19:29	19:39	20:01	20:24	20:31	20:51	
846	19:03	19:10	정동진 19:31	20:00	20:09		20:25	20:34	20:56	21:19	21:26	21:46	
862			20:09	20:29	20:37		20:52	서원주 21:04		21:44	21:49		금토일
824			20:30		20:53		21:09	21:18	21:39	22:03	22:09	22:29	
826			21:28	21:48		22:02	22:11	22:20			23:08	23:28	
864			22:00	22:20	22:29		22:45			23:34	23:39		금토일
848	21:30	21:37	정동진 21:59	22:28	22:37	22:46		23:02	23:23		23:51	00:11	
828			22:30		22:54			23:14		23:57	00:03	00:23	

열차 시각은 운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서 정확한 시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TX/KTX-산천/KTX-이음 시간표

TIME TABLE

KTX/KTX-산천 호남선 하행 From Yongsan to Gwangju·Mokpo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행신 幸信 Haengsin	서울 首尔 Seoul	용산 龍山 Yongsan	광명 光明 Gwangmye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오송 五松 Osong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익산 益山 Iksan	정읍 井邑 Jeongeup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 songjeong	나주 羅州 Naju	목포 木浦 Mokpo	비고 備考 Remark
401			**05:10**	05:25		05:55		06:23	06:39	06:58		**07:29**	KTX-산천
403			**05:50**	06:05	06:28	06:40		07:08	07:24	07:43	07:55	**08:21**	KTX-산천
471			**06:12**	06:27	06:50	07:02	07:21 계룡07:37	논산 07:55 **08:18**					KTX-산천
405	**06:02**	06:24	06:31	06:47		07:16 공주 07:33		07:51	08:07	08:26	08:36	**09:01**	
473		**06:49**	06:56	07:11	07:34	07:46	**08:03**						
491			**07:40**	07:55		공주 08:37		08:55		**09:22**			금토일
407	**07:20**	07:42	07:49	08:04		공주 08:46		09:04		09:39	09:49	**10:14**	KTX-산천
409			**08:22**		08:55	09:07		09:35	09:51	10:11	10:21	**10:46**	
411			**09:22**	09:37				10:30		**10:57**			
475			**09:36**	09:52	10:14	10:27	10:46 계룡 11:01	논산 11:19 11:45	김제 11:57 12:13	장성 12:31 12:45	12:57	**13:23**	KTX-산천
477			**10:10**	10:26	10:48	11:01	11:22 계룡 11:38	논산 11:56 **12:21**					KTX-산천
413		**10:34**	10:41		11:14	11:26		11:54	12:10	12:29	12:39	**13:04**	
415			**12:20**	12:35	12:58	공주 13:22		13:40		14:09	14:19	**14:44**	KTX-산천
417	**12:18**	12:40	12:47			13:27		13:55	14:11	14:30		**15:01**	KTX-산천
419	**13:05**		13:32	13:47	14:10			14:45	15:01	15:21	15:31	**15:56**	KTX-산천
421			**14:50**	15:05	15:28	15:40		16:08	16:24	16:44		**17:15**	
423			**15:36**	15:51		16:21	16:37	16:55	17:11	17:30	17:40	**18:05**	
425			**16:10**					17:13		**17:40**			
427		**16:38**	16:45	17:00	17:23	공주 17:47		18:05	18:21	18:40	18:50	**19:15**	KTX-산천
481			**17:12**	17:28			18:11 계룡 18:27	논산 18:45 19:10	김제 19:22 19:37	장성 19:56 20:10	20:22	**20:48**	
429		**17:38**	17:45			18:25 공주 18:41		18:59		19:28	19:38	**20:03**	KTX-산천
483			**17:50**		18:23		**18:48**						
431			**18:35**	18:50	19:13	공주 19:37		19:55	20:11	**20:29**			
433		**19:36**	19:43	19:58		20:28 공주 20:44		21:02	21:18	21:37	21:47	**22:12**	
435			**20:35**	20:51	21:13	21:26		21:54		22:29	22:39	**23:04**	KTX-산천
485			**21:11**	21:27	21:49		22:16 계룡 22:31	논산 22:49 **23:13**					KTX-산천
437			**21:21**	21:36		공주 22:18		22:36		**23:03**			
439	**21:59**		22:25	22:41	23:03	23:16		23:44	00:00	00:19	00:29	**00:54**	

KTX/KTX-산천 전라선 하행 From Yongsan to Yeosu-Expo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행신 幸信 Haengsin	서울 首尔 Seoul	용산 龍山 Yongsan	광명 光明 Gwangmye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오송 五松 Osong	공주 公州 Gongju	서대전 西大田 Seo daejeon	익산 益山 Iksan	전주 全州 Jeonju	남원 南原 Namwon	곡성 谷城 Gokseong	구례구 求禮口 Guryegu	순천 順天 Suncheon	여천 麗川 Yeocheon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Yeosu-Expo	비고 備考 Remark
501			**05:10**	05:25		05:55			06:26	06:42	07:09			07:41	07:55	**08:03**	KTX-산천
503	**06:43**	07:05	07:12	07:27	07:50	08:02	08:19		08:37	08:54	09:21		09:39	09:55	10:09	**10:17**	
581			**07:45**	08:00				08:44 계룡 09:00	논산 09:18 09:42	09:59	10:26	10:36		11:00		**11:19**	
505			**08:40**	08:55		09:25	09:41		09:59	10:16	10:43	10:53	11:05	11:21	11:35	**11:43**	
507	**09:26**	09:48	09:55	10:11	10:34	10:46	11:03		11:23	11:40	12:07	12:17		12:41	12:55	**13:03**	KTX-산천
509			**10:55**	11:10	11:33	11:46	12:02		12:20	12:37	13:04		13:23	13:39	13:53	**14:01**	
587			**12:15**	12:30	12:53			13:19 계룡 13:34	논산 13:51 14:16	**14:32**							KTX-산천
511			**12:20**	12:35	12:58		13:22		13:43	14:00	14:27	14:37		15:01		**15:20**	KTX-산천
543	**12:18**	12:40	12:47			13:27			13:58	14:14	14:41			15:12	15:26	**15:34**	토일 KTX-산천
589			**13:16**	13:32	13:54			14:20 계룡 14:35	논산 14:53 15:18	**15:34**							금토일
513			**14:12**	14:28		14:57	15:14		15:31	15:48	16:15			16:47	17:01	**17:09**	
583			**14:40**	14:56	15:18	15:31		15:49 계룡 16:05	논산 16:23 16:51	17:07	17:34		17:53	18:08	18:22	**18:30**	KTX-산천
515		**16:38**	16:45	17:00	17:23		17:47		18:10	18:27	18:54	19:04	19:15	19:31	19:45	**19:53**	KTX-산천
517		**17:38**	17:45			18:25	18:41		19:02	19:18	19:45			20:17	20:31	**20:39**	KTX-산천
519	**18:23**		18:50	19:05	19:28		19:52		20:10	20:26	20:53		21:12	21:28	21:42	**21:50**	KTX-산천
521			**20:05**	20:21	20:43				21:19	21:35	22:02	22:12		22:36	22:50	**22:58**	
541			**20:35**	20:51	21:13	21:26			21:57	22:13	22:40			23:12	23:26	**23:34**	금토 KTX-산천
523			**21:50**	22:05					22:57	23:14	23:41			00:12	00:26	**00:34**	KTX-산천

KTX-이음 중앙선 하행 From Cheongnyangni to Andong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청량리 淸凉里 Cheongnyangni	양평 楊平 Yangpyeong	서원주 西原州 Seowonju	원주 原州 Wonju	제천 堤川 Jecheon	단양 丹陽 Danyang	풍기 豊基 Punggi	영주 榮州 Yeongju	안동 安東 Andong	비고 備考 Remark
701	**06:00**	06:26		06:49	07:06	07:21		07:42	**08:02**	
781	**08:10**			08:57	09:14	09:29	09:42	**09:54**		토일
703	**09:00**			09:47	10:04	10:18	10:32	10:43	**11:03**	
705	**11:00**	11:26	11:45	11:52	12:09			12:42	**13:02**	
707	**14:00**			14:47	15:05	15:19	15:33	15:44	**16:04**	
709	**16:00**		16:43	16:50	17:07	17:22		17:44	**18:04**	
711	**19:00**			19:48	20:05	20:19	20:33	20:44	**21:04**	
713	**22:00**	22:27		22:50	23:07			23:40	**00:00**	

KTX/KTX-산천 호남선 상행 From Gwangju·Mokpo to Yongsan

2022년 2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목포 木浦 Mokpo	나주 羅州 Naju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 songjeong	정읍 井邑 Jeongeup	익산 益山 Iksan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오송 五松 Os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광명 光明 Gwangmyeong	용산 龍山 Yongsan	서울 首尔 Seoul	행신 幸信 Haengsin	비고 備考 Remark
402			**05:41**	05:59	06:16		06:45	06:59	07:25	**07:39**			
404	**05:25**	05:52	06:02	06:21	06:40		공주 06:58 07:17		07:51	08:07	08:24	**08:41**	KTX-산천
474					**06:25** 논산 06:50	계룡 07:08 07:24		07:49	08:15	08:33		**08:55**	KTX-산천
472	**05:33**	06:00	06:10 장성 06:25	06:43 김제 06:58	07:12 논산 07:36	계룡 07:54 08:10	08:29	08:42	09:08	09:24	**09:29**		
406	**07:07**	07:34	07:44	08:03	08:20		공주 08:38 08:56		09:30	**09:44**			
408	**08:20**	08:47	08:57	09:16	09:35		10:04	10:18	10:44	11:03		**11:25**	KTX-산천
476					**09:05** 논산 09:30	계룡 09:48 10:04	10:23			**11:05**			KTX-산천
410	**09:15**	09:42	09:52		10:24				11:20	**11:34**			KTX-산천
412	**10:03**		10:37		11:06				12:02	12:21	**12:26**		
492			**11:10**		11:39		12:07		12:41	**12:55**			금토일
414			**11:25**	11:43	12:00		공주 12:18	12:44		13:23	**13:28**		
416	**11:05**	11:32	11:42		12:14		12:43	12:57	13:23	**13:37**			KTX-산천
478					**13:10** 논산 13:35	계룡 13:53 14:09	14:29		15:03	**15:17**			KTX-산천
418	**12:55**	13:22	13:32	13:51	14:08		14:36		15:10	15:28	**15:33**		
420	**13:53**	14:20	14:30	14:49	15:06		공주 15:24 15:42		16:16	**16:30**			
422	**14:29**	14:56	15:07	15:25	15:45		공주 16:03		16:48	17:09	**17:14**		KTX-산천
424	**15:57**	16:24	16:34	16:53	17:13		공주 17:31	17:56		18:40		**19:02**	KTX-산천
426	**17:03**	17:30	17:40	17:59	18:18			18:54	19:20	**19:34**			KTX-산천
428			**18:23**		18:52		19:20		19:54	20:10	**20:15**		
484						**19:29**	19:48	20:01	20:27	**20:41**			KTX-산천
482	**16:31**		17:04 장성 17:18	17:36 김제 17:52	18:08 논산 18:33	계룡 18:51 19:07	19:26		19:59	20:15	20:25	**20:42**	KTX-산천
430	**18:02**	18:29	18:39	18:58	19:15		공주 19:33 19:51	20:05	20:31	**20:45**			
432	**18:52**	19:19	19:29	19:48	20:05				21:01	**21:15**			
486						**20:39**	20:58	21:11	21:37	**21:51**			
434	**19:52**	20:19	20:29	20:48	21:08		공주 21:26 21:44		22:18	22:34	22:44	**23:01**	KTX-산천
436			**21:00**		21:29		공주 21:47	22:12	22:38	**22:52**			
438	**20:55**		21:28	21:47	22:06		22:35	22:49		23:33		**23:55**	KTX-산천
440	**21:57**	22:24	22:34		23:03				23:59	**00:13**			

KTX/KTX-산천 전라선 상행 From Yeosu-Ex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Yeosu-Expo	여천 麗川 Yeocheon	순천 順天 Suncheon	구례구 求禮口 Guryegu	곡성 谷城 Gokseong	남원 南原 Namwon	전주 全州 Jeonju	익산 益山 Iksan	서대전 西大田 Seo daejeon	공주 公州 Gongju	오송 五松 Os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광명 光明 Gwangmyeong	용산 龍山 Yongsan	서울 首尔 Seoul	행신 幸信 Haengsin	비고 備考 Remark
502	**05:00**	05:08	05:21	05:36		05:55	06:20	06:40			06:58	07:17		07:51	08:07	08:24	**08:41**	KTX-산천
504	**07:09**	07:17	07:31		07:54	08:05	08:30	08:47		09:05	09:23	09:37	10:03	10:19	10:29	**10:46**	
542	**07:48**	07:56	08:10	08:25	08:36	08:47	09:13	09:35			10:04	10:18	10:44	11:03		**11:25**	토일 KTX-산천
506	**08:42**	08:50	09:04	09:19		09:37	10:03	10:24					11:20	**11:34**			KTX-산천
508	**10:36**	10:44	10:58			11:28	11:54	12:14			12:43	12:57	13:23	**13:37**			KTX-산천
510	**12:00**	12:08	12:22		12:46	12:56	13:22	13:38		13:56		14:22		**14:57**			
582	**12:09**		12:28	12:43		13:02	13:27	13:44 논산 14:09	계룡 14:27 14:43		15:02	15:15		**15:50**			
512	**13:05**		13:24			13:54	14:20	14:36			15:05	15:19	15:45	16:03		**16:25**	
588							**14:54**	15:16 논산 15:40	계룡 15:58 16:13		16:32		17:05	**17:19**			KTX-산천
514	**14:02**	14:10	14:24		14:48	14:58	15:24	15:45		16:03			16:48	17:09	**17:14**		KTX-산천
516	**14:58**	15:05	15:19	15:34		15:53	16:19	16:35		16:53	17:11		17:45	18:04	**18:09**		
590							**16:25**	16:41 논산 17:06	계룡 17:24 17:40		17:59	18:12		**18:47**			금토일
518	**16:35**	16:43	16:57		17:21	17:31	17:57	18:18				18:54	19:20	**19:34**			KTX-산천
520	**18:05**	18:13	18:27	18:42	18:54	19:04	19:30	19:46		20:04	20:23		20:57	21:13	21:22	**21:39**	
584	**18:57**	19:05	19:19		19:42	19:53	20:19	20:36 논산 21:01	계룡 21:19 21:34			22:00	22:26	**22:40**			KTX-산천
544	**19:25**	19:33	19:47		20:11	20:21	20:47	21:08		21:26	21:44		22:18	22:34	22:44	**23:01**	토일 KTX-산천
522	**20:24**	20:32	20:46	21:01		21:19	21:45	22:06			22:35	22:49		23:33		**23:55**	KTX-산천
524	**21:55**	22:02	22:16			22:47	23:13	23:29			23:58			**00:40**			KTX-산천

※KTX-산천은 노선에 따라 두 편의 열차를 결합한 복합 열차로 운행합니다. 열차 번호와 목적지가 다를 수 있으니 예매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TX-이음 중앙선 상행 From Andong to Cheongnyangni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안동 安東 Andong	영주 榮州 Yeongju	풍기 豊基 Punggi	단양 丹陽 Danyang	제천 堤川 Jecheon	원주 原州 Wonju	서원주 西原州 Seowonju	양평 楊平 Yangpyeong	청량리 淸凉里 Cheongnyangni	비고 備考 Remark
702	**06:00**	06:20		06:42	06:57	07:14		07:37	**08:03**	
704	**08:30**	08:51	09:02	09:15	09:30	09:47	09:54		**10:36**	
706	**11:30**	11:50		12:12	12:27	12:44		13:07	**13:33**	
708	**13:35**	13:55	14:06		14:32	14:48	14:55		**15:37**	
710	**16:30**	16:50		17:12	17:27	17:44			**18:30**	
782	**17:45**	18:11	18:22	18:36	18:51	19:09			**19:55**	토일
712	**19:00**	19:21	19:32	19:46	20:01	20:19			**21:05**	
714	**21:25**	21:45			22:19	22:35		22:58	**23:24**	

열차 시각은 운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서 정확한 시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TX-이음 중부내륙선 하행 From Bubal to Chungju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부발 夫鉢 Bubal	가남 加南 Ganam	감곡장호원 甘谷長湖院 Gamgok-Janghowon	앙성온천 仰城溫泉 Angseongoncheon	충주 忠州 Chungju	비고 備考 Remark
731	**07:52**	08:00	08:08	08:17	**08:27**	
733	**12:39**	12:47	12:55	13:04	**13:14**	
735	**15:35**	15:43	15:51	16:00	**16:10**	
737	**19:30**	19:38	19:46	19:55	**20:05**	

ITX-청춘 경춘선 평일 하행 From Yongsan to Chuncheon

※ 백양리역은 2022년 2월 13일까지만 임시 정차합니다.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옥수 玉水 Oksu	왕십리 往十里 Wangsimni	청량리 淸凉里 Cheongnyangni	상봉 上鳳 Sangbong	퇴계원 退溪院 Toegyewon	사릉 思陵 Sareung	평내호평 坪內好坪 Pyeongnaehopyeong	마석 磨石 Maseok	청평 淸平 Cheongpyeong	가평 加平 Gapyeong	백양리 白楊里 Baegyang-ri	강촌 江村 Gangchon	남춘천 南春川 Namchuncheon	춘천 春川 Chuncheon	비고 備考 Remark
2001	**06:00**			06:17				06:39			06:57			07:12	**07:15**	
2003	**06:56**		07:10	07:15				07:36	07:42		07:55			08:10	**08:13**	
2005	**07:52**		08:06	08:11				08:33	08:38		08:52	08:57		09:06	**09:10**	
2007	**08:51**	09:02	09:06	09:11				09:33			09:51	09:57		10:06	**10:09**	
2009	**09:57**			10:14					10:38		10:53			11:07	**11:10**	
2011	**10:58**	11:09		11:17				11:39			11:57	12:02		12:11	**12:14**	
2013	**12:00**	12:10		12:18				12:40			12:58	13:03		13:12	**13:15**	
2015	**12:53**			13:09				13:31		13:44	13:52		14:01	14:09	**14:12**	
2017	**14:00**			14:17				14:38			14:56			15:11	**15:14**	
2019	**15:20**			15:36				15:58			16:16			16:30	**16:33**	
2021	**16:00**			16:16				16:38		16:51	16:59		17:08	17:16	**17:19**	
2023	**17:00**			17:17				17:39			17:57	18:02		18:12	**18:15**	
2025	**17:46**		18:00	18:05	18:13	18:22	18:26	18:32	18:37		18:52	18:57		19:06	**19:09**	
2027	**18:56**		19:10	19:15	19:23	19:32	19:36	19:42	19:47		20:02			20:17	**20:20**	
2029	**19:58**		20:12	20:17	20:25	20:34	20:38	20:44	20:49		21:04			21:19	**21:22**	
2031	**20:32**			20:49				21:10	21:16	21:26	21:34		21:43	21:51	**21:54**	
2033	**21:21**			21:38				21:59			22:17			22:32	**22:35**	
2035	**22:48**			23:05				23:26			23:44			23:59	**00:02**	

ITX-청춘 경춘선 주말·공휴일 하행 From Yongsan to Chuncheo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옥수 玉水 Oksu	왕십리 往十里 Wangsimni	청량리 淸凉里 Cheongnyangni	평내호평 坪內好坪 Pyeongnaehopyeong	청평 淸平 Cheongpyeong	가평 加平 Gapyeong	백양리 白楊里 Baegyang-ri	강촌 江村 Gangchon	남춘천 南春川 Namchuncheon	춘천 春川 Chuncheon	비고 備考 Remark
2051	**06:15**			06:32	06:53		07:12	07:17 공휴일	07:21	07:29	**07:32**	
2053	**06:55**		07:09	07:13	07:34	07:47	07:55	08:01 토,공휴일		08:10	**08:13**	
2055	**07:55**		08:08	08:13	08:34		08:52		09:01	09:10	**09:13**	
2057	**08:20**			08:38	08:59	09:12	09:20	09:26 토,공휴일		09:35	**09:38**	
2059	**08:45**	08:55	09:00	09:05	09:26		09:44		09:53	10:02	**10:05**	
2061	**09:18**			09:36	09:57	10:11	10:19	10:24 토,공휴일		10:34	**10:37**	
2063	**09:49**			10:06			10:43			10:58	**11:01**	
2065	**10:26**			10:43	11:04		11:23	11:28 토	11:32	11:41	**11:44**	
2067	**10:59**	11:09	11:13	11:17		11:50	11:58	12:03 토,공휴일		12:12	**12:15**	
2069	**11:30**			11:47	12:08		12:26		12:35	12:43	**12:46**	
2071	**11:57**	12:07	12:12	12:17		12:50	12:58	13:04 토,공휴일		13:13	**13:16**	
2073	**12:58**		13:11	13:15	13:37	13:51	13:59	14:04 토,공휴일		14:13	**14:16**	
2075	**14:15**			14:33	14:54	15:07	15:15	15:21 토		15:30	**15:33**	
2077	**14:47**			15:04			15:41		15:50	15:59	**16:02**	
2079	**15:14**			15:32	15:54	16:08	16:16	16:21 토		16:31	**16:34**	
2081	**15:47**			16:04	16:25		16:43		16:53	17:02	**17:05**	
2083	**16:18**			16:35		17:08	17:16	17:21 토,공휴일		17:31	**17:34**	
2085	**16:56**			17:14	17:35		17:54		18:04	18:13	**18:16**	
2087	**17:30**			17:47	18:08	18:21	18:29	18:35 토		18:44	**18:47**	
2089	**17:59**			18:15	18:37		18:55	19:00 토	19:04	19:12	**19:15**	
2091	**19:00**			19:17	19:38		19:56	20:01 토	20:05	20:14	**20:17**	
2093	**19:30**			19:48	20:09	20:22	20:31	20:37 토		20:46	**20:49**	
2095	**20:00**			20:18	20:40		20:58		21:08	21:16	**21:19**	
2097	**20:35**			20:51		21:24	21:32			21:46	**21:49**	
2099	**21:20**			21:36	21:58		22:16		22:25	22:33	**22:36**	
2101	**22:05**			22:21	22:43		23:01			23:15	**23:18**	

KTX-이음 중부내륙선 상행 From Chungju to Bubal

2022년 2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충주 忠州 Chungju	앙성온천 仰城溫泉 Angseongoncheon	감곡장호원 甘谷長湖院 Gamgok-Janghowon	가남 加南 Ganam	부발 夫鉢 Bubal	비고 備考 Remark
732	**06:41**	06:52	07:01	07:09	**07:16**	
734	**11:02**	11:13	11:22	11:30	**11:37**	
736	**13:52**	14:03	14:12	14:20	**14:27**	
738	**18:30**	18:41	18:50	18:58	**19:05**	

ITX-청춘 경춘선 평일 상행 From Chuncheon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춘천 春川 Chuncheon	남춘천 南春川 Namchuncheon	강촌 江村 Gangchon	백양리 白楊里 Baegyang-ri	가평 加平 Gapyeong	청평 淸平 Cheongpyeong	마석 磨石 Maseok	평내호평 坪內好坪 Pyeongnaehopyeong	사릉 思陵 Sareung	퇴계원 退溪院 Toegyewon	상봉 上鳳 Sangbong	청량리 淸凉里 Cheongnyangni	왕십리 往十里 Wangsimni	옥수 玉水 Oksu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2002	**06:08**	06:12			06:27		06:41	06:47	06:53	06:57	07:06	07:14	07:19		**07:33**	
2004	**06:54**	06:58			07:13		07:27	07:33	07:39	07:43	07:52	08:01	08:06		**08:20**	
2006	**07:22**	07:26	07:35		07:44	07:52	08:02	08:07				08:29			**08:47**	
2008	**08:12**	08:16			08:30		08:45	08:51	08:57	09:01	09:10	09:19	09:24		**09:37**	
2010	**09:21**	09:25			09:40			09:58				10:20			**10:37**	
2012	**10:23**	10:27			10:42			11:00				11:22			**11:39**	
2014	**11:14**	11:18			11:33			11:51				12:13			**12:31**	
2016	**12:10**	12:14			12:29			12:47				13:10			**13:25**	
2018	**13:15**	13:19			13:34			13:52				14:14			**14:29**	
2020	**14:06**	14:10	14:19		14:28	14:36		14:49				15:11			**15:27**	
2022	**15:29**	15:33		15:43	15:48			16:06				16:28		16:36	**16:46**	
2024	**16:12**	16:16			16:31			16:49				17:12		17:20	**17:30**	
2026	**17:01**	17:05			17:20		17:34					17:59	18:03		**18:17**	
2028	**18:14**	18:18			18:33		18:47	18:52				19:14	19:19	19:24	**19:33**	
2030	**18:53**	18:57		19:07	19:12		19:26	19:32				19:54	19:59		**20:13**	
2032	**19:39**	19:43	19:52		20:01	20:09		20:22				20:45			**21:01**	
2034	**21:12**	21:16	21:25		21:34	21:42		21:55				22:17			**22:33**	
2036	**22:14**	22:18			22:33			22:51				23:13			**23:28**	

ITX-청춘 경춘선 주말·공휴일 상행 From Chuncheon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춘천 春川 Chuncheon	남춘천 南春川 Namchuncheon	강촌 江村 Gangchon	백양리 白楊里 Baegyang-ri	가평 加平 Gapyeong	청평 淸平 Cheongpyeong	평내호평 坪內好坪 Pyeongnaehopyeong	청량리 淸凉里 Cheongnyangni	왕십리 往十里 Wangsimni	옥수 玉水 Oksu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2052	**06:06**	06:10	06:19		06:28		06:46	07:09			**07:25**	
2054	**07:07**	07:11			07:26	07:34	07:47	08:10			**08:26**	
2056	**08:12**	08:16			08:31	08:39	08:52	09:15			**09:31**	
2058	**08:47**	08:51	09:00		09:09		09:27	09:50			**10:07**	
2060	**09:32**	09:36			09:51	09:59		10:34			**10:49**	
2062	**09:52**	09:56	10:05		10:14		10:32	10:55			**11:11**	
2064	**10:22**	10:26		10:36 공휴일	10:41	10:49		11:23			**11:39**	
2066	**11:25**	11:29		11:38 토	11:44	11:52		12:25			**12:43**	
2068	**12:28**	12:31			12:46	12:54	13:07	13:30			**13:46**	
2070	**13:11**	13:15	13:24		13:33		13:51	14:14			**14:30**	
2072	**13:38**	13:42		13:52 토,공휴일	13:57	14:05		14:39			**14:56**	
2074	**14:05**	14:09	14:18		14:27		14:45	15:07			**15:24**	
2076	**14:50**	14:54			15:08	15:16	15:29	15:52			**16:08**	
2078	**15:07**	15:11	15:20		15:30			16:09	16:14	16:18	**16:28**	
2080	**15:52**	15:56		16:06 토	16:11	16:19	16:32	16:55			**17:12**	
2082	**16:15**	16:19	16:28		16:37		16:55	17:19	17:23	17:28	**17:38**	
2084	**16:55**	16:59			17:14			17:52			**18:08**	
2086	**17:26**	17:30		17:40 토,공휴일	17:45	17:53	18:06	18:29			**18:44**	
2088	**17:55**	17:58	18:07		18:16		18:34	18:56			**19:12**	
2090	**18:25**	18:28		18:39 공휴일	18:43	18:51		19:26	19:31	19:35	**19:45**	
2092	**19:00**	19:04	19:13		19:22		19:40	20:02			**20:18**	
2094	**19:34**	19:38		19:48 토	19:53	20:01	20:14	20:37	20:42		**20:55**	
2096	**20:30**	20:34		20:44 토	20:49	20:57	21:10	21:33	21:38		**21:52**	
2098	**21:15**	21:19	21:28		21:38		21:56	22:20			**22:36**	
2100	**21:48**	21:52			22:06	22:14		22:48	22:51		**23:05**	
2102	**22:13**	22:17			22:34		22:53	23:16			**23:32**	

열차 시각은 운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서 정확한 시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TX-새마을 경부선 하행 From Seoul to Bu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서울 首尔 Seoul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水原 Suwon	평택 平澤 Pyeongtaek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대전 大田 Daejeon	영동 永同 Yeongdong	김천 金泉 Gimcheon	구미 龜尾 Gumi	대구 大邱 Daegu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청도 淸道 Cheongdo	밀양 密陽 Miryang	구포 龜浦 Gupo	부산 釜山 Busan	비고 備考 Remark
1001	**06:16**	06:25	06:46		07:15		07:57	08:25	08:51	09:07	09:36	09:42	10:03	10:16 물금 10:34	10:43	**10:55**	
1021	**07:04**	07:13	07:34	07:53	08:06	08:27	08:51		09:42	09:58	10:27	10:33	경산 10:42	11:07	11:31 부전 11:48	신해운대 **12:01**	
1003	**09:15**	09:24	09:45		10:14	10:35	10:59	11:27	11:53	12:09	12:38	12:45	13:06	13:19	13:44	**13:56**	
1005	**11:04**	11:13	11:34	11:53	12:06		12:48		13:39	13:55	14:24	14:30	경산 14:39	15:04 물금 15:22	15:31	**15:43**	
1007	**11:43**	11:52	12:13	12:32	12:45	13:06	13:30	13:58	14:24	14:40 왜관 14:53	15:12	15:18		15:49 물금 16:07	16:17	**16:29**	
1023	**12:53**	13:02	13:23		13:52		14:34		15:25	15:41	16:10	16:16		16:48	17:12 부전 17:27	신해운대 **17:40**	토일
1009	**13:55**	14:04	14:25	14:44	14:57		15:39	16:07	16:33	16:49	17:18	17:24	17:45	17:58	18:23	**18:35**	
1011	**15:55**	16:04	16:25		16:54		17:36		18:27	18:43	19:12	19:18			20:12	**20:24**	
1013	**20:25**	20:34	20:55		21:24		22:06		22:57	23:13	23:42	23:48		00:20	00:45	**00:57**	

ITX-새마을 경부선 상행 From Busan to Seoul

2022년 2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부산 釜山 Busan	구포 龜浦 Gupo	밀양 密陽 Miryang	청도 淸道 Cheongdo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대구 大邱 Daegu	구미 龜尾 Gumi	김천 金泉 Gimcheon	영동 永同 Yeongdong	대전 大田 Dae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천안 天安 Cheonan	평택 平澤 Pyeongtaek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서울 首尔 Seoul	비고 備考 Remark
1002	**06:27**	06:40	07:04	07:17	07:40	07:46	08:15	08:30		09:23	09:46	10:07		10:36	10:56	**11:05**	
1004	**09:12**	09:25	09:49	경산 10:14	10:25	10:31	11:00	11:15	11:42	12:10		12:51		13:20	13:41	**13:49**	
1006	**11:34**	11:47	물금 11:56 12:14		12:47	12:53	13:22	13:37		14:30		15:11	15:23	15:43	16:04	**16:12**	
1008	**13:23**	13:36	물금 13:45 14:03	경산 14:28	14:39	14:45	15:14	15:29	15:56	16:24		17:05	17:17	17:37	17:58	**18:06**	
1024	신해운대 **13:51**	부전 14:04 14:19	14:43		15:16	15:22	15:51	16:06		16:59		17:40		18:09	18:30	**18:38**	토일
1010	**15:08**	15:21	물금 15:30 15:48		16:21	16:27 왜관 16:45	16:59	17:14	17:41	18:09	18:32	18:53		19:22	19:43	**19:51**	
1012	**17:16**	17:29		18:03	18:26	18:32	19:01	19:16		20:09		20:50		21:19	21:40	**21:48**	
1022	신해운대 **17:26**	부전 17:39 17:54	18:18	경산 18:43	18:54	19:00	19:29	19:44	20:11	20:39	21:02	21:23	21:35	21:55	22:16	**22:24**	
1014	**19:25**	19:38	20:02		20:35	20:41	21:10	21:25		22:18	22:41	23:02		23:31	**23:52**		

ITX-새마을 호남선 하행 From Yongsan to Gwangju·Mokpo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水原 Suwon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계룡 鷄龍 Gyeryong	논산 論山 Nonsan	익산 益山 Iksan	김제 金堤 Gimje	정읍 井邑 Jeongeup	장성 長城 Jangseong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songjeong	나주 羅州 Naju	목포 木浦 Mokpo	비고 備考 Remark
1071	**08:32**	08:39	09:01	평택 09:20 09:33	09:53	10:20	10:36	10:54	11:20	11:32	11:47	12:05	광주 **12:29**			
1061	**10:50**	10:57	11:19	평택 11:38 11:51	12:11	12:38	12:54	13:12	13:38	13:51 신태인 13:59	14:08	14:26	14:40	14:50 함평 15:01	일로 15:14 **15:23**	
1073	**13:27**	13:34	13:56	평택 14:15 14:28	14:48	15:16	15:32	15:50 강경 15:59	16:19	16:32	16:46	17:04	광주 **17:28**			
1075	**15:22**	15:29	15:51	16:20		17:05	17:20	17:39 강경 17:48	18:07	18:20 신태인 18:28	18:37	18:55	광주 **19:19**			
1063	**19:13**	19:20	19:42	평택 20:01 20:14	20:34	21:01		21:32	21:58	22:11 신태인 22:19	22:28	22:46	23:00	23:10 함평 23:21	**23:40**	
1077	**20:10**	20:17	20:39	평택 20:58 21:11	21:31	21:58	22:14	22:32 강경 22:41	23:01	23:14	23:28	23:46	광주 **00:10**			

ITX-새마을 호남선 상행 From Gwangju·Mok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목포 木浦 Mokpo	함평 咸平 Hampyeong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songjeong	장성 長城 Jangseong	정읍 井邑 Jeongeup	김제 金堤 Gimje	익산 益山 Iksan	논산 論山 Nonsan	계룡 鷄龍 Gyeryong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천안 天安 Cheonan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1072			**광주 06:30**	06:54	07:11	07:26	07:40	08:06	08:24	08:40	09:05	09:26 평택 09:38	09:58	10:18	**10:25**	
1074			**광주 08:50**	09:14	09:31	09:46	10:00	10:26	10:44	11:00		11:43	12:12	12:32	**12:39**	
1062	**10:42** 일로 10:52	11:04 나주 11:14	11:26	11:41	11:58	12:12	12:26	강경 12:46 12:55		13:26		14:09	14:39	14:59	**15:06**	
1076			**광주 13:50**	14:14	14:31	신태인 14:40 14:49	15:03	15:29		16:00	16:25	16:46 평택 16:58	17:18	17:38	**17:45**	
1064	**17:42** 일로 17:51	18:03 나주 18:13	18:25	18:40	18:57	신태인 19:06 19:14	19:28	강경 19:47 19:57	20:15	20:31		21:14 평택 21:26	21:46	22:06	**22:13**	
1078			**광주 18:48**	19:12	19:29	신태인 19:38 19:47	20:01	강경 20:20 20:30	20:48	21:04	21:29	21:50 평택 22:02	22:22	22:42	**22:49**	

ITX-새마을 전라선 하행 From Yongsan to Yeosu-Expo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水原 Suwon	평택 平澤 Pyeongtaek	천안 天安 Cheonan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계룡 鷄龍 Gyeryong	논산 論山 Nonsan	강경 江景 Gangkyeong	익산 益山 Iksan	전주 全州 Jeonju	남원 南原 Namwon	곡성 谷城 Gokseong	구례구 求禮口 Guryegu	순천 順天 Suncheon	여천 麗川 Yeocheon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Yeosu-Expo	비고 備考 Remark
1081	**08:47**	08:54	09:16	09:35	09:48 조치원 10:08	10:35	10:51	11:10		11:36	11:52	12:19	12:29	12:41	12:58	13:13	**13:21**	
1083	**16:39**	16:46	17:08	17:27	17:40	18:24	18:40	18:58	19:07	19:27	19:43	20:10	20:20	20:32	20:49	21:03	**21:12**	

ITX-새마을 전라선 상행 From Yeosu-Ex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Yeosu-Expo	여천 麗川 Yeocheon	순천 順天 Suncheon	구례구 求禮口 Guryegu	곡성 谷城 Gokseong	남원 南原 Namwon	전주 全州 Jeonju	익산 益山 Iksan	강경 江景 Gangkyeong	논산 論山 Nonsan	계룡 鷄龍 Gyeryong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천안 天安 Cheonan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1082	**08:55**	09:03	09:18	09:34	09:46	09:56	10:24	10:42	11:01	11:11	11:29	11:45	12:28	12:57	13:17	**13:24**	
1084	**15:52**	16:00	16:15	16:31	16:43	16:53	17:21	17:39		18:05	18:23	18:39	19:22	19:51	20:11	**20:18**	

ITX-새마을 경전선 하행 From Seoul to Jinju·Ma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서울 首尔 Seoul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水原 Suwon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대전 大田 Daejeon	김천 金泉 Gimcheon	구미 龜尾 Gumi	왜관 倭館 Waegwan	대구 大邱 Daegu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밀양 密陽 Miryang	진영 進永 Jinyeong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jungang	창원 昌原 Changwon	마산 馬山 Masan	함안 咸安 Haman	진주 晋州 Jinju	비고 備考 Remark
1031	**08:53**	09:02	09:23	평택 09:42 09:55	10:16	10:40	11:31	11:47		12:16	12:22 경산 12:31	12:56	13:14	13:24	13:33	13:39	13:51	**14:09**	
1033	**19:27**	19:36	19:57	20:26	20:47	21:11	22:02	22:18	22:31	22:50	22:56	23:28	23:48	23:59	00:08	00:14	00:26	**00:45**	

ITX-새마을 경전선 상행 From Jinju·Masan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진주 晋州 Jinju	함안 咸安 Haman	마산 馬山 Masan	창원 昌原 Changwon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jungang	진영 進永 Jinyeong	밀양 密陽 Miryang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대구 大邱 Daegu	구미 龜尾 Gumi	김천 金泉 Gimcheon	대전 大田 Dae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천안 天安 Cheonan	평택 平澤 Pyeongtaek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서울 首尔 Seoul	비고 備考 Remark
1032	**09:08**	09:28	09:39	09:45	09:55	10:05	10:22 청도 10:35	10:58	11:04 왜관 11:22	11:36	11:51	12:44	13:07	13:28	13:40	14:00	14:21	**14:29**	
1034	**15:47**	16:07	16:18	16:24	16:34	16:43	17:00	17:33	17:39	18:08	18:23	19:16	19:39	20:00		20:29	20:50	**20:58**	

새마을호 장항선 하행 From Yongsan to Ik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수원 水原 Suwon	평택 平澤 Pyeongtaek	천안 天安 Cheonan	아산 牙山 Asan	온양온천 溫陽溫泉 Onyangoncheon	신례원 新禮院 Sillyewon	예산 禮山 Yesan	삽교 揷橋 Sapgyo	홍성 洪城 Hongseong	광천 廣川 Gwangcheon	대천 大川 Daecheon	웅천 熊川 Ungcheon	서천 舒川 Seocheon	장항 長項 Janghang	군산 群山 Gunsan	익산 益山 Iksan	비고 備考 Remark
1051	**09:40**	09:48	10:11	10:31	10:51	10:58	11:07		11:25	11:33	11:44	11:59	12:16	12:27	12:40	12:45	12:53	**13:11**	
1053	**11:52**	12:00	12:23		12:59	13:06	13:15		13:32		13:47	14:00	14:17	14:28	14:41	14:46	14:54	**15:12**	
1055	**13:45**	13:53	14:16		14:52	14:59	15:08		15:25	15:33	15:48	16:01	16:18	16:29	16:41	16:47	16:54	**17:12**	
1057	**15:30**	15:38	16:01		16:37	16:44	16:53		17:10		17:26	17:39	17:56	18:07	18:19	18:25	18:32	**18:50**	
1059	**17:55**	18:03	18:26	18:46	19:06	19:13	19:22	19:36	19:43	19:51	20:02	20:15	20:32	20:43	20:55	21:01	21:08	**21:26**	

새마을호 장항선 상행 From Iksan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익산 益山 Iksan	군산 群山 Gunsan	장항 長項 Janghang	서천 舒川 Seocheon	웅천 熊川 Ungcheon	대천 大川 Daecheon	광천 廣川 Gwangcheon	홍성 洪城 Hongseong	삽교 揷橋 Sapgyo	예산 禮山 Yesan	신례원 新禮院 Sillyewon	온양온천 溫陽溫泉 Onyangoncheon	아산 牙山 Asan	천안 天安 Cheonan	평택 平澤 Pyeongtaek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1052	**05:57**	06:17	06:25	06:31	06:45	06:56	07:13	07:27	07:37	07:46	07:52	08:06	08:14	08:22	08:40	09:01	09:26	**09:33**	
1054	**08:30**	08:50	08:58	09:04	09:18	09:29	09:47	10:00	10:10	10:19		10:36	10:44	10:52		11:27	11:50	**11:57**	
1056	**10:44**	11:04	11:12	11:18	11:32	11:43	12:00	12:14		12:29		12:45	12:53	13:02		13:37	13:59	**14:06**	
1058	**14:06**	14:26	14:34	14:40	14:54	15:05	15:22	15:36		15:51		16:07	16:15	16:23	16:41	17:02	17:25	**17:32**	
1060	**18:58**	19:18	19:26	19:32	19:46	19:58	20:15	20:29	20:39	20:48	20:55	21:09	21:17	21:26		22:01	22:27	**22:35**	

열차 시각은 운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서 정확한 시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의 시설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93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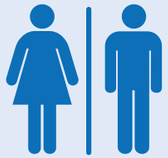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USB 포트
Socket&USB Port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승강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

KTX 셔틀버스 8507번 길라잡이

※ **사당역~광명역 간 직통 운행**
사당역 탑승 시 사당역 4번 출구 앞→ 광명역 서편(상징광장) 정류소
광명역 탑승 시 광명역 3-1번 출구→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 사당역 3번 출구 앞
※ **운행 시간** 오전 5시~자정(광명역 출발 막차 밤 11시 30분) / **배차 간격** 10분
※ **대중교통 환승 할인** 수도권 통합 환승을 적용해 기존 버스나 지하철 이용 시 할인 가능
※ **비용 절감** 서울역과 비교해 광명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2100원 절약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길라잡이

※ **탑승 수속**
이용 시간 오전 6시 30분~오후 7시
탑승 수속 마감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대한항공 항공기 출발 3시간 20분 전)
수속 가능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서울, 이스타, 에어부산
수속 가능 노선 인천국제공항 출발 국제선 전 노선
※ **출국 심사**
이용 시간 오전 7시~오후 7시
출국 심사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전 출국 심사 가능

※ **코로나19 여파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을 중단합니다.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 특송

급송이 필요한 고객의 화물을 KTX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배송품은 주요 고속철도역에서 접수하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 퀵서비스를 연결하여 배송해 드립니다.
취급역 서울, 용산, 광명, 천안아산, 오송, 대전, 동대구, 마산, 부산, 익산, 전주, 목포, 광주송정, 여수엑스포, 포항 **문의** 1544-7781

AMENITIES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112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심장박동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줘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계입니다.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s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OPTIONAL SERVICES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인천공항)

운행시간 오전 6시 30분~오후 9시 30분 (40~100분 간격 / 왕복 30회)
소요시간 (T1↔광명역) 약 50분, (T2↔광명역) 약 75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1번출구 1-1번 버스정류장 (인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전국 기차역, 코레일톡 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KTX 마일리지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일리지 전환 사용 가능

※ **플랫카드 구매처** CU 편의점, emart24, 스토리웨이
※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iOS) iOS는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스티커 구매→부착 후 사용
※ **사용처**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도로, 편의점 등
※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emart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내용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대중교통안심카드

CU레일플러스카드

railplus.korail.com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열차 이용 안내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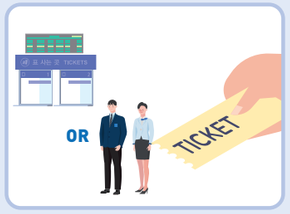
승차권
자동 발매기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카카오T'
스마트폰 앱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간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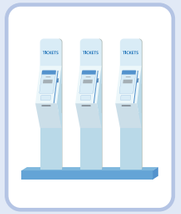
PASSENGER GUIDE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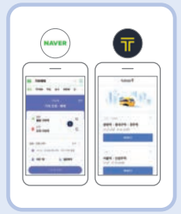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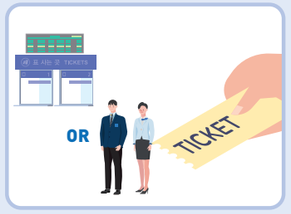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KAKAO T
Mobile App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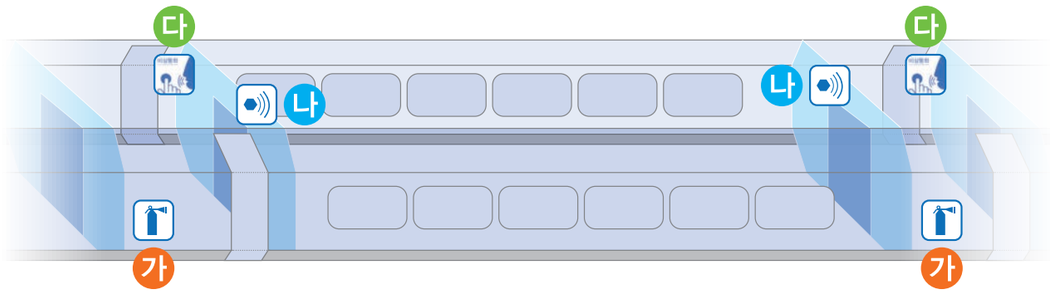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 –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 – 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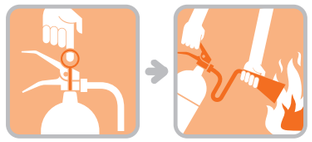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 – 60 minutes	60 minutes – 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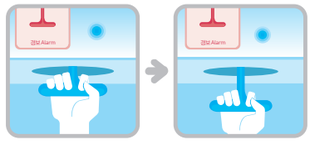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1. 승강문 옆 수하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2.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알림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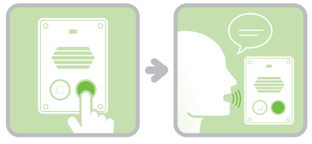
1.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2.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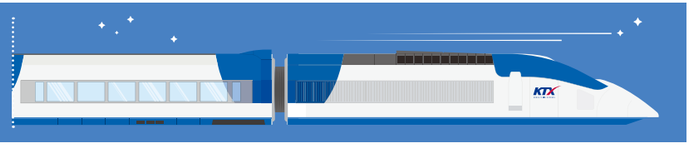
1.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2.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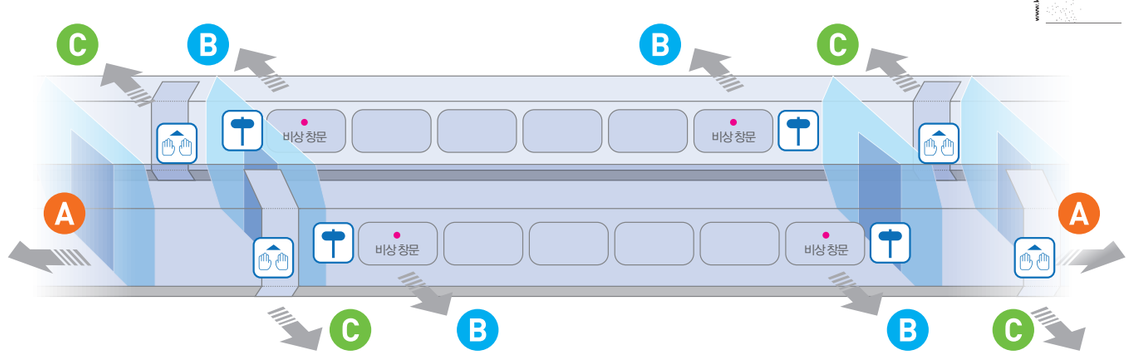
ITX 새마을 | ITX 청춘

1.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2.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신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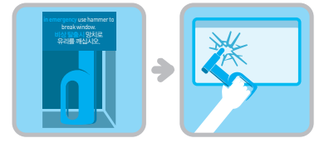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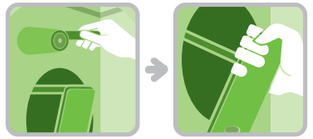
1.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2.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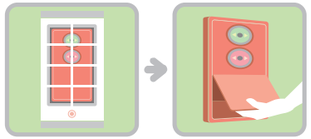
KTX

1.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2.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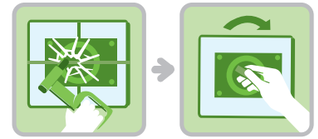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1.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깬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2.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춘

1.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깬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2.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Epilogue

사람

이달에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낙화장 김영조 선생님, 충북 충주 사과나무 이야기길 권연정 활동가님, 스페이스선 엄수정 대표님을 만나 삶을 들여다봤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 고작 몇 시간 인터뷰하고 내가 들은 게 전부인 것처럼, 그분을 다 아는 것처럼 쓴다는 게 가당하기나 한가? 인터뷰이와 독자님들께 죄송스러워 하나도 놓치지 않겠단 각오로 인터뷰를 했다. 그렇게 기자 생활을 하다 언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 듣는다고, 모두 쓴다고 그게 과연 그분의 진짜 이야기일까?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동안 주변을 맴도는 따듯한 분위기. 흐르는 눈물을 옷소매로 닦는 사람, 깔깔 웃으면서 참 재미있는 일 아니었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다음 이야기가 무엇이냐 따지는 건 바보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눈물과 웃음이 아니더라도 그 순간 우리를 맴도는 바로 그것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글을 썼다. 감사한 일이다. **김규보**

흔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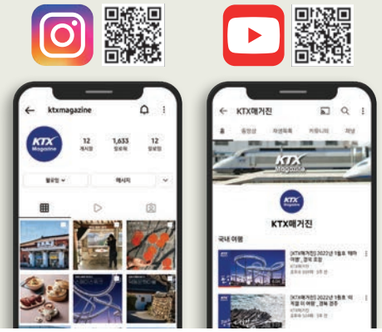
"기차가 부연 안개를 헤치고 달린다.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선이 지워진 널따란 들녘엔 소금처럼 서리가 내려앉아 있다. 오솔길은 저 아득한 산속으로 굽이굽이 흘러간다. 오늘 아침, 가장 먼저 저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시속 300킬로미터의 속도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본다는 건 정말 근사한 명상의 순간이다…." KTX-산천 전라선 하행 열차를 타고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수첩에 흘려 쓴 메모다. 지난밤 원고 마감을 끝내고 통근 열차에 올랐을 때, 문득 이 메모를 남긴 순간이 떠올랐다. 우리는 왜 이토록 '남기기'에 필사적인 것일까. 모래사장 위에 눌러쓴 'I love you'든, 거칠게 써 내려간 메모든, 이 지면에 쓰는 편집 후기든 결국엔 모두 거대한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갈 텐데…. 완주 대둔산 케이블카 정류장 전망대에 올랐을 때, 한 꼬마 친구가 쌓인 눈 위에 용감하게 남긴 손자국을 봤다. 그 필사적인 마음이 애처롭게도, 따뜻하게도 느껴져서 사진으로 남겼다. 이렇게 또 무언가를 남기고 말았다. **강은주**

아직도 처음입니다

열두 달 중 어떤 달이 가장 좋나요? 저는 2월이 좋아요. 생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2월호를 제작하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 많아 그럴지도 모르지요. 규보 선배의 충주 취재에 동행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몰려오는 졸음을 꾹 참았어요(사실 차 안에서 조는 모습을 규보 선배가 보았을지도 몰라요. 민망…). 아침잠이 많은 터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출발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투덜거렸는데, 아침의 소중함을 그때 깨달았어요. 차창 밖 풍경을 처음 보았을 때는 하얀 나뭇가지가 신기하다 했어요. 상고대인 줄 꿈에도 몰랐죠.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겨울 풍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사진을 찍었지만 기억 속에 더 아름답게 남을 듯해요. 또 생애 처음 여행 기사도 작성해 보았지요(뿌듯!). 앞으로도 난생처음인 일들로 긴장되고 무섭기도 하겠지만, 도전하는 삶이 좋네요. 혹시 처음 겪는 일이 있어도 걱정 마세요. 분명 잘해 낼 수 있을 거예요. **남혜림**

손안에서 펼쳐지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KTX매거진〉을 만나 보세요!



광고 문의 02-3278-5556